



9

199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2. 9호

(루게 539)



◆◆◆◆◆◆◆◆◆◆ 차 례 ◆◆◆◆◆◆◆◆◆◆

| | |
|---------------------------|----|
| 보약 | 4 |
| 무쇠 발걸음 | 5 |
| 강선의 백양나무(외 2편) | 18 |
| 끓자, 나와 함께 | 18 |
| 신념의 메부리 | 19 |
| 처음 본 눈물, 처음 흘린 눈물 | 20 |
|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께 | 21 |
| 김정일 동지따라 앞으로 | 21 |
| 기다렸습니다..... | 22 |
|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나오기까지 | 23 |
| 나는 평양의 아들..... | 25 |
| 명제해설 | 26 |
| 정든 내 고향..... | 27 |
| 첫번째 위인을 맞다 | 28 |
| 시인의 노래 | 30 |
| 거대한 영상 | 31 |
| 고향집 추억 | 32 |

| | |
|---|----|
| 나는 조선사람이다 | 33 |
| 민족과 운명에 대한 철학적인 진리를 밝혀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 | 36 |
| 사랑 | 42 |
| 할아버지와 손자 | 55 |
| 교정의 백양나무 | 59 |
| 배움의 전당에서 만난 사람들 | 60 |
| 나의 모교 | 63 |
| 포옹 | 65 |
| 사랑의 권리 | 66 |
| 당신은 조국을 지켰습니다 | 69 |
| 삶과 존엄 | 70 |
| 잠들수 없는 밤 | 79 |

보약

최호진

알차게 영근 이삭

튀겨날듯한데

내 그만 낫을 들어

선뜻 베이지를 못하겠구나

아득한 저 벌 한끝에서

이랑이랑 춤추며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문득 이 벌에

어버이수령님 모시고싶은 마음 간절해

어느해였던가

만풍년든 이 벌을 찾으시여

우리 가꾼 낱알을 소중히 살펴보신 수령님

이삭에 알수도 헤여보시며

착실한 실농군의 마음이

탐스럽게 주렁졌다고...

기쁘시여 기쁘시여

웃으시며 하시던 그 말씀

농사만 잘되면

제일 기쁘시다고

기쁨은 젊어지는 보약이라고...

내 왜 몰랐던가

한뼉 농사에 잔뼈 굳어졌어도

내 가꾼 풍년낱알이

만년장수 보약이 된다는것을

백가지 농사일 다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어느 농장마을을 찾으셔도

어느 공업도시를 지나시여도

살림집 먼저 찾으시여

부엌의 쌀독부터 먼저 열어보실 때

어버이사랑의 그 한평생에

눈물짓던 우리의 마음

자책하노라

그 사랑 그 은정 안고 살면서도

만년장수의 보약으로 해해년년

만풍년을 가꾸어왔던가

아, 벌이 그대로 쌀창고가 되게

풍년의 낱알로

저 하늘 높이 쌀낭가리 쌓아놓고

어버이수령님 천년만년 모시고싶은 마음담아

흙깔고 거름 낸 포전마다

이렇게 풍년이삭 알차게 영글었으니

기쁨중에도 제일 큰 기쁨

을보약중에도 제일 귀중한 보약을

땅이 꺼지도록 하늘이 들리도록 마련하고

수령님 또다시 모시고만싶은 간절한 이 순간

아, 선뜻 베이지 못하겠구나

기쁨에 목메어서 행복에 겨워서

무소 발걸음

김석범

1

휘넓은 사동벌에는 땅이 꺼지게 황금나락이 실렸다. 푸른 하늘에서 눈부시게 빛나고있는 태양은 토지개혁후 세번째로 가을을 맞이한 이 풍요한 대지를 끌고루 어루만지며 미소를 던지는상싶었다.

한낮이었다. 정비장앞길에는 우람진 땅크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서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갈듯 와르릉거리며 배기가스를 내뿜고있는 땅크장갑들은 준마의 탄력있는 근육처럼 푸들푸들 떨고있었다.

부대장 류경주는 땅크중대서열을 천천히 돌아보고있었다. 그의 무관다운 의젓한 몸가짐과 땅크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어글어글한 눈빛은 자못 숙연했다.

(아홉째가 39 호라...)

류경주는 아홉번째 땅크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뒤를 따르던 교원들과 지휘관들도 멈춰섰다. 아홉번째는 마지막 위치를 차지하고있었다.

류경주는 39 호땅크를 보노라니 장오복의 림름한 모습이 보이는것 같았다. 39 호땅크승무조원 장오복, 누구보다 기대가 크고 애착이 가는 교도생이었다. 땅크교도려단을 꾸리고 훈련을 시작한다는 겨우 두어달밖에 안되지만 오늘 벌써 장거리교단운전훈련에 들어가게 된것은 바로 장오복과 같은 열혈청년들로 하여 가능했다고도 할수 있는것이였다.

《부대장동지, 출발시간이 됐습니다.》

등뒤에서 누군가가 귀뜸하듯 나직이 말했다. 지도교원 정일건이였다. 그의 얼굴생김은 군사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 행동에 비해 사색이 많은 학자풍의 인상이 강했다. 그의 얼굴엔 지금도 사색의 빛이 진했다.

《부대장동지, 이제라도 신중히 다시 생각해바야하지 않겠습니까.》

류경주는 그의 기색에서 이상하게도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것과 반대되는 이와 같은 충고를 읽을수 있었다. 땅크군사학을 통달한 지도교원 정일건의 충고는 사실상 가볍게 대할것이 아니였다.

장거리교단운전으로 말하면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였다. 그런데 이 운전훈련을 수행해야 할 교도생들은 두달전에만 해도 땅크의 어느 간단한 구조명칭조차 입에 올리기 힘들어한 청년들이였다. 나라가 없고 돈이 없어 현대기술문명에

서 멀리 밀려나 기껏해서 손수레나 광차, 달구지밖에 끌어본적이 없는 그들인것이다. 그 대다수는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국문을 익혔다. 때문에 이런 그들을 땅크병으로 키워야 할 땅크교도려단에선 조직된 첫날부터 교육내용과 방법, 기일문제를 놓고 지도교원들의 논의가 분분했다.

류경주도 생각이 깊었다. 외국의 땅크군사학교재들도 연구했고 지도교원들과 여러차례 협의도 해보았다. 그렇게 해서 교육강령과 과정안이 작성되였다. 그 기간은 3 년이였다. 목표 3 년! 현실정에선 이것도 경이적인것이라고들 했다.

《교도생들이 3년동안에 배워내겠는지... 땅크란 말조차 모르던 그들의 준비정도로 보아선 참으로 장담할수 없는 목표입니다.》

정일건은 위구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벽찬 현실속에서 처음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창조의 희열을 맛본 교도생들의 사기는 충천했다. 3년이 뭐냐, 3년이 아니래도 우리는 땅크를 배워낼수 있다. 하늘을 찌를듯한 그들의 기세는 이렇게 웨쳐대는 것만같았다.

류경주는 발음하기조차 어려웠던 땅크의 구조명칭과 기술용어들을 습득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각 계통의 구조작용과 원리, 운전리론과 조법들을 익혀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국의 땅크군사학에 기초한 교육강령과 과정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였다. 류경주는 밤길도록 생각에 잠기군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석대의 땅크를 가지고 첫 단거리운전훈련을 하고있는데 까만 승용차 한대가 사동벌을 지나 훈련장으로 살같이 달려왔다. 눈에 익은 승용차였다. 붉은 기발을 꽂은 출발선에서 훈련광경을 지켜보던 류경주는 부지중 가슴을 들먹이며 승용차를 마중해 달려갔다.

승용차는 훈련장기슭에서 멎었다. 인차 차문이 열리더니 수수한 양복차림에 중절모를 쓰신분이 내리시였다. 주위가 금시 눈부신 빛발로 차넘치는 듯했다. 그분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께서 이 외진 훈련장엘 찾아오시다니...)

뜨거운 격정이 류경주의 가슴을 가득채웠다. 장군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바로 보름전이다. 그러니 내각수상으로 추대되신 그이께서 새 정부의 첫사업을 돌보시기에 얼마나 바쁘시랴.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시는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라고

한다.

《차렷!》

류경주는 복받치는 걱정을 불안은채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구령을 주고 몸에 뻗 절도있는 동작으로 장군님앞으로 다가가 영접보고를 올렸다.

《쉬워하시오… 지축을 흔드는 땅크동음이 유난스레 마음을 끌더구만. 그래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들렸소.》

장군님께서는 해빛처럼 밝은 미소를 날리시었다. 그이께서는 훈련정형에 대해 물으신 다음 운전코스를 무사히 돌고나온 교도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땅크병동무들, 잘 있었습니까? 나는 동무들이 보고싶었습니다.》

《장군님의 건강을 축복함!》

교도생들은 입을 모아 우렁차게 답례했다. 그들과 어울려있던 지도교원들은 거수경례를 올리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었다.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교도생들이 벌써 저렇게 왕왕 땅크를 몰아대고 있으니 얼마나 큰일을 해놓았습니까.》

장군님께서는 훈련장 한끝의 귀환점을 돌아서서 우렁우렁 굴러오고있는 땅크에 안광을 돌리시었다. 풀색 철갑에 흰색으로 39 라고 쓴 그 땅크는 무한케도답판으로 땅거죽을 물어뜯으며 제법 능숙하게 방향을 틀군하면서 정확하게 정해진 코스를 따라 전진해오고있었다. 비록 느릿느릿한 저단운전이긴 하지만 박력있는 전진이었다. 해빛 반사광을 번쩍이는 집채같은 무쇠철갑과 위엄있게 내뿜친 포신, 흙바닥 먼지를 물어날리는 무한케도와 하늘땅을 뒤흔드는 엔진소리는 땅크의 위용을 한껏 떨쳐주고있었다.

《불만하오. 갓 시작한 운전치고는 대단합니다.》

장군님께서는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전진해오는 39 호땅크를 만족하게 주시하시었다. 류경주는 왜 그런지 송구스러웠다.

《장군님, 우린 겨우 첫걸음을 땀데 불과합니다.》

《첫걸음이 중요하지.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지 않소.》

장군님께서는 의논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일전에 동무네가 올려보낸 훈련과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는 좀 허전했었습니다. 땅크병을 키워내는데 최소한 3 년은 걸려야 한다? 그래 우리가 3년안으로는 땅크부대를 가질수 없단말입니까?》

《려단에선 그 문제를 놓고 많은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이상 다른 방안은… 기준을 3년으로 정한것도 경이적인 것이라고들 합니다.》

류경주는 그 대답이 자신에게도 변명처럼 들리어 눈을 내리깔았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심중을

헤아리신듯 미소를 지으시었다.

《기성리론과 관념을 떠나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정과 요구에 비춰볼 때에도 경이적인것이겠소? 아무래도 그 3년이란 기간은 우리의 실정과 잘 맞는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동무가 그래서 안타까와하고있다고 봅니다.》

《장군님,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무슨 문제나 안타까와하면 풀리기 마련입니다. 나는 지금 허전했던 가슴이 풀리는것 같습니다. 전진해오는 저 39 호땅크가 신심을 줍니다.》

장군님께서는 39 호땅크를 향해 몇걸음 걸어나가시었다. 39 호땅크는 출발선에 이르러 멈춰섰다. 이어 아래우 육구들이 열리더니 검은 승무복차림의 땅크병들이 솟아올랐다. 땅우에 뛰어내린 그들은 차앞에 모이었다. 땅크통신모를 쓴 교도생 장오복과 지도교원 정일건이...

그들은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정일건이 맨먼저 차렷자세를 취하며 장군님께 인사를 올렸다. 뒤미처 장오복이 거꿀진 몸을 꼳꼳이 펴며

《장군님! ... 교도생 장오복은...》 하고 군대식으로 보고를 한다는것이 그만 흐느낌으로 변하고말았다.

《장오복, 장오복이란 말이지...》

장군님께서는 그 이름의 뜻을 새겨보시듯 이렇게 되이시었다. 류경주가 말쑥올렸다.

《이 동무의 아버지는 아들만은 만복을 누리야 한다고 이름을 오복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장군님, 그렇습니다.》

장오복이 감격의 눈물을 삼키며 뒤를 이었다.

《저의 부모님의 소원은 성취되었습니다. 해방을 맞았구 땅크병이 되었구... 그이상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 그래 그렇구말구. 땅크 한대가 공장 하나와 맞먹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땅크를 타고왔으니 그게 만복이지.》

장군님께서는 통쾌하게 웃으시었다.

《오복동문 땅크를 척척 몰아대던데 운전해본일이 있었소?》

《처음입니다. 지난날 제가 몰아봤다는건 광차입니다.》

《광차뿐이라? ... 부대장동무, 다른 교도생들은 어떻소?》

《모두 오복동무와 비슷합니다. 목탄화물차 조수를 했다는 동무가 그중 일러줄만한 기계경험을 가지고있다고 할 형편입니다.》

《그렇테지. 우리 인민은 왜놈들의 학정밑에서 기술을 배울래야 배울수가 없었지. 천하에 교악하고 악독한 왜놈들이었소. 그래 오복동무는 어디서 광부로 일했소?》

《일본입니다.》

《그러니 징용으로 끌려갔던 모양이구만.》

《그렇습니다.》

장오복은 자그만치 4년동안이나 일본에서 고역을 치르었다.

《고생이 컸구만. 고향에 들렀댔소?… 고향엔 누가 있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해방전에 돌아가셨구 상금인…》

장오복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피가지게 입술을 깨물었다.

상금이는 7년전에 그와 약혼한 처녀였다. 장오복은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들사이엔 피눈물나는 사연이 있었다.

장오복이 열일곱살이 되던 해였다. 마을에선 많은 청장년들이 징용으로 끌려나갔다. 이무렵 마을에는 전쟁물자, 식량을 운반하는 자동차운전수와 조수들만은 징용을 면제받는다라는 말이 돌았다.

삼대째 지주집 소작살이를 하던 장오복은 나이 찬 자기에게도 징용의 올라미가 기다리고있음을 느꼈다. 그는 징용의 마수가 뻗치기전에 자동차를 타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마을에 식량을 실으러온 운전수를 만나보았는데 뜻을 이루자면 많은 돈을 써야 했다. 아버지를 여윈후 몸져 자리에 누운 어머니의 병구완도 제대로 못하는 오복이로선 그 돈낭을 마련할 재간이 없었다. 그는 생존의 권리를 잃은것만 같은 절망과 암흑의 세계에서 가슴을 쥐어뜯었다. 이런 때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량부모와 두 동생을 잃고 혼자 남은 상금이가 그를 찾아와 약차한 돈을 내놓았다.

《상금인 어디서 이 돈을?…》

온 가족을 잃고 그 장사비로 가산을 몽땅 밀어넣은 상금임을 알고있는 장오복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상금이는 대답을 피했다. 그것이 더 진한 의혹을 자아냈다.

《솔직히 말해. 상금인 지주집 종으로 들어간게 아니야?》

장오복은 지주놈이 처녀종살이군을 물색하고있다는 말을 들은바 있었다. 대답을 피할수 없게된 상금이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이래동안 일해주기로 하구 그 전불금을 타냈어요.》

《에이, 상금이두 참… 그건 노예로 팔리워가는 것과 같애. 돈을 도루 갖다주라구. 계약도 취소하구.》

상금이는 살래살래 머리를 저었다.

《그 계약은 취소할수 없는것으로 되었어요.》

《무슨 소릴… 내 당장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전 죽고말겠어요.》

창졸간 장오복은 돌미륵처럼 굴어지고말았다.

《인젠 저에게 그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

서 징용에 끌려간다면… 그쪽에선 꼭 자동차를 타야 해요.》

명치끝이 찢르르해진 장오복은 눈시울을 떨었다.

《이래후엔 저도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아요. 그 때 자동차를 타구 어디든 행복을 찾아가자요.》

상금이는 속삭이듯 다정히 말했다.

《상금인 어찌면…》

장오복은 그 돈을 가지고도 겨우 자동차조수로 되었다. 며칠이 지나갔다. 그럭저럭 일이 퍼나가는가싶었는데 하루는 두 순사가 나타나 자동차적재함에서 목단불을 피우는 그에게 징용장을 내렸다.

《물려서시오. 나는 자동차조수요.》

《요 조선놈의 새끼나… 징용을 기피하려고 돈냥이나 썼단말이지. 그래 징용에서 면제한다는 당국의 지시문이 있는가?》

장오복은 말문이 박히었다. 그에게 그런것이 있을리 없었다.

오복이가 뜬소문을 믿었던 자신과 저주로운 세상을 한탄하며 징용의 길에 오를 때 쌀가마니를 처실은 자동차가 부르릉거리며 마을앞길에 나서고있었다. 빨래함지를 안고 지주집 대문을 나서던 상금이가 그 자동차를 희망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모습이 멀찍이 눈에 띄었다. 이래후 그와 더불어 어디든 행복을 찾아가자고 한 상금이, 그의 앞가슴에선 그 소중한 꿈을 되새겨주듯 유난스레 하얀저고리고름이 바람을 안고 나뭇기고있었다.…

장오복은 이국에 끌려가 고역살이를 하면서도 그 모습을 잊은적이 없었다. 지금도 장오복의 눈앞에는 그 모습이 너무도 생생했다. 이런 상금이가 아니었다면 그는 현해탄을 건너갈 때 굴욕을 당하느니 목숨을 버리는권이 낫다고 바다물속에 몸을 던졌을지도 몰랐을것 이고 걸음마다 민족수난의 피눈물을 뿌려야 했던 어두운 굴속에서 무거운광차를 밀어내지도 못했을것이였다. 그에게서 상금이는 고향이고 고국이였으며 생의 지탱점 이였다. 그런데 일본이 망한후 그가 만난을 무릅쓰고 귀국했을 때 상금이는 지주집에서 어느 방직공장엔가로 팔리워가고 고향에 없었다. 어머니는 한많은 세상을 저주하며 세상을 떠난지 오래다. 장오복은 일점 혈육과도 같은 애인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러나 상금이는 그 공장에도 없었다. 불쌍한 처녀는 또 어딘가로 팔리워간것이였다.

몇군데 더 다녀보다가 끝내 헛물을 켜고 고향 땅에 돌아온 장오복은 애인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초모사업이 진행될 때 군대에 입대했다. 처음에는 보병에 있었다. 그러다가 땅크교도려단이 조직될 때 이 려단으로 뽑혀왔다.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었다. 이 나라 인민이 겪은 수난과 슬픔의 역사를 더듬어 시는듯 흐린 안색으로 가을빛 넘치는 사동별 한 끝을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지금 <국방경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고 북침전쟁소동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눈물의 역사는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조선인민군을 모든 군종, 병종을 다 갖춘 강력한 정규무력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장오복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었다.

《동무들의 어깨우에는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가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땅크부대를 빨리 내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날을 당겨올수 있는가? 그 대답은 땅크를 다루는 동무들만이 찾을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동무들이 훈련하는것을 보고 동무들이야말로 우리 식의 새로운 땅크군사교범을 창조해내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뻤습니다. 동무들이 오늘 땅크를 운전할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동무들은 벌써 새로운 과정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혁명입니다.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 걸어서 해낸것을 단 한걸음에 해내게 할수있는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동무들은 다 혁명가들입니다.》

장군님의 열정에 넘친 목소리는 숨엄하게 울리었다.

류경주는 가슴이 찡했다. 교도생들의 자그마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며 그들을 혁명가로 값높게 불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혁명가!》

누군가가 뜨겁게 뇌이였다. 격동의 물결이 교도생들을 휩쓸었다. 자신들을 새롭게 느껴보는듯한 그들의 상기된 얼굴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장군님,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제자신을 더욱 다잡게 됩니다. 정말이지 혁명적으로 달라붙는다면 이 땅크를 인차 광차처럼 다룰수 있을것 같습니다.》

장오복이 가슴을 들먹이며 신심에 넘쳐 말했다.

《장군님, 그렇습니다.》

와와 호응하는 소리가 일어났다. 오늘 정작 운전까지 해보니 땅크도 신비한게 아니다,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말마디들도 울려나왔다.

《부대장동무, 전사들의 기세가 여간 아닙니다. 땅크를 광차만치나 만만하게 여깁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오복에게 물으시었다.

《그래 오복동무 얼마동안이면 땅크를 광차처럼

다뤄낼것 같소?》

《광차를 손에 익히는데 사날 걸렸으니까 땅크는 한 석달이면 될것 같습니다.》

《석달? 3년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석달이란 말이요?》

장군님께서서는 부러 놀란 표정을 지으시었다. 장오복은 담차게 부르짖었다.

《장군님, 혁명은 그렇게 해야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동의와 지지를 구하듯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술렁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다. 모두 표정들이 각이했다. 교도생들 대다수는 장오복에게 고개를 힘있게 끄덕여보였다. 그러나 너무 엄청난 대답이아닌가고 고개를 기웃거리는 교도생도 없지 않았다. 지도교원들속에서는 장오복의 대답을 그저 천진란만성으로 여기는듯한 미소와 아연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 표정이 강하게 나타난것은 정일건이였다. 정일건은 아무래도 무심하게 스쳐넘길 대목이 아니라는듯 장군님앞으로 한걸음 진중하게 나섰다.

《장군님, 교도생들의 의욕과 기개는 참으로 장한것입니다. 그러나 교육학적과정은 일정한 시간을 조건으로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수행하는 단거리저단훈련은 운전교육의 시초에 불과합니다. 이 시초단계에 오르기까지는 2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즉 오복동무의 석달안은 타산이 안서는것이란 말이겠소?》

《...》

《어떻소? 오복동무, 동문 타산이 있었겠지?》

장군님께서서는 장오복에게 기대를 표시하시였다. 류경주는 부지중 긴장을 느꼈다. 교육학적과정은 일정한 시간을 조건으로 한다는 정일건의 말은 백번도 옳은것이다. 그래서 류경주는 모든 지도교원들의 지혜를 모아 시간을 최대한으로 얻어내기 위해 모색해왔었고 그리하여 산출해낸것이 3년이였다. 그런데 장오복의 입에서 엉뚱하게도 석달이란 말이 튀어나왔다. 류경주는 가슴이 조여들었다.

《장군님, 우린 궁리를 해보았습니다.》

장오복의 태도는 한모양으로 씩씩했다.

《우리는 매 하루하루를 열곱, 스무곱으로 늘일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학과 훈련을 낮시간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 상학과 견습은 밤시간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허허, 그런 방법으로 시간을 얻어낼 궁리를 했던 말이지. 그렇게 해서 동무들이 견디여낼가?》

《저희들은 피끓는 청년들입니다. 설사 교육기간에 일시 건강이 파괴된다해도 땅크에 완전히 정통하게 되면 인차 건강을 회복할수 있습니다. 혁명을 하는바에야 밤낮을 가릴게 있습니다.》

《이 동무 보오. 막 땅크처럼 내밀고 나가자고 하오.》

장군님께서 류경주를 돌아보시며 크게 웃으시었다. 류경주도 따라 웃었다. 장오복의 궁냥이 불타는 심장에서 나온것이어서 장하기는 하였지만 신통하다고 지지해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장군님, 시간을 얻는데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장오복은 낯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지지를 받지 못하니 열이 오르는 모양이었다. 그는 덤벼치듯 말을 이었다.

《강의와 실기훈련을 결합해서 진행한다면 여기에서도 많은 시간을 얻어낼수 있습니다...》

류경주는 무엇이 뒤끝을 지끈 때리는것 같았다. 훈련집행에서 배합 및 병행, 결합의 방법을 쓴다면 확실히 파정안의 진도도 앞당길수 있고 교육의 질도 높일수 있을것 같았다.

《오복동무가 정말 궁리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 동무의 <석달작전>은 타산이 선것입니다.》

장군님께서 장오복의 잔등을 두드려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류경주며 정일건, 모든 지도교원들과 교도생들을 둘러보시었다.

《8년을 3개월로, 이젠 참으로 비약에 비약입니다. 나는 동무들이 그러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고 봅니다. 모두 오복동무랑 같이 힘과 지혜를 합쳐 더 깊이 연구하고 분발해봅시다. 자, 동무들, 훈련을 계속합시다. 시간을 아껴 땅크를 길들여 봅시다.》

운전훈련은 계속되었다.

장군님께서 훈련코스를 따라 전진해나가는 땅크들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거니시었다. 류경주는 장군님께서 중대한 말씀을 하실것만 같아 마음을 가다듬었다.

《부대장동무, 동무 생각엔 어떻게? 오복동무의 애인이 정말 잘못되었을것 같소?》

문득 그이께서 물으시었다.

류경주는 얼른 대답의 말을 찾지 못했다. 러단 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말씀을 하실줄로 마음준비를 하였기때문인가? 그래서만이 아니었다. 장군님께서 그 전사의 가슴속에 새겨진 비통한 상실감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계시었다. 이것이 류경주의 가슴속에 파문을 일으켜놓은것이였다.

류경주는 불현듯 항일혁명전쟁의 나날에 있었던 일이 가슴뜨겁게 떠올랐다.

당시 너대원들속에는 류경주를 마음속깊이 사모하는 처녀가 있었다. 옥희라고 하는 이 처녀는 인물도 잘났고 총도 잘 쏘았으며 동지들을 극진히 위할줄도 알았다. 류경주도 그를 좋아했다. 류경주는 그것이 사랑인줄 몰랐다. 류경주는 그 처녀가 자기 군복에 백설같이 흰 목달개를 달아주고 그 옷을 입는것을 거들어주며 실밥을 집어낼

때 가슴이 류다르게 설레이며 부풀어오름을 느꼈다.

(내가, 내가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다니? 이러다간 혁명을 못하겠다.)

아연실색해진 류경주는 그때부터 될수록 그 처녀를 멀리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를 멀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처녀의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모습이 떠오르며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는것이였다. 류경주는 자기가 사랑병에 걸려도 되게 걸렸다고 걱정했다. 그러던 어느날 장군님께서 그에게 옥희를 도와 군복천을 염색하라는 과업을 주시었다. 그는 머뭇거렸다.

《사령관동지, 다른 일은 다 하겠지만 그 일만은... 다른 동무에게 맡기면 안되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웅심깊은 눈길로 그를 지켜보시었다.

《그렇다? 하지만 이 사령관도 어쩔수없는 일이니 어떻게 한다? 옥희동문 꼭 동무를 붙여달라고 하더구만.》

《사령관동지, 설마하니...》

류경주는 얼굴이 확확 달아올라 말을 잊지 못했다. 장군님께서 빙그레 웃으시었다.

《가보우. 옥희동문 지금쯤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동무를 기다리고있을게요. 그래 국수를 언제 먹게 하겠소?》

류경주는 기절초풍을 할 지경이였다. 장군님께서 우리 관계를 다 알고계시니 이를 어쩌면 종단 말인가?

《국수는 내가 놀러야 할가보군.》

장군님께서 한수 더 쓰시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건 혁명이 승리한 다음에...》

자신을 더 숨길수 없게 된 류경주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다.

《하 그러다가 사랑이 다 불타버리구 그 가슴속에 채만 남으면 어쩐다? 경주동무, 사랑은 인간의 힘ियो. 우리 혁명은 이런 힘이 클수록 더 빨리 전진하게 되요.》

《장군님!...》

그후 그이께서는 친히 그들의 결혼식을 마련해주시고 축하해주시었다.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혈친의 그 사랑은 오늘도 온몸의 피가 되어 체내에서 뜨겁게 소용돌이치고있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어찌하여 장군님께서 근심하시도록 전사들에게 그리도 무심했던 말인가? 장오복의 약혼녀가 정말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똑똑히 아는 사람은 아직 없다. 그러니 그의 생사여부에 대해서 알아볼 여지가 있는게 아닌가?

《장군님, 제 전사들에게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교육장령만 생각하다보니... 제 인차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오. 뭐니뭐니해도 교도생들이 제일 귀중합니다. 땅크는 땅크병이 있기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까.》

장군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고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오복동무가 얼마나 장합니까. 동무들이 3년도 경이적이라 했는데 그 동무는 3개월! 하고 장훈을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땅크부대를 하루빨리 꾸리기 위해서는 기술교재나 교육과정안보다도 그것을 받아무는 사람들, 땅크의 주인들인 전사들을 먼저 봐야 합니다. 부대장동무, 오복동무가 내놓은 3개월안을 목표로 제기하고 한번 냅다 점령해보시오.》

《장군님, 알았습니다.》

류경주는 힘있게 대답했다. 그 순간 그는 장군님께서 나라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이하여 땅크교도련단의 훈련장을 찾아주시였는가를 어느 정도나마 깨달을수 있었다. 아울러 혁신과 비약의 출로를 바로 찾지 못하고 헛되이 모지름써온 지난날의 자기자신이 똑똑히 보이는것 같았다.

(그렇다. 장군님께서 한몸에 안아키우시는 땅크병들, 그들속에서 새로운 기적을 일으켜나가기라!)

류경주는 진작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재에서 출로를 찾으려 했던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부터 온 려단은 불도가니처럼 부글부글 끓었다. 기술강의실과 실습실 창문들에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고 운전련습대의 두 조종간과 변속기 손잡이알은 닳아서 반들반들해졌다.

교도생들은 며칠어간에 단거리저단운전법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포와 기관총, 무선기의 원리와 다루는 법도 배워냈다.

이 기적적인 성과앞에서 려단의 지휘성원들과 지도교원들은 장오복의 3개월안이 가능하다는 일치한 결론에 이르렀다. 때를 놓칠세라 류경주는 그에 맞는 새 훈련강령과 계획을 작성했다.

한편 그는 장오복의 애인의 행처를 찾기 위해 여러곳에 편지를 띄웠다.

려단은 다음 단계훈련에 진입했다. 강하천도하와 습지극복, 짧은 주로에서의 고단운전법... 교도생들은 이 과정안도 불과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수행해냈다. 그들은 기세를 늦추없이 다음단계의 과정안인 장거리고단운전훈련에 빨리 들어갈것을 요구했다.

류경주는 이 요구를 쾌히 접수했으나 일부 지도교원들은 머리를 긁적거렸다. 교도생들의 놀라운 발전속도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려단의 교육사업에 발맞춰오던 정일건이도 이 훈련만은 온갖 복잡한 운전조작법에 능통해야만 가능한것만큼 형편을 좀더 봐가다가 하는게 좋겠다고 했다. 정일건은 출발을 앞둔 이 시각에도 바로 그 심정을

말없이 내비치고있는것이였다. ...

류경주는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해지는듯했다. 그는 39호땅크의 시창으로 시선을 돌렸다. 시창안은 들여다보이지 않았지만 출발명령을 기다리며 이쪽을 훑어지게 내다보고있을 장오복의 두눈이 똑똑히 보이는것 같았다.

(오복동무, 잘해보지요. 난 동무들을 믿소.)

류경주는 만만한 투지로 빛나고있을 그 눈빛을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가다듬었다. 그는 자기의 뒤에 잇달려서있는 지휘관들과 지도교원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동무들, 출발합시다. 각기 자기 위치로!》

2

땅크중대는 지축을 울리며 전진해나갔다. 먼지와 배기가스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류경주는 맨 선두땅크에서 포탑의 원형육구우에 한손을 얹고 행군중대를 이끌어가고있었다.

황금나락이 설레이는 눈벌이 량옆으로 흘러갔다. 벼가을하던 농민들이 허리를 펴면서 팔을 저었다. 길가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달려나온 아이들과 로인들이 늘어서서 환성을 울리고있었다. 땅크동음때문에 뭐라고 웨치는지 가려들을수는 없었지만 입모양을 보면 《만세!》를 웨친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로인들은 눈굽을 찍었고 아이들은 발을 굴렀다.

류경주는 눈굽이 젖어올랐다. 아직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땅크부대, 하지만 사람들은 훈련중인 땅크중대에서 이 나라를 철옹성같이 지켜갈 장쾌한 철의 흐름을 보며 환희와 감격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이다.

무거운 책임감이 류경주의 두어깨를 내리눌렀다. 그는 뒤따르는 땅크들을 돌아보며 목에 대고 성대송화기를 눌렀다.

《각 승무조는 보고하라. 이상이 없는가? 수신.》

《제비, 나는 제비 하나. 이상없다.》

각 땅크들에서 응답이 날아왔다.

땅크행군중대는 류경주의 무선신호에 따라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면서 박력있게 달렸다. 땅크들의 주위에선 폭풍이 일고 땅을 구르는 무한케도담판들에선 불꽃이 튀었다. 류경주는 자주 무선기로 땅크들과 련계를 취하면서 긴장하게 행군지휘를 계속해나갔다. 땅크통신모를 쓴 그의 얼굴에선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귀환점을 돌았다.

류경주는 숨이 나갔다. 특별한 정황만 불의에 조성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로정은 순풍에 돛단것과 같은것이다.

사동벌기슭을 누비며 끝없이 뻗어간 신작로의 오른쪽 산기슭에 자리잡은 려단병영이 언뜻언뜻 눈에 띄었다. 이제 한 사오키로만 더 달리면 그

처럼 어려운 고개로 올라다보이던 첫 장거리고단 운전훈련은 성과적으로 결속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더 높은 단계의 훈련도 대담하게 진행하게 될것이다.

그가 란 땅크는 한옆에 다리를 두고서 물결을 가르며 강을 건너오고있었다. 통나무지주에 받들리운 나무다리는 금시 주저앉을듯 초라해보이는데 좌우에는 란간조차 없었다. 지형을 돌아볼 때 운전지도교원들이 그 폭이 땅크의 궤폭과 거의 같은 좁은 다리여서 능숙한 운전기술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선 건널수 없다고 해서 우회하기로 한 다리였다. 류경주는 그 다리를 돌아보며 전사들이 저다리우로 썩썩 땅크를 몰아갈 그날을 그려보았다. 그새 강을 건너선 땅크는 용트림을 하며 도로기슭을 뚫아오르고있었다. 땅크행군중대는 다리를 우회하느라고 잠시 그 기동이 떠졌다. 그럭저럭 거의다 강을 건너와 종대서열을 맞추며 오복이가 운전하고있는 마지막 39호땅크가 건너 오기를 기다리고있는데 바로 그 39호가 다리우로 올라서는것이 멀찍이 바라보였다.

(아니, 저 땅크가? ...)

너무도 엉뚱한 행동이었다. 류경주는 다리를 끝까지 무사히 건넌다면 하는 일종의 녀원과 흥분, 긴장감을 안고 그 땅크를 주시했다. 39호가 교량을 무사히 극복한다면 다음번 훈련에선 전려단이 저 다리우를 달리게 될것이었다. 류경주는 다리극복훈련을 견해하려는 장오복의 대담한 행동에 가슴이 무직했다. 그러나 아직은 마음놓을수도 없었고 사전 연계없이 자의적으로 다리우를 달리는 39호를 그냥 보고만 있을수도 없었다.

류경주는 무선전화로 39호를 호출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다리중간을 넘어선 땅크가 불쑥 다리아래로 미끄러져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

《39호! 39호! 웬일인가? 응답하라.》

응답이 없었다. 그대신 강북편에 땅크가 곤두박치면서 나팔꽃모양의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류경주는 지휘땅크를 세우고 그리로 달려갔다.

39호는 물속에 잠겨있었다. 포신과 포탑의 원형육구가 물위에 나와있을뿐이었다. 39호 승조원들은 그 육구를 통해 물밖으로 나오고있었다. 강기슭에 올라선 그들의 승무복은 물침봉이 돼있었다.

《다친 사람은 없소?》

류경주는 그들을 일별하며 다급히 물었다.

《...》

《동문 누구의 지시를 받고 다리우로 땅크를 몰았소?》

류경주는 데쳐낸 배추잎처럼 후줄근해있는 장오복에게 물었다.

《지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결심으루?》

《그렇습니다.》

《운전코스를 일부러 무시했던 말ियो?》

《그렇습니다.》

장오복의 대답은 한본새였다. 목소리가 점점 기여들어가는것만 다를뿐이었다. 류경주는 부아가 치밀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훈련규율이 무엇인지 몰랐단 말ियो?》

《...》

장오복은 이번에는 영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제 또한 부아를 돋구었다.

《동문 땅크병이 될 자격이 없소.》

《저... 부대장동지, 사실은...》

《한번 본때를 보이고싶었다는거겠지.》

장오복은 피가 지게 입술을 깨물며 눈길을 떨구었다.

(내가 오복동무를 믿었던게 잘못이었던 말인가?)

류경주는 어떤 배반을 당한것만 같아 견딜수 없었다.

《사고진상과 책임문제는 후에 따로 보겠소. 우선 땅크를 구출해야겠소.》

땅크구출작업은 퍼그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른 땅크를 동원하여 바로 세우고 물속에서 끌어내고보니 39호는 측면전탈기가 깨져나가 자행할수가 없었다. 귀중한 땅크가 파손되었으니 가뻛게 불사고가 아니었다. 더구나 그 사고는 첫 장거리고단운전훈련을 망치게 한것으로 하여 더욱 엄중히 취급되지 않으면 안될것이었다.

이날저녁 훈련총화는 39호땅크사고문제를 취급하는 회의로 되고말았다. 회의에서 39호 운전지도를 맡았던 정일건이 먼저 발언했다.

《사고는 제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함으로써 일어난것입니다. 저는 오복동무가 다리를 극복할수 있을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그 제의를 막지 못했습니다. 자신있는가고 한마디 물었을뿐입니다. 결국 찬성한셈입니다.》

정일건은 계속하여 사고전말을 자세히 설명했다.

《저는 오복동무의 모험에 동조한 사람으로서 엉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장오복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훈련에서 혼란을 조성한 그에게 엄격한 처벌을 주자고 하는 사람, 아예 땅크에서 내리우자고 하는 사람...

(그거야 엉당하지. 그러니 오복이가 내건 《3개월안》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대의 땅크는 보병 한개중대를 감당한다. 그러니 이왕지사 땅크병을 키울바에야 푹푹히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묵묵히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이런 심종의 말마디들을 읽을수 있었다. 류경주는 피가 끓어오름을 느꼈다.

(《3개월안》은 누구도 변경시킬수 없는 훈련목표이다. 우리는 그 훌륭한 탕크병들을 반드시 3개월안에 키워내야 한다!)

류경주는 이런 결심이 확고했지만 장오복을 처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픈대로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여러날이 흘러갔다. 그사이 장오복은 처벌을 받고 식당 취사병이 되었고 정일건이도 비판을 받았다. 파손되었던 39호탱크는 정비장에서 완전히 수리되었다. 그러나 기동이 중지된채 그곳에 불박혀있었다. 다른 탕크들도 그저 정비나 하면서 기동하지 못하고있었다. 운전훈련이 중지된 것이었다.

운전조작이 가장 능숙했던 장오복이가 사고를 친 사실은 교도생전반의 준비정도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것이며 아울러 장거리고단운전훈련은 아직 때이룰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탕크의 고단운전조법에 대한 실내상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된것이였다. 이것은 고조되었던 교도생들의 사기에 서리를 끼엿었다.

(과연 이제 러단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고 3개월목표를 점령할수 있게 비약을 일으키자면 어느고리를 풀어야 할것인가?…)

류경주는 줄곧 이렇게 고민하였다.

어느날 점심무렵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러단을 찾아오시였다. 실내 집중상학을 참관하고있던 류경주가 영접보고를 올리기 위해 달려나갔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안락이 조용한 러단병영을 둘러보고계시였다.

《부대장동무, 왜 오늘은 이렇게 조용합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류경주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렇게 물으시였다. 류경주는 너무도 송구하여 대답을 제대로 올릴수가 없었다.

《실내상학중이어서… 모든 교도생들을 밀몰아 집중적으로…》

《탱크 대수도 많지 못한테 왜 그렇게 합니까? 실내상학과 실동훈련을 엇바꿔가며 해야 능률적이지 아니겠소.》

《장군님, 면목이 없습니다. 첫 장거리운전훈련이 그만 잘못되어 당분간 과정안을… 사고의 책임은 제가 일을 설치게 한데 있습니다.》

《허허, 그렇다고 부대장이 그처럼 어깨가 처져있어서야 되겠소. 탕크부대를 꾸리는 사업이 식은죽 먹기로 험히 될수가 없지. 안그렇소?》

장군님께서서는 서글서글하게 눈웃음을 지으시였다.

류경주는 가슴이 쓰리였다. 차라리 엄한 꾸중을 받는다면 그다지도 피롭지 않을것 같았다.

《39호탱크 승조원들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럼 됐소. 사람들만 상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랄게 없소. 고장난 탕크야 수리하면 되는것이 고, 문제는 우리 전사들이요. 39호 승조원들도 지

금 상학중에 있겠소?》

《그렇습니다. 오복동무만 내놓고는…》

《오복동무 왜? 그 동무가 어떻게 된게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 사고를 친것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고있는중입니다. 그 동무는 지금 취사병으로…》

《취사병으로?! 그 동무를 아주 탕크에서 내려왔단 말입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놀라시였다. 류경주는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장오복은 그이께서 장히 내세워준 전사가 아니었던가…

《어쩔수없었습니다. 사고의 후과가 너무 컸고 또 훈련규률을 위반한 행위가 엄중했기때문에…》

《그래서 처벌을 했다면 이해됩니다. 규률위반행위는 어루만질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처벌을 주는가 하는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탕크에서 내리워 취사병을 시켰다?》

장군님께서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이의 시선은 김이 뽀얗게 흘러나오는 취사장의 지붕환기창을 더듬고있었다.

《부대장동무, 나는 서기동무한테서 여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전사가 신심을 잃었을가봐 큰 걱정이었는데 취사병으로 되고말았으니 정말 아주 신심을 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이의 어조엔 크나큰 걱정이 실려있었다.

《하긴 그는 용감한 탕크병이니 그쯤 일에 심장이 흔들리진 않았을것입니다. 오복이가 남들이 엄두도 못내는 교량으로 강을 건너려고 한것이 얼마나 용감한 행동입니까. 그런 전사는 실수를 하지 않는법인데 그래 어떻게 되어 사고를 쳤다고 합니까?》

《운전조법상에 사고원인이 있는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교도생들과 마찬가지로 오복동무도 아직은 모든 장애물을 무사히 극복할만치 운전기술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겠지. 그러나 사고원인이 꼭 거기에 있었다? 그래 오복이자신은 뭐라고 하오? 사고를 치는 순간에 무엇을 잘못했다고 합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자못 안타까이 따지시였다. 친자식의 편안치 못한 신상을 두고 마음쓰는 어버이와 같은 어조이시였다. 류경주는 가슴이 뭉클했다.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장오복과 그렇듯 세심하게 이야기해보지 못한 자기자신이 불만스레 돌이켜졌다.

《깊이 알아봐야 할걸 그랬습니다. 이제라도 그 동무를 한번 만나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식당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식당으로 가시는 길에 정비장과 병실, 강의실과 실습실들을 돌아보시였다.

식당안은 정갈했다.

취사장에선 점심준비로 한창 분주했다. 구수한 밥냄새와 간장을 넣고 끓이는 고기국냄새, 콩기름이 타는 냄새, 생파와 고추가루의 매운내가 코를 찔렀다.

장군님께서서는 고기점이 섞인 지지개와 편육을

보신후 손수 숟가락으로 설설 끓고있는 국가마에서 기름이 도는 국물을 뜨시였다.

《맛이 괜찮습니다. 출출해하는 전사들이 없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류경주에게 물으시였다.

《없습니다. 늘 식탁이 풍성하니 매일같이 명절을 쇠는것 같다고 합니다.》

《명절을 쇠는것 같단 말이지. 그래두 곱배기를 요구하는 동무가 없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무쇠 덩어리를 다루는 동무들이니 식욕이 왕성할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숟가락을 놓으시며 뽀얀 증기속을 둘러보시였다. 그러다가 부뚜막 한끝에서 기름튀기를 건져내고있는 장오복의 옆모습을 발견하고 그리로 다가가시였다.

《오복동무가 아니요? 수고하누만.》

취사장에서 장군님을 뵈옵게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듯 장오복은 굳어진 표정이다.

《난 오복동무가 땅크온전대를 놓구 여기 와서 가마뚜껑온전수가 될줄은 몰랐구만.》

장군님께서서는 전사들이 쓰는 우스개말로 장오복의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였다.

《장군님, 저는... 여기에서 땅크병들의 식사시중을 들게 된것만두 다행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사실 저같은자야...》

장오복은 눈물이 글썽해서 뒤말을 잇지 못했다. 류경주는 그를 보기가 딱했고 장군님곁에 서있기가 송구스러웠다.

《오복동무, 얼굴을 드오. 그건 잘해보자고 하다가 그리된게 아니요.》

장군님께서 결절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깨를 떨고있는 장오복의 팔을 잡으시였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컸던 모양이구만. 그래두 용기를 잃구 주눅이 들면 안되지. 난 땅크병이 아닌 오복동물 생각해본적이 없었소.》

두줄기 눈물이 오복의 볼을 타고 굴러내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오복이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오. 동무는 남들보다 빨리 달려나가려 하다가 실수를 했소. 그래 어쩌다가 실수를 하게 됐소?》

장오복은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는 장군님앞에서 어느덧 어려움을 잊고말았다. 그는 무릅없이 흉금을 헤쳐놓았다.

《전 사실 실수하리라고는... 그쯤한 교량은 자신있어보였습니다. 저는 교량을 극복함으로써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하루빨리 높은 기술을 소유한 훌륭한 땅크병이 되고싶었습니다. 그래서 교량으로 땅크를 몰아가는데 글썽 불안간 상금이의 얼굴이...》

(뭘 상금이?!... 애인의 모습이 떠올랐단 말이지.)

류경주는 속으로 놀랐다. 허물로 될수 있는 사실을 끝이끝대로 고백하는 장오복의 솔직성도 놀라왔지만 뜻하지 않게 애인이 보였다는 그 사실

자체 또한 놀라왔다.

《음, 잊지 못할 사람은 무시로 눈앞에 나타나 군하는 법입니다.》

장군님께서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장오복은 부끄러운듯 고개를 숙였다가 계속하였다.

《장군님, 저는 행복을 느낄 때마다 벽찬 순간을 맞을 때마다 저와 자동차를 같이 타고 어디에든 행복을 찾아가자던 상금이가 생각나군하였습니다. 그날도 자신심이 생겨서 다리우로 들어서서 달리느라니 문득 상금이가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기뻐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주 집대문앞에서 자동차를 바라보며 저고리고름을 날리던 상금이, 살아있다면 어서 달려와 보려마. 우리가 찾자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장군님의 사랑속에 새 조선의 땅크병이 된 여기에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감정이 북받치면서 눈물이 핑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종간을 놓고 손수건을 꺼내여 눈곱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땅크가 왼쪽으로...재빨리 방향을 바로잡느라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전복사고는 순전히 제 잘못이었습니다. 훈련규률을 위반한것도 그렇지만 훈련중에 탄생각에 정신을 판다는것이 될 말입니까. 저는 땅크병의 자격이 없습니다. 땅크부대의 취사병으로도 과남한 사람입니다.》

장오복은 금시 또 눈물을 머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어찌선지 눈을 습벅이시였다.

《원 용감한 땅크병이 헤프게 눈물은 또 왜... 우지 마오. 울면 내 마음이 좋지 못해. 동무야말로 진짜 땅크병이 될 사람이요!》

장군님의 음성은 저으기 떨리였다. 그이께서는 류경주일행을 돌아보시였다.

《그렇지 않소. 동무들, 이런 동무가 땅크병이 못되면 누가 되겠소. 생사를 모르는 애인을 생각하는 그 심정이 무엇이겠소?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합쳐가며 땅크를 몰아가는 그 정신이 무엇이겠소? 그게 애국이구 혁명이지! 그렇지들 않소?》

장군님께서서는 격동을 터치시였다. 류경주는 가슴속에 열과가 휘몰아쳐드는것 같았다.

《사랑은 인간의 힘ियो. 우리 혁명은 그런 힘이 클수록 더 빨리 전진하게 되오.》

사랑에 빠지면 혁명에 투신하지 못할가봐 굳이 그 사랑을 피하려고 애쓸 때 장군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새삼스러웠다.

류경주는 가슴을 움켜쥐였다. 장오복의 가슴속에서 상처를 가셔내고 사랑을 되찾아주려고 상금이를 찾는 편지를 여러곳에 써보내긴 했지만 아직도 그 전사의 심정을 다 알지 못했던 자신이 똑똑히 느껴졌던것이다.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그렇게 애타던 마음이 풀리였고련인을 안해로 맞아들였던 그자신이 어찌면 전사의 가슴속에서 태동하는 그련정을 그리도 모를수 있었던 말인가? 전사의 가슴속에서 불타는 그련정이 무쇠땅크를 다뤄낼수 있는 힘이고 혁명임을 내 어찌 그리도 몰랐더라 말인가? 그리고고 기술부족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생각

했고 가혹한 처벌까지 내렸으니 나에 대한 그의 원망인들 얼마나 컸을 것이며 그것을 헤아리신 장군님께선 또 얼마나 가슴이 무겁고 아프셨으랴. 아, 과연 내가 장군님을 받들고 혁명의 길을 걸은 사람이 옳긴 옳은가? 내 어이하여 오늘 또 이처럼 장군님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전사의 가슴속에 못을 박아왔단 말인가?... 류경주는 가슴치는 회오의 감정을 누를길 없었다. 그때 장오복은 걱정을 터뜨리며 장군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장군님, 제가, 제가 뵈이기에...》

장군님께서는 그를 꼭 껴안으시었다.

《오복동무, 용기를 내오. 쟁쟁한 탕크병이 되자면 아직 할것이 많소. 장거리고단운전뿐만 아니라 산지극복운전도 훈련해야 하오. 난 동무가 언제나 용감하기를 바라오.》

《장군님, 장군님의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장오복은 곧추 얼굴을 들었다. 비상한 결심을 안은 두눈이 번쩍거렸다. 장군님께서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시는듯 밝게 미소하시었다.

잠시후 장군님께서는 식당을 나서시며 류경주에게 말씀하시었다.

《부대장동무, 내 일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뛰니뛰니해도 항상 전사들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심장을 보라는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장에 의거할뿐아니라 그 심장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탕크부대를 빨리 내올 수 있습니다. 나는 오복동무가 이것을 잘 말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군님의 말씀은 천만금의 무게를 가지고 류경주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3

위대한 장군님께서 두번째로 려단을 다녀가신 후 병영의 곳곳에는 희마다 춤을 추는듯한 힘찬 글발들이 나붙었다.

《김일성 장군님의 위대한 뜻을 높이 받들고 무조건 석달안에 탕크기술을 련마하자!》

《평지에선 롱마, 산악에선 수리개, 이것은 우리의 목표!》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선 교도생들에게 슬기와 용맹, 새로운 혁신과 비약의 역센 깃을 달아주시었다.

얼마 되지 않아 교도생들은 그리도 말썽이 컸던 장거리고단운전법에 익숙해졌다. 류경주는 곧 산지극복을 위한 요소별훈련을 벌리었다.

이런 때 그에게 또하나의 반가운 일이 생기었다. 해주쪽에서 상금이를 찾아냈다는 회답편지가 날아온것이였다.

상금이는 남조선으로 도주하려는 방직기업주님에게 끌려다니며 고생하다가 분계연선을 넘기전에 몸을 뺐다. 그는 지금 인민정권기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려독을 풀고있었다.

류경주는 일본일초가 귀중한 때였지만 자신이

직접 하루품을 내어 해주에서 상금이를 데려왔다. 서로 생사를 몰라 가슴을 치던 상금이와 장오복의 상봉은 눈물을 자아냈다. 7년만에 이루어진 그들의 상봉소식은 온 려단을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게 했다.

이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됐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하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었다. 됐다고 하시는 그 말씀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류경주는 그 뜻이 새겨질수록 가슴이 벅차오르고 잘 훈련된 탕크부대의 끝끝한 대오가 금시 눈앞에 펼쳐지는것만 같았다.

려단은 불꽃튀는 훈련의 나날을 거쳐 마침내 종합적인 산악운전의 문어구에 들어섰다.

그전날 밤 류경주는 잠들지 못했다. 교도생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운전코스를 밟아보면서 지형을 익히기도 하고 운전사관앞에서 운전련습대훈련을 하기도 하며 온밤 그렇게 끓어번졌다.

날이 밝으면서 서서히 흐리기 시작한 마가울의 찌프린 하늘에선 비가 내릴것 같았다.

류경주는 비가 와도 훈련이 끝난 다음에 오길 바라며 탕크들을 훈련장으로 진출시켰다. 그런데 우거지상을 하고있던 하늘은 더욱 컴컴해지더니 처음부터 대줄기같은 비를 퍼부어댔다. 잠간사이에 옷들이 젖고 땅이 질척거렸다.

탕크병들은 서둘러 여러개의 장막을 쳤다. 류경주는 그중의 한곳에 지휘처를 정했다. 그앞 저쪽에 여러대의 탕크들이 서있었다. 탕크들의 장갑우에선 비물이 팔죽처럼 뚫으며 밑으로 찰찰 흘러내렸다. 그중의 한 탕크에서 나온 정일건이 《에이 비두 참...》 하며 지휘처에 뛰어들었다. 그가 들어옴으로써 지휘처장막안에는 지도교원들이 모두 모였다.

《훈련이 힘들어지게 됐는데, 교도생들이 탕크를 몰구 꽤 산에 오를수 있을까?》

《오늘 훈련을 뒤로 미루는것이 랑패없을것 같구만.》

울썩느스러운 날씨에 기분이 잡친 그들은 저마다 걱정의 말을 한마디씩 했다.

류경주는 입을 꼭 다물고 자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마른날에 훈련한다 해도 마음놓을수 없는 것이 산악운전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퍼부어대는것이다. 거대한 물기둥을 말아올리며 다리에서 떨어져내리던 탕크의 모습이 떠오른 순간 류경주는 불안해지는 마음을 억제하느라고 안간힘을 썼다. 문득 비옷을 입은 부대직일관이 지휘처장막안에 뛰어들었다.

《부대장동지! 금방 장군님의 집무실 서기한테서 전화를 받았습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탕크병들의 산악운전을 보시려고 반시간전에 이리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렇소!》

류경주는 전신이 긴장해졌다. 마음이 든든해지는가 하면 걱정되는바도 컸다.

《동무들, 오늘 훈련을 잘해봅시다. 각 기계장치들에 이상이 없는가를 재확인하구 출발선에 기발

을 띄우시오.》

일행은 서둘렀다.

한대의 승용차가 찬창길을 밟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류경주는 그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훈련장에 찾아오신 **김일성** 장군님을 지휘처 장막에 모셔들이었다.

《날이 구질지만 모두 나와있었구만.》

장군님께서 장막안을 둘러보시며 환히 웃으시었다. 금시에 어둡던 장막안이 눈부신 빛발을 안고 밝아지는가싶었다.

장군님께서 두손으로 책상을 짚으시며 가운데의자에 앉으시었다.

《부대장동무도 앉소. 이제 동무들이 훈련하려는곳이 어디요?》

류경주는 장군님께 쌍안경을 드리며 장애물로 이루어진 운전구간을 설명해드리었다.

장군님께서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러시고는 그 주변의 산발들을 주의깊이 살펴보시었다.

《부대장동무, 운전구간을 저쪽으로 돌리는것이 어떻겠소?》

장군님께서 쌍안경을 내리시며 왼쪽산발은 손짓하시었다. 급경사들이 많은 그쪽의 산발은 높고 험했다. 류경주는 자기가 잘못듣고 잘못보지 않았나 해서 장군님을 돌아보았다.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장군님께서 분명 왼쪽을 가리키신것 같은데...》

《그렇소. 좀더 험한곳으로 하자는게요.》

(?!)

본래의 운전코스를 놓고서도 비오는 조건에서 루지를 가다듬어야 했던 류경주는 줄지에 온몸이 굳어지고말았다.

《장군님, 어느 나라에서도 저런 산발로 탕크운전을 한 레가 없습니다.》

《그건 나도 아오. 교재에 그렇게 써여있더구만.》

《...》

《하지만 부대장동무,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재대루 훈련을 해온건 아니지 않소.》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악운전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우리 나라엔 험한 산이 많지 않소. 그러니 저 좁한걸 극복해야 조선의 탕크병을 키웠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소?》

《그렇습니다.》

류경주는 이렇게 대답드리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우리 전사들이 폭우속의 험한 산발을 무사히 점령할수 있다는 확신, 그에겐 그것이 부족했던것이다. 침묵이 흘렀다. 장군님께서 가벼운 미소로 그 침묵을 깨시었다.

《오복동무가 지금 어디 있소?》

류경주는 교도생집단과 함께 다른 장막에서 훈련을 대기하고있다고 말씀드렸다.

《상금동문?》

《병영에서 자진해서 립시 식당일을 돕고있습니다.》

《그렇소! 그는 려단의 주부가 된셈이군.》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대견해하시며 즐겁게 웃으시었다.

《상금동물 여기에 좀 데려올수 없겠소? 내 지금까지 짬을 내지 못해서 만나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그를 만나보고싶구만.》

장군님께서 《여기》라는 표현에 힘을 주시었다. 그 말씀속에는 깊은 뜻이 깔려있었다. 그 뜻을 느낀 순간 류경주는 상금이를 사민이라고 하여 데리고 올 생각을 못한 자기가 또 실책을 범했다는것을 깨달았다. 애인과 마음을 합쳐가며 땅크를 몰아가는것이 애국이고 혁명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새삼스레 가슴을 흔들었다. 자기 생각이미치지 못했던 비상한 힘과 기적의 상봉, 그는 비로소 그것을 예감했다.

《장군님, 이제 곧 상금동물 데려오겠습니다.》

류경주는 한 참모일군에게 그 과업을 주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자신께서 타고오신 승용차를 내주시었다. 그러신 다음 장오복을 곁으로 부르시었다.

잠시후 지휘처장막안에 들어서는 장오복의 얼굴에는 그이를 다시금 뵈게 된 한없는 긍지와 행복감이 어려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왼쪽 산발을 가리키시었다.

《어떻소? 저리로 탕크를 몰아볼 생각이 없소?》

장오복은 위엄을 돋구며 범접할 생각일랑 아예 말라고 경고하는듯한 우중충한 산발에 눈길을 돌리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장군님, 탕크엔 강철로 된 무쇠발굽이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장오복은 가슴을 쪽 찌며 주저없이 말씀드렸다.

《해보겠단 말이지. 역시 용감한 탕크병이 다르거든.》

장군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그를 부대장 쪽으로 돌려세우시었다.

《오복동무가 해보겠댜오. 오복동무가!》

장군님의 그 모습은 아들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

류경주는 무슨 일을 하든 전사들의 심장부터 보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뜨겁게 회상되였다.

《운전지도에 누굴 붙이겠소?》

류경주는 정일건을 짚었다. 장군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셨다. 그러나 정일건이 자신은 전복사고때를 생각해인지 잠시 주저했다.

장오복과 정일건이 탕크에 승차한 다음 인차무선이 계속되였다.

이런 때 장군님의 승용차를 타고 병영으로 갔던 참모일군이 상금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부대에서 새로 지어준 흰적삼에 깡장무명치마를 가튼 하계 받쳐입은 상금이의 날씬한 몸매는 흡사 물찬 제비같은 요 며칠사이에 보듯보듯 살이 오르고 환하게 번져진 그의 가름한 얼굴은 흥분에 떠

서 발가우리했다.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이리로 오면서 내내 격동된 상태에 있었던듯했다. 지휘처장막안에 들어선 그는 인차 장군님을 알아보고 옆드려 절을 하려고 했다.

장군님께서는 급히 그에게로 다가가지였다.

《이러지 마오. 난 동무가 살아서 우리에게 돌아온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소. 나에겐 그 이상의 좋은 인사가 없소.》

한없이 인자한 그의 품에 안긴 처녀의 가슴은 감격에 끓는듯 세차게 오르내렸다. 지지리도 구박을 받으며 살아온 상금이...그의 눈굽에 가랑가랑 이슬이 맺히었다. 마침내 그는 두손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껴울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를 따듯이 위로하시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시었다.

《자, 눈물을 건소. 오복동무가 탄 39호땅크가 떠나려고 하오.》

《알겠습니다.》

상금이는 이렇게 대답하고서도 흐르는 눈물을 건잡지 못했다.

류경주도 눈굽이 저릿했다. 처녀의 심정이 이해될수록 한없이 위대하고 인자하신 장군님을 우러러 걱정을 터뜨리고싶었다. 그는 무선마이크에 그 격동된 심정을 쏟아부었다.

《30호, 발동을 걸라! 출발!》

《알았다.》

장막안에선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발동을 거는 땅크와 그 땅크가 풀밭을 지나서 오르게 될 잡판목이 무성한 경사진 기슭, 장애물이 많은 숲밭속의 산마루와 기복이 심한 지형지물이 거대한 가락지모양을 이루며 룬곽적으로 바라보였다. 산정에는 운무가 끼였고 그아래로는 역수로 쏟아지는 비의 장막이 드리웠다. 모두가 긴장해서 첫자국을 떼는 땅크를 주시했다.

땅크의 기운찬 동음이 소연한 비소리를 누르며 땅을 진감했다. 풀밭을 지나 밋밋한 경사면에 기수를 갖다대더니 와르릉거리며 그것을 뚫아오른다. 두 무한궤도뒤에서 짓이겨진 풀과 진흙덩어리가 뿌려나고 두개의 배기관에서 시뻘건 불이 이글거린다. 땅크는 땅거죽을 사납게 물어뜯으며 경사지우에 올라섰다. 그리고는 옆모습을 드러내며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더니 경사가 심하고 그 구간이긴 잡초우거진 비탈면에 무쇠발굽을 박는다. 곧바로 방향을 잡은 땅크에선 조종간을 쓰는 것 같지 않았으나 이따금 옆으로 지치군했다. 땅크는 구름발이 드리운 비탈면우에 거의 올라섰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채시오.》

류경주는 마음속에 그 어떤 거대한 지지점을 쌓으며 땅크에 힘을 보태주듯 무선마이크로 부르짖었다.

불현듯 땅크는 기운이 진한듯 한자리에서 발버둥을 친다. 흠칫흠칫 두세걸음 미끄러져 내리기까지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렇게 할 기운마저 잃은듯 맥없이 푸르릉거리며 뒤로 내리쫓린다. 류경주는 마음속의 거대한 지지점이 와르르 무너

져내리는것만 같았다.

일단 뒤걸음치기 시작한 땅크는 그것이 한스러운듯 성이 나서 부질없이 울부짖으며 수평진곳까지 미끄러져내렸다.

땅크는 그자리에서 숨을 돌리며 원기를 돋구는듯 검은 배기가스를 숨가쁘게 내뿜으며 와르릉거렸다. 그런후 다시 처음부터 박력있게 지축을 물어뜯으며 비탈면에 달라붙는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감고비를 채지 못하고 안타깝게 공회전을 하다가 모체비로 데굴데굴 굴듯한 험악한 형세로 일시에 뒤로 무너져내렸다.

《원 저런...》

그때까지 잠자코 계시던 장군님께서 손뼉을 가볍게 지시였다.

《부대장동지, 여긴 안되겠습니다. 어떻게 하합니까.》

레시바의 진동판에서 목이 갈린 정일건의 말이 웅령거렸다.

《무슨 소릴 하오. 그만한 난관앞에서... 오복동무에게 무선을 련결해주오.》

(오복이가 듣고있습니다.》

그가 인차 나왔다.

《동무 생각은 어떻소?》

《한번 더 해봤으면 합니다. 톱날형으로 올라가면 극복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중소. 용기를 내오. 여기 장군님곁에 상금이기도 와있으니...》

《아니, 그가 어떻게?...》

장오복은 깜짝 놀라는 기색이다.

《장군님께서 친히 그를 부르셨소.》

《장군님께서!...》

장오복은 감격에 목이 메였는지 더 말이 없다. 그러나 류경주는 그의 심장의 말을 푹푹히 듣고 있었다.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에라도 날아오를것 같습니다. 제 꼭 돌파구를 열어놓겠습니다.》

땅크는 와르릉거리며 다시금 비탈면에 달라붙었다. 역센 발굽으로 미끄러운 지면을 그러당기는 열에 뜬 무쇠땅크는 오를수록 배기가스를 더 힘차게 내뿜으며 기운을 쓰는것만 같았다. 마침내 땅크는 그렇게 애를 먹이던 비탈면우에 올라섰다. 그밑에는 톱날모양의 무한궤도자국이 찍혀졌다.

와- ! 여기저기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드디어 돌파구가 열린것이다. 류경주는 그리로 다른 땅크들을 차례차례 출발시켰다.

반시간쯤 지났을 때 39호땅크가 운전코스를 무사히 돌고 출발선에 와섰다. 장군님께서는 상금을 데리고 친히 그 땅크를 마중해나가시었다.

《오복동무, 정말 큰일을 했소. 그 손을 좀 잡아봅시다.》

장군님께서는 땀과 비물에 젖은 장오복의 손을 굳게 잡아쥐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었다.

《정일견동무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 폭우속을 헤치며 험한 산밭을 달려보니 어떻습니까?》

《장군님!...》

정일견은 목으로 그 무엇이 치밀어올랐던지 말을 못했다. 그는 잠시후에야 자기의 격한 심정을 터트렸다.

《장군님, 저는 지금까지 우리 전사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교재에 물젖어있다고 보니 우리 실정에 맞게 땅크병들을 키워낼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 시각에야 비로소 이런 자신을 똑똑히 깨달은것 같습니다. 장군님, 이번에 땅크교도려단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자신입니다.》

그 말이 류경주의 가슴을 쳤다. 돌이켜보면 그 자신도 어느결엔가 외국의 교재물을 먹었다고 해야 옳을것이였다. 그래서 전사들의 심장을 보지 못했고 한가지 훈련을 해도 그 심장에 의거해서 우리 식으로 할 생각을 못했다. 거기에 전사들에 대한 애정까지 부족했다. 참으로 류경주는 정일견의 모습에서 꼭 자기자신을 보는것만 같았다. 장군님께선 바로 이런 자기를 깨우쳐주시고 키워주시기 위해 늘 려단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고 오늘은 이처럼 비바람 몰아치는 험한 산중에 찾아오신게 아니랴!

《허허허, 이젠 너무 심각한 자기비판이군.》

장군님께서서는 정일견의 어깨를 힘있게 잡았다 놓으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땅크들은 전진을 계속했다. 요란한 폭음으로 산관을 들었다놓으며 폭우속을 뚫고나가는 땅크의 뒤에는 두줄기 무한궤도자국이 힘있게 찍혀지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끝없이 이어지나가는 그 자국을 오래동안 눈여겨보시다가 감개무량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이제는 우리 땅크들이 그 어떤 산야도 다 주를잡게 됐소. 땅을 들었다놓는 저 무한궤도소리가 얼마나 장쾌하오. 나는 저 소리가 새 조선의 발걸음소리처럼 생각되누만.》

(새 조선의 발걸음소리!...)

《장군님! 장군님께서 진두에 서계시니...》

류경주는 자그마한 보탬도 없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다.

《아니, 동무들의 노력이 컸기때문ियो. 부대장동무, 이제는 땅크부대를 조직해도 될것 같은데 며칠후에 땅크부대결성식을 가지지 않겠소. 그 뒤끝에 땅크열병식두 하구.》

《장군님, 알겠습니다.》

류경주는 가슴이 빼개질듯한 흥분을 안고 기운차게 대답했다.

《그럼 그렇게 준비 하오. 결성식과 열병식을 하게 될 장소는 내각과 보위성에서 잘 준비하도록하겠소.》

《알았습니다. 그리구 오복동무와 상금동무의 결혼식준비도 잘해놓겠습니다. 그랬다가 열병식이 끝난 다음...》

《거 생각을 아주 잘했소.》

장군님께서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저기 행복에 취해있는 장오복과 그의 약혼녀를 대견스레 바라보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곳곳에서 벼탈곡이 한창인 때이다.

수도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광장에선 무쇠땅크들이 가로세로 줄을 맞추고 지심을 흔들며 나가고있었다. 그 위용은 그 어떤 요새도 단숨에 제압할듯 장엄했다.

금시 멸적의 불을 뿜을듯한 늘씬한 강철포신들과 포탑들, 집채같은 무쇠덩어리와 땅을 구르는 무한궤도와 아름이 넘는 지렁바퀴들, 그 개개의 모습들도 장쾌하고 무게있어 보이지만 조종간을 억제게 틀어잡고 활짝 열어젖힌 운전부육구로 주석단을 우러러보는 땅크병들의 구리빛 얼굴들도 슬기와 용맹이 넘친다.

석달동안에 땅크를 배우고 무적의 대오로 자라난 그들, 금방 땅크부대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군기까지 수여해주신 **김일성** 장군님께서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하를 보내신다.

주석단에는 당과 정부의 요인들, 조선인민군장령들, 인민대표단 성원들이 장군님을 옹위하듯 좌우로 길게 늘어서있었다. 그들은 위용을 떨치는 철의 대오를 바라보며 억제할수 없는 힘에 끌려 환호를 올리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며 한껏벌어진 가슴들을 들먹이고있었다.

이 땅이 생겨 수천년, 우리 언제 이렇듯 자랑스러운 땅크부대를 가져본적이 있었고 이렇듯 힘찬 발걸음소리를 들어본적 있었던가! 새 조선의 위용과 슬기를 자랑하며 전진하는 이 철의 대오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이 류경주처럼 다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못하리라. 땅크부대를 무으시기위해 심혈을 기울여오신 장군님, 지난날 이를 석자도 쓸줄 몰랐던 이 나라의 아들들을 나라의 주인, 인민무력건설의 주인, 혁명가로 내세워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장군님, 바로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이 이처럼 위대한 힘, 세계만방에 그 위용을 떨치며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철의 대오를 낳아키웠음을 다는 모르리라. 류경주의 가슴은 한량없이 부풀어올랐다. 그가 탄 선두땅크우에선 군기가 무게있게 펄럭이고있었다.

강선의 백양나무 외 2편

조빈

밤도 깊은 제강지구에
내 언제부터 서있는지 몰라라
강선의 백양나무여, 네결을 못떠나
네결을 못떠나...

지축을 뒤흔드는 전기로의 동음에
내 가슴도 쇠물처럼 끓고
빛발치는 쇠물의 화광이
땅우에 가득 차넘치니

붉게 물든 백양나무여
사품치는 전기로의 쇠물에
너의 무성한 가지 휘저어
하늘가에 추켜들었는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같이
너는 장엄하기도 하여라
불수록 너에게는 우아함이 어려
온통 내 넋을 사로잡았구나

이런 때면 내 너에게서
타오르는 나의 심장을 보는듯하여라
늘 마음속에 뵈옵는
위대하신 영상이 어려와서...

말해보자
폭격에 불타고 뒤엎긴 구내를
철의 의지로 헤쳐가시던
수령님께서 앉으신곳은
너의 그늘밑, 깨어진 벽체조각 아니었던가

부서진 로체를 안고 몸부림치던

로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 수령님 무엇을 보셨던가
그리고 무엇을 안겨주셨던가

포화속에 눈섭 하나 까딱않던
용맹한 그들의 몸부림치는 아픔을 보셨기에
폐허에서 솟구치며 내달을
위대한 의지와 믿음을 주셨거니

그때부터 백양나무여 너는
신심과 열정을 안고
타끓는 쇠물을 안고
붉게붉게 타오르고있구나

불타는 너의 가지마다 갈기삼고
천리마가 세기를 날아넘었다고
내 생각한들 어찌리
활활 타오르는 너의 우듬지에
세 폭의 붉은기가 휘날리고있다한들...

타오르라
높이 더 높이
불타는 너의 가지 휘저어
무궁한 세월의 하늘가에 새기라

시련을 맞받아 솟구치며 내달는
그 억센 기상은
수령님의 위대한 의지속에 태어났다고
너도 정녕 그 기상 안아
먼먼 앞날에도 붉게붉게 타오르리라...
아, 강선의 백양나무여!

끓자, 나와 함께

내 전기로앞에 섰노라
로도 끓고 나도 끓고
일렁이며 사품치는 저 쇠물은
내 심장의 불길인듯...

쇠물빛이 좋다
출강종소리도 좋다
전기로여, 이 가슴의 설레임
숨가쁜 환희 너도 안으라

내 여기서

설 자리를 바로 알았고
내 여기서
강행군과 대진군의 앞장에 서던
궁지를 안았나니

달아오른 전기로에
백열하는 저 쇠물은
용해공의 눈빛에 티없이 어린
로동의 참된 환희

한차지 또 한차지

쏟아붓는 쇠물의 폭포는
구슬땀 흘린 끝에 오는
말 못할 행복의 결정

이것이여라
만경대갈림길을 지나시여
강선을 찾아주신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우리의 삶이여라

로동이 제일로 귀중하여
몸소 찾아주신 자옥자옥
오실 때면 로앞을 못떠나시며
오래도록 쇠물빛을 보아주시던
위대하신 그 영상

우리르며 이 가슴 뜨거웠노라
이 가슴에 타는 꺼질줄 모르는 불로
쇠물을 끓노라
쇠물을 끓였노라

때식도 그만 잊었다가
전기로결 식탁이 될 때에도

그것이 나는 즐거웠노라
때로는 누군가가 갓낳은 아들을
전기로앞에서 처음 안아볼 때
그것이 나에게도 자랑스러웠노라

쇠물남비가 미처 와닿지 못할 땐
사정이야 어떻게 소리치다가도
폭포치듯 쇠물을 쏟을 때면
성급히 굴던것 가뭇없이 잇고
입귀가 찜지도록 통쾌하게 웃었노라

아, 용해공은 누리는 삶 모르고
바치는 삶을 행복으로 여기노라
수령님은 위해 쇠물을 끓이고
강철로 당을 웅위하는 여기에
참되게 바치는 삶이 있노라

끓자, 전기로여 세차게 끓자
끓자, 나의 심장이여
바치는 삶 다해
그렇게 한생을
그렇게 영원히...
이것이 용해공의 삶이 아니냐

신념의 메부리

밀어라, 분피압연기
뺨어간다, 강편의 불줄기...
당의 부를 받아안고 뛴는 이 가슴
너도 불타고
나도 불타자

밀어라, 영웅압연기여
사연깊은 조종변을 틀어쥐니
나의 가슴에 떠오르는구나
12월의 흰눈 내리던 그날이

만톤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시던
그날의 수령님 간절하신 그 음성
오늘도
이 가슴을 더웁혀주는구나

안겨주시는 그 믿음이 고마와
사나이의 더운 눈물을 뿌리며
낮과 밤이 따로 있었더냐
강철의 의지
불굴의 신념
그것이 기적이 되어 안아올린
그날의 12만톤

강선속도를 창조하던
그 위훈의 나날에도
《70 일전투》에 펼쳐나섰던
못잊을 충성의 나날에도
높아가는 강철의 톤수와 함께
12만톤은 있었다

얼마나 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강재를
저 하늘을 치뿔듯 쌓아왔는가
헤아릴수 없이
강철의 톤수는 높아가도
그 톤수를 받들어주며
가슴속에, 빛나는 신념의 그 12만톤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준엄할수록
이 가슴에 더 무겁게
더 소중히 들어앉는
아, 그날의 12만톤!

있었다, 12만톤은...
우리의 정신이 나래쳐오른곳에
우리의 가슴속에.높이 쌓여

당을 받드는
의리의 메부리
신념의 메부리
자력갱생의 메부리로—

아, 12 만톤의 강재여

멀리 흘러간 세월의 기슭에
우리 너를 쌓아놓고 왔던가
아니여라
아니여라
너의 높은 메부리
오늘도 우리 가슴 한복판에 솟아있어라

처음 본 눈물, 처음 흘린 눈물

리옥민

산도 좋아라
물도 좋아라
천하절승 묘향산
울려퍼지는 노래소리 노래소리
즐겁고 유쾌한 묘향산오락회에서
내 눈물을 볼줄은 몰랐어라
내 눈물을 흘릴줄은 몰랐어라

장쾌한 묘향산의 봉우리
날아드는 고운 새들
내려쫓이는 초여름의 따뜻한 해별
채청과 박수에 반들려
나는 노래 불렀네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줄은
꿈결에도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한자리에 앉았던 빠스운전사
우리를 태워주며 수고많은 조국의 운전사
두눈에, 눈물이 고여 떨어질 때
내 노래에 눈물을 보여줄 때
나는 목메여 노래를 못잊고
모두모두도 뜨거운것을 삼킨 그 순간

이국땅에서
강심으로 눈물을 안보이던
내 가슴을 젖게 하며 젖게 하며
나를 울게 한 그 두줄기
운전사의 불에 흐른 그 두줄기

소리없는 눈물의 소리여
허리며 졸라매던 그 시기 생각났는가
벽돌한장 귀하던 그 시기 생각났는가
만톤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아버이수령님 깊은 눈 헤치며 걸으시던
어렵던 조국의 그날이 생각났는가

가까이 있는 자식들보다
멀리에 있는 자식들을 더 생각하시며
어렵던 날에 어렵게 모아
아, 아버지수령님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어엿한 조선사람 되어
내 찾아온 조국

이역땅에서 외로움
모르고 살아온 나에게
조국을 위하여 땀 한방울 흘린적 없는 나에게
믿음직한 조선사람 되어 찾아왔다고
그것이 대견해 눈물을 보여준
품이여 품이여
아아, 어머니 내 조국

때로 생활에는
눈물이 말을 대신할 때 있고
눈물이 채찍을 대신할 때 있다 하지만
조국이 나에게 보여준 눈물은
깨우쳐주는 말
고무하는 말
부탁하는 말

내 그 눈물 잇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가슴속에서
조국을 잇는것

은혜를 준 조국에
그 은혜를 갚을줄 아는 딸이 되어
조국이 아파하는
통일을 위한 한길에서
잘 싸워라 잘 싸워라
가슴 젖게 당부하는
조국의 목소리를 잇는것

내 조국을 위해 한일 없어
오늘은 그저 고마움에 목메여 울지만
믿어다오 기다려다오 조국이어!
나는 이제 청춘
보답의 생앞에 있는 젊은 나이
은혜에 효성다하는 딸이 되어
그렇게 걸은 몇몇한 한생을
오늘의 이 눈물앞에 드리리라

(필자는 총련 조선대학교 문학부 학생임)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께

바돌로 발랑맹

모든 도덕적우월성을 체현하고계시는
당신께
모든 지적우월성을 체현하고계시는
당신께
애국주의의 산 모범을 보여주시는
당신께
인민의 행복에서만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당신께
반제투쟁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전설적인 사령관

사회주의의 화살로
시대의 모든 악의 심장부를 찌르시는
당신께
이 시를 정중히 올리노라

무궁할 조선에서
제국주의 봉건의 락후성을 쓸어버리신
그이
존경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칭송하노라
(필자는 부르끼나파쏘주체사상전국소조
성원임)

김정일동지따라 앞으로

아킴 싸무콘다

김정일동지 당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계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당신은 조선인민의 령수

당신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조선인민과 인류에게
그 심오한 진리를 안겨주셨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조선은 당신의 사랑과
지도를 받고있어
원췌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인류리상의 상상봉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라

당신은 위대한분의 후계자
당신은 조선을 떠메고나갈 위대한 지도자
당신의 탄생일을 맞으며
당신이 이룩하신 모든 업적
앞으로 이룩하실 모든 성과를 축하하노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들은 경의를 드리네
영원히 영원히 빛을 뿌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빛발안고 나아가노라
주체사상따라 앞으로
김정일동지따라 앞으로

(필자는 잠비아사람임)

기다렸습니다

그리움을 안고

작사 이정술, 작곡 리종오

1. 오늘은 오실가 우리 어버이

래일은 오실가 **김정일**동지

<후렴>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오실날 기다렸습니다

2. 노래를 드릴가 기쁨을 담아

춤바다 펼칠가 축원을 담아

(후렴)

3. 우리를 키워준 어버이 모습

한해가 다르게 그립습니다.

(후렴)

4. 그이를 모시는 이순간 위해

우리는 한마음 바쳐갑니다.

(후렴)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어버이 **김정일**동지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한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당의 위대성을 잘 알고 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나오기까지

오늘 독자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자애깊은 사랑속에서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되어 1969년 12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청소년들을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가지고 널리 교양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면서 작가들에게 훌륭한 인식교양적가치를 가진 작품들을 만들수 있는 소재들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이 공장건설에 대해서뿐만아니라 도시건설에 대해서도 특히 평양시 보통벌이 건설되고 다충문화주택들이 준비하게 늘어선 현대적인 거리가 일떠선 현실, 약동하는 천리마현실에 대해서도 작품을 쓸수 있을것이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이 공장건설에 대해서뿐만아니라 도시건설에 대해서도 특히 평양시보통벌이 건설되고 다충문화주택들이 준비하게 늘어선 현대적인 거리가 일떠선 현실, 약동하는 천리마현실에 대해서도 작품을 쓸수 있을것이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작가들의 가슴속에 깊은 자책과 회오의 감정을 세차게 불러일으키는 참으로 심중한 말씀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운동이 한창 고조되고있던 1960년 11월에 벌써 천리마현실을 반영한 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는데 그때로부터 10년세월이 흐르도록 천리마시대를 폭넓게 반영한 소설 하나 변변히 내놓지 못하였다.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력사의 강, 보통강기슭에 천리마거리, 락원거리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로 높이 솟아 대서사시적화풍을 펼치였으나 작가들은 이 놀라운 기적, 이 빛나는 로동계급의 위훈을 담은 소설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것이다.

하기에 전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으며 작가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깊은 자책과 후회에 모대기던 한 젊은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평양시 건설과 관련한 장편소설을 쓸 대담한 결심을 다졌다.

그는 평양시건설자들속에 들어가 취재도 하고 생활체험도 하면서 소설창작을 무르익혀나갔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감동적인 이야기거리는 많고 현실은 벅찼으나 그것을 소설로 옮겨놓자니 마음먹은대로 붓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사색과 탐구의 나날이 흘러 붓을 든지 어느덧 1년이 지났으나 작가는 초고를 내놓지 못하였다.

작가는 몹시 초조하여 어쩔줄 모르며 안타까이 모대기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작가는 오매에도 그림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감격도 새로운 1972년 9월 어느날 작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진행하는 어느 한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과 오랜 시간 자리를 같이하시고 당의유일사상체제를 튼튼히 세우고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이제는 수령님께서 키우신 로동당시대의 젊은 창작가들이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며 작가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고무를 주시었다.

그이의 말씀은 작가에게 새힘을 주고 용기를 안겨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창작에서 마음의 진통을 겪고있던 작가로 하여금 위대한 로동당시대에 자라난 젊은 작가로서의 영예로운 위치와 사명을 깊이 자각하도록 정신적자세를 바로 잡아주시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가 장편소설창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본원인이 종자를 바로잡지 못하는데 있다는것을 포착하시고 창작실천상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작품의 종자에 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바로 이것이였구나!)하는 섬광같은 생각이 작가의 뇌리를 번쩍 스쳤다.

소설의 종자부터 명백히 찾아쥐지 못하였기때문에 제대로 창작할수 없었으며 1년나마 제목조차 달지 못하고있던 작가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비로소 작가는 작품의 종자부터 찾아쥐였으며 그

때에야 소설의 제목도 종자에 맞게 《평양시간》이라고 달게 되었다.

작가는 종자를 형상으로 꽃피울수 있도록 구성을 새롭게 짜고 소설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하였다.

소설창작은 매우 높은 속도로 추진되어갔다.

하지만 난관의 장벽이 완전히 물러선것은 아니었다.

1974년말에 이르러 작품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섰는데 작품에 등장하는 지배인 림도식의 부정선처리문제가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진짜 충실성과 가짜 충실성- 이 상반되는 문제를 작가는 《평양시간》에서 갈등의 기초로 삼았다.

소설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정인물인 림도식은 교묘하게 위장한 출세주의자이며 생활의 줄타기 군이며 우에는 아첨하고 아래에는 내려먹이는 판료주의자, 위선자로서 가짜 충실성의 전형으로 형상하여왔었다.

이 인물의 마지막처리장면의 형상을 두고 작가는 소심성에 사로잡혀 번민속에 빠진채 붓을 더는 움직이지 못하였다.

작가는 주저하던끝에 부정인물형상에서 모가난 데마다 깎아내는 수정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부정성을 깎아내어 미끈하게 만드니 그와 대립되는 주인공들의 긍정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결국 작품은 두리몽실해지고 말았다.

여러 작가들과 일군들에게 토론을 불어보았으나 그 누구도 신통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 난관의 장벽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활짝 터쳐주시었다.

1974년 12월 6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말씀을 주시면서 소설창작에서 창작적개성과 독창성을 살리며 부정선을 대담하게 취급할데 대한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던것이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 작가들이 험하게 작품을 쓸 생각을 하지 말고 계급투쟁, 혁명투쟁속에 뛰어들어 혁명하며 투쟁하는 현실세계를 옮겨 그려냄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을 더욱 전투적이고 혁명적인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작가는 금시 눈앞이 환해졌다.

그는 작품을 무난하게 쓰자는 생각밑에 일부러 《대배필》까지 하였던 자신의 그릇된 창작태도를 깊이 뉘우치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소설을 다시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부정선은 더 예리화되었고 따라서 인물들의 성격이 더 살아나게 되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을 하루 빨리 찍어 보통강개수공사작공 30돛기념일에 즈음하여 세상에 내보내도록 배려하여주시었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밝혀져있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선 건국의 첫삽을 뜨신지 30돛이 되는 날인 1976년 5월 21일을 계기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은 비단 이 소설의 창작과 출판과정에만 미친것이 아니었다.

장편소설이 출판된 다음해 12월 어느날 작가는 참으로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시었는데 수령님께서 친히 소설을 보아주시었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의 소설을 보시다니?!

소설을 쓴 작가는 물론 이 소식에 접한 모든 작가들과 일군들도 크나큰 감격에 휩싸였다.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피 큰 장편소설을 친히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77년 12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2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전망목표들과 그 실행방도를 밝히시는 강령적교시를 주신 바로 그날 장편소설 《평양시간》에 대하여 과분한 치하의 교시를 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설을 많이 찍어내어 청소년들의 교양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분에 넘치는 치하의 교시를 주시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못내 만족해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보시고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알려주시고 젊은 작가의 크지 않은 창작성과를 두고 더없이 기뻐해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소개하는 글들을 써서 《로동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들과 방송을 통하여 널리 선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소설을 20만부 더 출판하여 광범히 보급할데 대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작가는 그 사랑, 그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마음속의 소견을 담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감사의 편지를 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가 편지를 올린지 불과 나흘후인 12월 26일 한해일을 마감하는 그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그의 편지를 친히 읽어주시고 《1977년 12월 26일》이라는 귀중한 필적까지 적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고귀한 필적으로 작가의 생애와 소설문학의 역사에 또하나의 영원한 기념일을 새겨주시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사상체계가 선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아주 잘 썼다고 거듭 분에 넘치는 치하의 교시를 주실 때마다 몹시 기뻐하시며 수령님의 치하의 교시를 전달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베풀

어주시었다.

참으로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렇듯 세심한 지도와 은정깊은 사랑의 손길에 이끌리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시대의 성과작으로 될수 있었다.

나는 평양의 아들

김영천

평양
이름만 불러도 가슴 설레는곳
평양
이름만 들어도 기쁨 넘치는곳

내 비록
조국 멀리 이역땅에 살아도
웬일인지 언제나
고향인듯 느껴지는 평양이어

내 가슴속 속깊은곳에
정답게 자리잡고있어
어디 가도 떠나본적 없어
평양아, 너는 고향처럼 못잊는곳이던가

내 이국의 하늘밑에 나서자랐어도
우러른 하늘은 평양의 하늘
그 푸른 하늘에 나래펴고 산
나는 그대의 아들

처음 찾아온 이몸을
어머니인양 안아준 품
따뜻한 미소
살뜰한 손길에
어리광이라도 부리고싶은 마음을
진정할길 없어
정한곳 없이 거닐면

하늘이어, 푸른 하늘은
내 몸을 자유로운 새로 만들어
훨훨 그 푸름속에 날개치며
아들아, 네가 왔구나
반들어주며 밀어주며
흰구름 갈피갈피에서 속삭이는듯

가슴 펴고 걸어보노라
모란봉의 푸른 숲을
어이 향기는 이리 짙어

마치도 아들을 맞은 고향 어머니
기다려 아껴둔 별식을 차려주는듯해
꽃향기를 숨쉬며 눈물이 나는 이 마음

어데라 없이 걷고싶어
무엇이고 무엇이고 안고싶어
걷는 걸음 달리는 심정 급할 때
앞에는 어느새 푸른 물결
이것은 내 자랑하던 대동강이 아닌가

미역감던 어린날의 산개울처럼
처음 봐도 정다운 물결소리
송아지시절로 내 돌아가
물장구라도 한껏 치고싶은 마음
실버들 그늘아래 다잡고 서면

하늘에 불타
강물에 비진
주체사상탑의 봉화
저것이 아니냐, 조선의 정신
이역만리 지구의 한끝에 있대도
민족의 얼을 뜨겁게 하는 빛발
저 한가닥이 내 몸에도 닿아있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내 그 뉘트로 산 평양의 아들

은혜로운 태양이 나를 안아
은혜로운 별이 나를 안아
키우고 이끌어
내 심장의 피는
평양의 피
내 숨쉬는 바람은
평양의 바람
이역에 살아도
그대 없이는 내가 없는
아, 나는 평양의 아들

(필자는 총련 조선대학교 문학부 학생임)

《주체성은 민족문화의 얼굴이며 정신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성에 의하여 민족문화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나며 민족의 정기와 기상이 뚜렷이 표현된다.》

김정일

명제해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성은 우리 문화의 얼굴이며 정신이라고 가르치시었다.

문학에서 주체성은 민족자주정신의 반영이다.

문학에서 민족자주정신을 반영한다는것은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자기 나라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자기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 문학을 자주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민족문화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주체성은 우리 문화의 얼굴이고 정신이며 총체적으로 생명과 같은것이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하는 문학자체의 인간학적인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인 요구인것이다.

문학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옹계 반영할 때에만 인간과 생활을 현실에서와 같이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인간을 존엄있고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오늘 세계에 수많은 민족문화가 존재하는것도 매개 나라 민족문화가 자기 인민의 민족적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매개 나라의 민족문화는 자기 인민의 민족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예술적정화이다. 민족자주정신이 개화하는곳에서는 언제나 민족문화가 찬란히 꽃피어나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족문화가 류례없이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민족문화는 주체의 인간학의 새로운 경지를 훌륭히 개척해나가고있으며 소설, 시, 아동문학, 희곡 등 문화의 모든 부문이 찬란히 꽃피어나고있다. 우리 민족문화에 내려치는 민족자주정신은 넓이며 생명으로 되고있다.

주체성을 구현하는것은 또한 문학을 시대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키며 그 전투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주체성을 강화하면 할수록 문학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참다운 문학으로 발전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게 된다.

매개 나라의 민족문화가 자체의 발전을 이룩하고 세계문화의 보물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울

바른 길은 오직 주체성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있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는것은 문학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기본담보이다.

주체성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다같이 문학의 사회적성격과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징표이다.

문학에서 주체성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뗄수 없이 밀착되어있다. 문학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주체성을 전제로 한다. 주체성을 떠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란 있을수 없다.

문학의 당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는데 있으며 로동계급성은 자신뿐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예측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로동계급의 근본립장과 혁명적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인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리익을 구현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 근본립장이듯이 문학에서 주체성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초석으로 된다. 문학에서 주체성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특징짓는 기본요인이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문학 창작과 건설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대하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똑바로 가지는것이다.

문학은 자기 나라 혁명에 이바지할 때에만 생명력을 가진다. 이것은 주체성을 철저히 구현할 때에만이 담보될수 있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것에 정통하며 자기의 민족문화유산에 귀중히 여기고 옹계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가져야 문학작품에 민족자주정신을 깊이있게 구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민족적자존심과 긍지가 강할수록 문학의 주체성이 두드러지게 살아나며 그렇지 못하면 주체성이 살아나지 못한다.

우리는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으로서의 자존심, 특히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인

민으로서의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민족문학을 우리 식대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을 바쳐야 한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적특성을 잘 살리는것이 중요하다.

문학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리는것은 자기 나라 인민의 심리와 정서, 언어와 풍습을 비롯하여 생활과정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것으로서 문학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민족적특성을 살리는데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성격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단일민족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강의한 의지와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정서를 가진 근면하고 용감한 민족으로서 자기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성격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끝없는 사랑과 배려 속에서 그리고 혁명투쟁과정을통하여 더욱 숭고하게 발전하였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아름

답고 고상한 민족적성격을 깊이있고 풍부하게,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내야 한다. 또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성격과 함께 오랜 역사과정에 이루어지고 굳어진 미풍량속과 우리 인민에게 낮익은 자연풍경도 실감있게 그려내야 한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는 문학의 주체성을 말살하는 가장 위험한 독소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문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자기 나라 민족문학의 주체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자기의것만 제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민족문학을 부정하거나 배격하는 민족배타주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른 나라의 문학에서 이룩된 진보적인것가운데서 우리의 문학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것은 주체적인 립장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환상을 가져서도 안되며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여서도 안된다. 다른 나라의것이 아무리 좋은것이라고 하여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사

정든 내 고향

김선지

그 어디에 있어도 그리운 내 고향

그 품속에 자랄 땐 꿈도 많았네

날을 따라 꽃피는 고향이건만

나의 꿈도 나의 땀도 바치려 왔네

아 정든 내 고향

불빛 밝은 도시도 살기 좋지만

아름다운 내 고향 내가 자란 땅

친애하는 그이 뜻 더잘 꽃피워

기쁨드릴 마음안고 내 여기 왔네

아 정든 내 고향

공산주의리상촌 여기 꽃피워

온 세상이 부럽도록 자랑하고싶네

정다운 이 땅에 뿌리를 내려

내 고향 지켜갈 주인이 되리

아 정든 내 고향

첫번째 위인을 맞다

(전호에서 계속)

아버지의 시신을 양지바른 산기슭에 안장하고 돌아온 용무는 유언대로 그다음날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집꾸리기에 달라붙었다.

벼슬을 하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글공부를 해온 그는 식자도 있어 세상리치를 남먼저 이해할줄 알았으며 아버지를 닮아서 목수재간은 물론 농사일에도 그리 막히는게 없었다.

춘삼월이 다가들자 용무는 화전을 일구어 씨를 뿌렸고 집주변에는 배나무며 추리나무 등 파수나무도 떠다 옮기었다.

그리고 집옆에는 배와 추리를 넣어두는 창고도 덩실하게 짓고 집앞에 흐르는 시내가에는 물방아간과 연자방아까지 차려놓았다.

그러던 어느해 겨울이었다.

배를 한수레 싣고 장거리에 나갔던 용무는 우국지사들이 독립군을 무어가지고 멀지 않은곳에서 왜놈들과 맞서싸우고있다는 희한한 소식을 듣게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용무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독립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의 계시대로 정말 우리 집에 위인들이 나타날수 있으니 언제나 집을 비우지 말라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서 킁킁 개가 짓더니 《주인령감 있소?》 하는 투박한 말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렸다. 이윽고 개털모자에 털두루마기를 입고 노루가죽 목도리를 두른 사나이 셋이 허리에 권총과 칼을 차고 들어서는것이였다.

《령감, 밤중에 안됐소. 우리는 조선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군이요. 군자금도 마련할 겸 하루밤 묵어가자고 들렸소.》

수염이 덩수룩한 사나이가 하는 말에 귀가 번쩍트인 용무는 얼른 허리를 굽히면서 《어서 그러십시오. 어르신네들,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자 풍찬로숙하며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하고 인사말을하였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해있는 마누라에게 눈짓을 하면서 그들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잠시후 술상이 차려지고 조금 지나서 대장의 흐끄부라진 소리가 나왔다.

《주인령감, 우-우리는 나라를 찾기 위해 싸우는 도-독립군이요. 지금 왜놈들은 도-독립군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고있소. 우리는 불원간 나라를 독립하고야말테요. 그러니 령감은 구-군자금이나 넉넉히 대주시요. 그리고 백의민족의 얼굴 지켜 사-상투도 틀어올리시오. 그래야 왜놈들이 더 무서워하오. 알겠소? 령감.》

독립군두령의 녀두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날이 흰히 밝아오자 그들 셋은 용무가 주는 돈

몽치를 받아들더니 이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고는 산골짜기로 자취를 감추었다.

용무는 그들이 독립군이라기에 잘 먹여주고 돈까지 주어 보내기는 했으나 어쩐지 행동거지가 믿음이 가질 않았다. 하지만 혹시 그들이 자기 집에 들린다는 바로 그 위인들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용무는 백의민족의 얼굴지킨다는 의미에서 새하얀 무명천으로 지은 바지저고리에다 조끼를 받쳐입고 상투도 매일 바짝 틀어올리고 흰두루마기까지 걸치고 다니였다. 그리고 낱알과 배알, 추리알 할것없이 모두 모아 군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러면 한달이 멀다하게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군자금을 걷어가군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두해가 지나자 그들의 발길이 점점 뜸해지더니 이어 독립군이 일제의 《토벌》에 흩어져서 화승대와 칼을 땅속에 묻어버리고말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자 용무는 그만 맥이 탁풀렸다.

《아, 그들이 망하다니, 그럼 하늘이 낸 위인들이 아니었던말인가?》

탄식으로 세월을 흘러보내던 용무는 모든것을 포기하고말았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이날 새벽에도 어느날과 마찬가지로 밤새 뒤척락거리며 잠을 설친 용무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 부시럭거리면서 곱방대에 담배를 다져넣고있었다. 이때 밖에서 난데없이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새벽부터 우리 집엘 찾아오나? 용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무심결에 뚫린 창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대문안으로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은 30대가 되었을가말가하는 두 젊은이가 성큼성큼 들어서는 것이였다.

전에 다니던 독립군들처럼 칼과 총은 차지 않았어도 신발과 바지가랭이와 두루마기자락이 화려하니 젖은것을 보니 밤새 먼길을 걸어온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마당에 들어서서 잠시 바깥동정을 살피더니 그중 나이 좀 들어보이는듯한 젊은이가 《주인님, 계십니까?》 하고 조용히 불렀다.

사람을 그리워하던 용무는 얼른 창구멍에서 눈을 떼면서 《거 누구요?》 하고 되물으며 문을 열었다.

《저 로인님, 지나가던 길손인데 다리쉽이나 좀 하고 가자고 들렸습니다.》 하고 얼굴이 준수하게 생긴 젊은이가 어글어글하면서도 광채도는 눈빛을 용무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용무는 왜서인지 대번에 의심이 풀리고 마치 옆집사람 대하듯 마음이 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 이거 루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새벽부터 안됐습니다.》

두사람은 이슬에 폭 젖은 행진을 풀고 조심히 방안에 들어왔다.

이러는 그들을 바라보던 용무가 입을 열었다.

《안될게 있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디서 오는 길손인데 이 새벽에...》

용무는 방바닥에 널려있는 포단과 베개들을 구석에 밀어놓으며 자리를 권하였다.

두사람은 방안사람들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동안을 두더니 준수하게 생긴 젊은이가 먼저 말을 건네었다.

《로인님, 저희들은 평양에서 떠나 저 팔도구쪽으로 가던길에 불일이 있어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참 로인님, 이 집을 잘 지었습니다. 서울 왕궁 찜찌먹겠습니다.》그말에 용무는 허허 하고 어줍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예, 이 집은 하늘의 계시를 받고 지은 집이어서 품을 좀 들었습니다.》

《아니, 하늘의 계시라니요.》

이번에는 나이가 좀 든 젊은이가 반문하였다. 그러자 용무는 부엌에 대고 무얼 좀 준비하라고 이르더니 자기 아버지가 서울에 있던 때부터 시작하여 여기 와서 집을 짓던 일이며 몇해전 독립군들과 만났던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이어 독립은 막연하지만 자기는 아직 민족의 열을 잊지 않았다고 하면서 형클어진 상투를 다시 틀어올린 다음 손때 묻은 곰방대에 씨레기담배를 눌러담았다.

이러는 로인을 미소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젊은이는 《로인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부시를 쳐서 빨간 불이 달린 부시깃을 용무의 곰방대에 붙여주었다.

로인은 담배를 한모금 빨아 깊이 들이쉬었다가 《하늘의 계시대로 위인들만 맞는다면야 이까짓게 무슨 고생이겠소.》 하고는 곰방대를 입가에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나누는 사이에 어느덧 해가 떠올라 창문이 희붉히 밝아왔다.

준수한 젊은이는 다른 젊은이에게 로인과 이야기하라고 하고는 지형을 좀 나가보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나이드는 젊은이가 로인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말하였다.

《로인님은 저와 같이 온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도란에 빠진 우리 나라와 2천만 배달민족을 구원할 <지원>의 뜻을 안고 하늘에서 내리신 평양의 김형직선생님이십니다.》

순간 용무는 쥐였던 곰방대를 떨구며

《아니, 그 어른이 하늘에서 내리신 평양의 김형직선생님이시라구?》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소문을 통해 김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있던 용무는 인제야 자기 집에 위인을 모시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탄력있어보이는 툼툼한 체구에 단정한 옷매무시, 정열에 넘치는 얼굴, 광채로 빛나는 억실억실한 눈... 어디를 보나 하늘이 낸 위인임이 틀림없었다.

용무는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마침 그분이 산에 올랐다가 내려왔는지 바지가랭이가 젖은채로 마당에 들어서시는것이였다.

용무는 황급히 마당앞에 엎드려 정중히 큰절을 올리였다.

《선생님, 귀인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이 늙은이를 용서하십시오.》

《아, 로인님, 왜 이러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그이는 용무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세우시였다.

그리고는 용무의 거칠어진 손을 다정히 쓸어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로인님, 망국의 설음 안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어디를 가나 나라 잃고 해매이는 동포들을 보면 우리 젊은 남자들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하여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로인님처럼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충정이 높은분들이있는 한 한데 뭉쳐 싸우면 능히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못하면 아들, 손자, 이렇게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하고야말겠습니다.》

김선생님은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신 다음 용무의 손을 꼭 쥐여주시였다.

(아, 바로 이분이였구나. 과시 하늘이 낸 명인이로다. 말씀만 들어와도 막혔던 가슴이 확 풀리는것 같구나.)

김형직선생님은 일본놈들과 싸워 독립을 이룩하자면 모두가 한마음이 되여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용무의 어두운 눈을 띄워주시였다.

그후부터 용무는 김선생님의 뜻을 받고 찾아오는 오동진을 비롯한 수많은 우국지사들을 도와매식을 보장하고 군자금을 마련하느라고 힘에 부치도록 뛰여다녔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 용무는 평양의 김형직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되였다.

(아니, 아 일을 어쩌면 중단 말인가? 김선생님의 대에 꼭 나라의 광복을 성취할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시다니, 아, 원통하구나.)

온몸에 맥이 풀려 며칠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용무는 어느날 아들 석천을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하였다.

《석천아,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신 김선생님의 말씀을 네가

받들어야 하겠구나. 난 인젠 늙었나보다.》 하면서 아들의 손목을 꼭 쥔채 농을줄 물랐다.

(다음호에 계속)

김우경

시인의 노래

송명근

나의 고민이여 시인의 번민이여
내 사는 강원땅 안변에 금강에
영예군인을 사랑한 처녀들 많아
만나도 보았노라
아릿다운 그 마음씨 알고싶어
결혼식장을 찾아도 보았노라
앞뚱보는 영예군인결에
한생을 부축이듯 팔을 끼고 선
눈물겹도록 황홀한 그 모습앞에
마음의 금선을 튕겨
가락을 골랐건만
오늘까지 그 노래 매듭짓지 못하였거니
아,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번도 볼수 없는 그 고운 미소로
상처입은 한생을 쓰다듬어주어야 하는
영예군인의 안해
이 나라 너인들의 바삭없는 그 사랑을
다 담아낼 재능 내 타고나지 못했는가?

더해가는 고민이여 시인의 번민이여
《대흥》이란 지명이
신문과 텔레비존에서 자주 울려나올 때
집단진출이란 말이
농장별과 탄전에 가닿을 때
내 얼마나 그 모든곳으로 달려가고싶었으며
얼마나 많은 시를 쓸듯싶었던가
만나본 처녀들 만나보지 못한 제대군인들,
졸업생들
이 나라의 의리깊은 젊은이들을 두고
청춘과 희망과 조국을 두고
이들로 하여 한껏 아름다워질 미래를 두고...
꿈도 삶의 보람도
당이 바라는곳에 두고
웃으며 노래부르며 달려갈줄 아는
불같은 그 젊음앞에
심장은 달아올랐건만
보통일로 된 그것으로 하여 그렇듯 숭고한
그 정신에 내 노래 닿지 못하였나니
리기와 향락에 열중하여

친지도 이웃도
당도 나라도 제갈데로 가라고
배반으로, 망각으로 경주하듯 내닫는
어지러운 세계를 향하여
아, 나의 목소리
뢰성처럼 터친다면 얼마나 통쾌하라

어제는 전사들을 위하여
너무도 젊은 지휘관이
또 다음에는 지휘관을 위하여
량볼 붉은 전사가
터지는 수류탄을 가슴에 안았다
내 신문을 펼쳐든채
아이들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이교야말았으니
그런데 써놓은 노래 어떠한가
청춘의 더운 피로 새긴 동지애의 노래에
그 뜨거움 비길바없어...
그런들 어떠랴, 어쩔다더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긴 생각없이
동지를 위해 청춘을 던지는 사람들속에
소중한 처녀의 꿈과 청춘의 희망보다
당의 소원을 먼저 농을줄 아는
아아, 온 세상천지를 열번 다시 뒤져도
찾아낼길 없는 청춘들속에
내 살고있거니
이들이 바로
노래중에도
아름다운 노래우에 서있는 우리 인민!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이
한평생 품들여 가꾸어내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내 조국!
높아도 낮아도 이 시인의 노래
사랑에 겨워 불안고 쓰다듬으며
모대겨도 모대겨도 다할길 없는
조국에 대한 한편의 송가이기를!
오, 나는 부유한 시인!
부러워하라-나는 행복한 조선의 시인이다!

거대한 영상

김봉철

금강산에 오면 누구나 기념사진을 찍는다. 단 순히 그것은 아름다운 절경속에서 저도 모르게 흥떠지는 동심적인 감정으로 해서 그러는것만도 아닌것 같다. 하긴 이 세계적인 명산에 와서 자신이 등산했다는 추억을 누가 보증해주겠는가. 사진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외국인도 그리고 훌륭한 애국자도 그런가 하면 조국 앞에 한일없는 아니 인생이 그리 깨끗치 못한 사람들까지도 서슴없이 수려한 강산을 배경으로 자기의 얼굴을 새겨두는것이다.

카메라가 이 세상에 발견돼서 이곳에서처럼 각양각색의 필름을 소모한데가 많지는 않을것이다. 금강산은 그 수백수천만을 헤아리는 사진에 자기의 모습을 묵묵히 비쳐주었다.

하지만 오직 한분만은, 그것도 금강산을 조선의 금강으로 되게 한 못잇을 은인들중의 한분을 금강산은 자기의 모습속에 새겨두지 못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도 금강산 사람들은 긴긴나날 수십여년이 지나왔건만 세월과 함께 풍화도 산화도되지 않는 그 아쉬움을 삭이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나는 원산사적관의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관을 돌아보며 이미 알고있었으나 금강산을 지도하신 그이의 로정에서 단 한장의 사진이라도 새로 보충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기대를 버릴수가 없었다. 물론 보충된 사진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를 추억하시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그는 남달리 조국을 사랑했고 동지들을 사랑했으며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1947년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어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함께 금강산에 오시였다.

참으로 금강산은 허무한 세월 못발자취가 어지럽게 찍혀진 자기의 숲속과 바위길과 내가를 수정빛으로 정갈히 씻고 꿀향기가 스민 바람결과 유정한 물소리와 온갖 산새들의 우짖음과 풀벌레의 노래로 흐느끼고 웃으며 그분들의 웃자락과 발치를 감돌며 어리광부리였다.

사진기를 메고 떠난 부관은 걸음걸음 세분의 존귀하신 모습을 좋은 자리에서 새겨드리고싶었으나 그분들은 어느 한 자리도 택하시지 않으신채 곳곳에서 해방된 나라의 행복한 인민들의 즐거운 모습에 환히 웃으실뿐 사진기앞에 나서주지

않으셨다.

나라의 광복을 위해 백두광야에서 15성상 풍찬로숙을 하였고 몇백몇천급이 사선을 넘어오신 그분들이야말로 금강산의 제일 좋은 자리를 내드려 사진에 모셔야 했던것이다.

세분이 천천히 금강산휴양소의 휴양객들이야유회를 하는 자리를 에돌아 지나실 때였다. 휴양객들이 수령님을 알아보고 목이 쉬도록 만세를 부르며 달려왔다. 그들은 세분의 손길을 저마다 뜨겁게 잡으며 어쩔줄 몰라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했다. 어망중에 술잔을 권하는 로인도 있었고 떡과 과실을 권하는 처녀들도 있었다. 그러다가 잠시후에 그 누군가가 자기 동료들을 향해 소리쳤다.

《동무들,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신 만고의 애국자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읍시다.》

휴양생들이 박수를 치며 장군님과 김정숙동지 그리고 어리신 지도자동지의 손을 겹쳐잡으며 간청했다.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고 그들을 둘러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신자동무들의 요구라면 기꺼이 들어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함께 사진을 찍자고 너그러이 허락하시였다.

사람들은 경치좋은 자리를 골라 위대한 수령님 곁에 자리를 비워놓고 김정숙동지와 어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려 했다. 휴양생들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줄을 맞췄다. 그런데 앞줄을 우러르던 휴양생들은 그만 눈이 둥그래졌다. 그렇게도 가까이 모시고싶던 항일의 녀성영웅김정숙동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초조해진 그들이 서두르며 너사를 찾을 때 누군가가 사진터뒤에 솟은 산기슭을 가리키였다. 아릅드리나무들이 우거지고 키낮은 관목들이 짙 들어찬 그곳에서는 김정숙동지께서 천천히 오가시며 주변을 살펴보고계시였다. 휴양생들은 너사를 모셔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한 경위대원이 앞으로 나서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도 몇번이나 김정숙동지께 사진을 함께 찍어주시기를 간절히 말씀올렸습니니다. 그러나 휴양생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뒤산으로 오르시였습니다.》

휴양생들은 걸잡을수 없는 흥분과 걱정예 휩싸였다. 김정숙동지께서라고 어찌 아름다운곳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새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혁신자들인 휴양생들과 함께 뜻

깊은 사진을 찍고싶지 않으셨으랴... 하지만 석왕사와 온정리, 삼일포... 그 어디나 천하절승 금강길에서 김정숙동지께서는 단 한장의 사진도 찍으시지 않으셨다. 피와 눈물, 청춘을 바쳐 찾으신 조국이지만 너사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번도 카메라앞에 나서지 않으신것이다. 세월은 얼마나 흘렀는가.

50년... 아니 100년, 천년이 흘러도 금강산은 이 아쉬움을 잊지 못할것이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수천만장을 헤아리는 그 모든 사진우에 가장 위대한 혁명가의 영상으로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이 금강산에 영원히 새겨졌다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나는 사적관을 나섰다.

고향집 추억

작사 전동우, 작곡 강철호

1. 추억은 고향집 앞뜰의 시내물소리

추억은 어머니 다듬던 산나물향기

아 추억은 그향기에 실리어오는

아 군복입은 어머니의 밝은 그미소

2. 추억은 고향집 뒤산의 붉은 진달래

추억은 어머니 들려주던 옛말이야기

아 추억은 그 옛말에 실리어오는

아 군복입은 어머니의 밝은 그 미소

3. 추억은 고향집 밀림의 설레임소리

추억은 어머니 쓰시던 나무의 굴발

아 추억은 그 굴발에 실리어오는

아 군복입은 어머니의 밝은 그 미소

나는 조선사람이다

계훈

1

해쫄는 아침의 나라
아름다운 강산
여기서 태어나
생의 첫걸음을 댄
나는 조선사람

세상은 넓고
나라와 민족은 많건만
예보다 밝고 성스러운 땅
노래처럼 우리 말이 울리는
그런 정든곳을 더는 모르는
나는 조선사람

나는 무엇을 지녀
이 세상에 사람답게 사느냐
하루를 살아도 궁지롭고
한생을 살아도
세상을 굶어보며 사는
그런 자부를 안고 사느냐

사람들이여
조선사람이 그 무엇을 지녀
그렇듯 자랑높이 살고있는가를 알려거든
가없이 펼쳐진 저 창공높이
황황 떠오르는 주체의 봉화를 보라
거기엔 불타고있다
조선사람의 넋이

저 불은
우리 수령님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들고오신 불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가며
빛내이는 불

저 불은
이 땅에 위대한 창조를 낳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꽃피운 불
사랑과 충성으로 넘치는 일터
단단한 가정의 참가를
행복의 등불로 밝혀준 불

그 불로 용해공은 쇠물을 끓이고
그 불로 농민들은 이삭을 키우고
그 불로 광부들은 암벽을 뚫고
그 불을 켜들고 아이들은 책을 읽어라

제국주의자들이 몰아오는
반사회주의 눈서리를
우리는 그 불로 녹이고
원썬들이 이 땅에 달려든다면
병사들은 그 불로
혁명의 대포에 불을 달리니

저 불을 안고
우리 아버지세대들이 자라고
나의 동갑세대들이 자라고
나의 아들딸세대들이 자라나노라

그렇다
자기의 운명을
제 손으로
힘있게 개척해가는
나는 조선사람

남을 쳐다보며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는
인간자주의 생명을 지니여
세상에 가장 자랑높은 인민임을
내 소리높이 자부하나니

풍랑이 세차도
해일이 인대도
자기가 정한 항로로 꺾이지 나아가는
나는 조선사람

그렇다
주체는 나
나는 주체
이것으로 당당하고 존엄높은
나는 조선사람이다!

2

어제도
우리는 조선사람
오늘도
우리는 조선사람

허나 그 어떤 힘이 있어
어제와 오늘의
이런 놀라운 변모를 가져왔는가
그 옛날 일체의 호적부에
노예의 이름으로 올라있던 우리

이제는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내 나라의 푸른 공민증을 지니고 살거니

사람들이여 !
우리 생각에 잠겨
다시 거닐어보자
《국제친선전람관》
길고도 승엄한 복도
그 붉은 주단우를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를 한없이 흠모하여
세상사람들이 정성담아 보내온
귀중한 선물들을 바라보며
어찌하여 뜨겁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출길 없는것인가

청신한 바람이 안겨오는
전람관 로대우에 올라
높이 들린 추녀를 바라보며
흘러간 유구한 역사를 굽어보며
우리 가슴 젖는 생각은 그 무엇이던가

그것은 오, 그것은
짓밟히고 천대받던 조선의 얼을 안아
궁지높은 민족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위대한 우리 당을 따르는 그 영광

지난 세월엔
조선사람인탓에
그리도 설움많았고
남의 나라 땅에 들어설 때면
머리 한번 들지 못하던 우리 겨레

사람들이여
저 물결 푸른 두만강기슭을 걸어보라
저 파도사나운 현해탄을 건너보라
나라 잃고 쫓겨가던
겨레의 그 혼백이
아직 그 물결우에 떠도는지 그 누가 알라

아, 찬비 뿌리는 돌담가에서 가슴을 치며
울밑에 선 봉선화를 구슬피 부르던 우리 민족
망국노의 쓰라린 설분을
이국땅에 불은 피로 뿌리던
이것이 세상사람들의 눈에 비친
조선사람의 모습이었나니

아, 청수 한그릇 떠놓고
기약할수 없는 운명을
하늘에 빌고 산천에 빌다가
하늘도 무심하다 가슴치며 통곡하던

이 나라 사람들

낱아준것이 죄가 되고
태어난것이 원한이 되던 그 세월엔
조선사람—
그것은 비극의 대명사
수난의 대명사

허나 오늘은
그 멸시의 골짜기에서
존엄의 상상봉에 오른 조선민족
말해보라 세월이여
세상에는
천지개벽이란 말은 있어도
우리 민족의 새 탄생을 두고는
무엇이라 할수 있느냐
무엇이라 말해야 하느냐

이제는 인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강대하니
지난날 울면서 떠났던 우리 겨레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더라

그렇더라
위대한 령도자가 있어야
민족의 존엄을 누리에 떨칠수 있다는것을
내 오늘
인생의 참된 진리로
가슴속에 깊이깊이 되새기노라

진정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위대한 우리 당이 있어
위대한 내 조국
위대한 우리 인민이 있나니
그중의 한사람
나는 조선사람이다 !

3

기뻐하노라
해빛 눈부신 이 땅
밝은 미래가 약속된
번영하는 로동당시대에
내가 살고있음을!

허나 오늘이 있어도
래일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인생이며
오늘은 살아도

래일의 희망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삶의 기쁨이라
가슴에 품은 꿈

가슴에 품은 희망
나래를 달아
래일의 아름다운 하늘가에 얹고
밝게 웃는 행복이여!

사람들이여
따뜻한 해빛에 실려
생의 첫 고고성이 터져 흐르는
저 산원의 창가를 보라
새 생명의 찬가
환희의 노래를 축하하라

태어나도
아기에게
앞날이 없다면
밝은 미래가 없다면
우리 이렇게 기쁠 수 있으랴

보라, 열리는 거리
일떠서는 기념비들
어디를 보아도 밝고
어디를 보아도 행복의 물결이 흐르나니

누구든 보라
내 얼굴에
우리 민족 그 누구의 얼굴에
그늘이 있는가
흐린 눈동자를 찾아볼 수 있는가

밝은 미래
밝은 희망
한가슴에 안고
창조의 로동으로
미래의 화원을 가꾸며
가슴 뿌듯이 사는
나는 조선사람

우리의 이 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당이 한결음한결음 이끌어주고
우리 인민이 한결음한결음 따라서며
천만시련을 넘어 안아세운
우리 식 사회주의

어제는 푸른 잎새
오늘은 찬서리에 시들은 락엽
래일없이 바람따라 흩날리는
그런 인생과는 우리 인연없어라

어제는 붉은기
오늘은 무릎을 꿇고 바뀌든 회색기발
래일이 없이 암흑속을 헤매이는

그런 운명과는 우리 인연없어라

폭풍이여
불태면 불라
그러면
우리의 기폭은 더 세차게 휘날리리
당의 두리에 더 굳게 뭉쳐
우리는 붉은기를 폭풍속에 더 높이 들리

누구도 감히
우리를 건드릴수 없으랴
누구도 우리 앞길 막을수 없으랴
남들이 못가는 혁명의 길을
궁지높이
신심드높이
우리 식 사회주의 걸음으로 빛내여가는
나는 조선사람!

우리의 앞날은 밝다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다
양양한 우리 당이
로속하고 세련된 우리 당이
력사의 방향타를 틀어쥐고
조선을 이끌어주나니

자주의 폭풍으로
외세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대단결의 위대한 기치아래
민족이 하나되어
고려민족의 그 영광 만방에 떨칠
통일의 그날은 기어이 오리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주체의 한길을 가고가는
위대한 당의 아들
하늘가에 솟아있는 백두의 령봉처럼
세기에 머리높이 들고 뿔뿔이 사는
우리는 조선사람

아, 주체의 녀를 지녀
우리는 자주성이 강한
조선사람
사회주의와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력사의 정의와 진리를 지켜가노라

아아-
위대한 **김일성**동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령수로 모신
나는,
나는 조선사람이다

(1992. 6. 17)

민족과 운명에 대한 철학적인 진리를 밝혀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

김은숙

최근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차게 걸어온 우리의 주체적영화예술의 대화원을 더욱더 활짝 꽃피우고 우리 영화력사에 금문자로 새겨질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서의 품격을 아낌없이 과시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1, 2, 3, 4부(최현덕편)를 훌륭히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영화는 나오자마자 민족과 운명에 대한 철학적인 진리를 밝혀주는 영화로서 지닌 그의 높은 사상성과 풍만하고 완벽한 예술적형상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으며 거대한 정서적감화력으로 하여 인민들의 한결같은 경탄의 목소리를 모으고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1, 2, 3, 4부가 흠잡을데 없는 《미남》으로 동백기름을 바른것과 같이 기름기가 넘치는 시대의 훌륭한 걸작, 명작으로 창작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영화를 세계적인대결작, 명작으로 창작해내도록 강력한 창작력량을 무어주시고 영화문학의 종자로부터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방향을 그어주시고 보살펴주시면서 방대한 량을 포괄하는 영화의 매부에 이르기까지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으로써 일찌기 우리 나라 영화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가장 높고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였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1, 2, 3, 4부가 민족과 운명에 대한 철학적인 진리를 밝혀주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대작에 맞는 철학적인 종자를 골라잡고 그것을 높은 사상에예술성으로 훌륭히 꽃피웠기때문이다.

영화문학은 영화의 성과를 담보하는 기본공정으로서 영화가 잘되려면 우선 영화문학이 좋아야 하며 특히 작품의 모든 형상요소를 안고있는 종자가 철학적무게를 가진 종자로 되여야 한다.

특히 큰 형식의 규모를 잡은 작품에서는 대작의 품격을 원만히 갖추에 있어서 철학적심도를 보장하는것이 절실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데 이것은 종자의 심오성을 떠나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다부작영화문학 《민족과 운명》에서 일관되고있

는 종자는 민족과 운명에 대한 문제, 다시말하여 민족의 운명이자 곧 개인의 운명이라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적지존심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인민들을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민족과 개인의 운명문제를 핵으로 하고 민족의 운명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 종자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1, 2, 3, 4부를 세계적인 대결작으로서 높은 사상성과 풍만한 예술성, 철학적인 심도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한 근본바탕으로, 자양분으로 된다.

서사시적대작의 품격에 맞는 민족과 운명에 관한 이 종자는 깊이있게 파면 팔수록 새롭고 의의있는 생활철학을 밝혀낼수 있는 거대한 폭과 무게를 가진 종자이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종자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현덕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우여곡절에 찬과란많은 기구한 운명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운명이자 곧 개인의 운명이라는 종자로부터 선택된 영화의 주인공 최현덕은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문제를 통일적으로 밝힐수 있는 원형인물이다.

최현덕편으로 일관지어지고있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1, 2, 3, 4부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물리해로부터 끝수까지 사무친 반공사상으로 인하여 제판에는 남조선을 조국이라고 생각하며 그 조국을 위하여 무엇인가 한다고 자처하면서 수치스러운 치욕과 피로 얼룩진 반공일선에서 헌신하다가 그 반공리념이 허물어짐과 함께 정신적방황속에서 헤매이면서 자기의 잘못을 심각하게 뉘우치고 늦게나마 사회주의 조국의 품, 아버지수령님의 품에 안겨 참된 삶을 누리게 되기까지의 주인공의 일대기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주인공 최현덕이 그렇듯 모순에 차고 순란치 않은 복잡한 길을 걷게 된 근처에는 드물지 않는 반공일념이 그의 머리속에 지배하고있었기때문이다.

머리가 비상하고 장개석의 국민당대령으로 있을 때부터 특별한 기질을 가지고있는 최현덕은

반공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군 고문관 로버트의 총애속에 육군사관학교 특별반을 거반공광신자들을 키워내는 교장의 직책을 담당 수행하며 전쟁마당에서는 《호림부대》사단장으로서 공산군의 진격을 막아낸다고 하면서 화랑도의 후손답게 몸이 찢기고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싸우자고 고창하기도 한다. 또한 빨갱이들은 씨종자를 말리워야 한다면 《지리산》로벌대와 불을 토하는 고지에서 돌격앞으로를 웨치며 동족끼리 살육을 하는 만고의 죄를 짓는다.

영화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조국과 인민 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지으며 나아가서는 망명객이라는 서러운 운명의 길을 걷지않으면 안되게 되는 최현덕의 운명을 통하여 민족이 없으면 개인의 운명도 없다는 무게있고 심오한 종자를 밝히는데로 지향하고있다.

이것은 살인악마 박정희를 믿었다가 그에게서 배반을 당하고 분노에 겨워 피의 절규를 하는 장면에서의 최현덕의 말에서 여실히 표현되고있다.

《아, 한울님이시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땅에는 조국도, 민족의 구세주도, 최현덕이도 없다!...》

이러한 최현덕은 쓰라린 마음을 안고 망명의 길에 오르며 고향도 조국도 아닌 이국에서 항상 설음을 안고 모태기다가 진정한 조국,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기여 인생말년을 참답게 보내게 된다.

민족과 운명이라는 종자를 밝힐수 있는 주인공 최현덕의 형상은 조선사람으로서의 참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에게 반공은 철저한 매국배종의 길이고 자기자신의 운명을 망치는 길이며 오직 련공의 길,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는 길만이 민족과 자기운명을 개척하고 구원하는 진정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예술적으로 해답을 주고있다.

이러한것으로부터 누구나 최현덕이와 같은 운명의 길을 답습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운명은 결코 최악의 수치를 면치 못하리라는것을 력사의 산 증거로 심각한 교훈을 시사해주고있다.

영화에서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청춘시절에 길을 잘못든것으로 하여 최현덕은 인생말년에 해외망명의 길에서 쓸쓸한 바다가에 외로이 앉아 자기의 저주로운 과거를 돌이켜보며 정신적고민 상태에서 헤매인다.

몇몇치 못한 인생에 대한 쓰라린 아픔을 안고 그는 자기자신이 랑정한 심판관이 되어 군직과 관직, 교직시절의 사진에 준절한 규탄을 내리며 총도 쓰지만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과 민족앞에 지은 죄에 대한 죄의식이 떠나지 않으며 이때문에 걸음걸음 몸부림친다.

정신적고민은 그가 선친의 분묘를 찾기 위해 방북의 길에 올라 조국에 왔을 때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부위원장인 강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해방전 남경료정에서 옛친우의 가슴에 흉탄을 안겼던 자신의 처사를 두고 복수당할 생각에 몸부림을 치며 지어는 환각에 사로잡히게까지 되며 죽마고우인 광대식을 만났을 때에는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있는 그의 동생 분옥이를 본의아니게 죽인것으로 하여 기대하던 상봉의 시각에 자신에 대한 쓰디쓴 환멸과 번민을 체험하게 되는 데서도 의연지속된다.

여기로부터 영화는 반공프로 가득찬 인생은 결코 그 어디에 가나 몇몇이 살수 없고 정신적고뇌와 번민으로 인한 타락과 허무의 세계를 면치 못하리라는것을 최현덕의 기구한 운명속에서 잘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주신 존엄있는 민족으로서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인민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긍지높이 찬양하고있으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에 안겨 승리의 한길을 따라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싸워나갈 때만이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진정한 삶을 누릴수 있다는 철의론리를 안겨주고있다.

실로 영화는 지금까지의 문학예술작품에서는 볼수 없었던 특색있는 주인공-반공일로를 걷다가 련공의 길에 인생의 닳을 내린 원형인물 최현덕을 선택하고 그의 모순에 찬 우여곡절을 해부학적으로 파헤침으로써 종자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운명을 떠난 개인의 운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것을 예술적으로 잘 펼쳐보이고있다.

영화에서는 또한 민족과 운명에 관한 종자를 특색있게 꽃피워나가기 위하여 일상 다반사가 아니라 종자의 요구에 맞게 인간의 운명문제를 보여줄수 있는 생활들을 잘 취사선택하여 그린것이다.

종자를 형상으로 실현하자면 생활을 잘 그려야 하는데 생활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작가는 현실속의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들 가운데서 종자의 요구에 맞는 생활을 선택하여 그려야하며 종자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생활은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사실 큰 규모의 영화에서는 인간과 그의 생활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는 식으로 형상하는 현상이 다분히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영화의 각광이 모호해지고 사상적대도 산만해질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는 주인공의 생활을 민족과 개인의 운명을 놓고 심각하게 보여줄수 있는 본질적이 생활들만을 집약하여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큰 력사적인 사실만을 보여주면서도 최현덕의 형상을 손색없이 풍부

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영화에서 최현덕의 생활은 1945년 가을부터 80년대에 이르는 남조선생활과 미국에로의 망명 생활을 다 보여주면서도 그것을 군직 10년, 관직 10년, 교직 10년으로 구획지어주고있으며 이 기간에 있는 생활들을 실재한 역사적사실들과 결부시키고있다.

관직 10년동안은 작곡가 윤상민랍치사건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걸머지고 스스로 돌아오는 기막힌 일로 집약되며 교직 10년은 박대통령과 친분관계도 두텁고 전쟁에서도 명망이 높았던 최현덕이만이 땅바닥에 떨어진 천도교의 굴욕기를 다시 휘날릴수 있다는 사람들의 간절한 청에 의하여 천도교교령직을 맡아하는것으로 펼쳐진다.

주인공은 천도교가 고고성을 터친 대신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울 《동학위령탑》과 《수운회관》건설에서 걸린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학생중대장이었던 박정희를 찾아가 자금을 해결해오는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인상을 좋게 가진다.

때문에 그는 교령님의 덕으로 천도교가 부활승천한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도 그것은 교인들에게 은총을 돌려주신 《대통령》의 덕망이라고 말하기도하며 주인공을 찾아온 차흥기가 박정희를 비방할때에는 민족의 령수를 모독하여서는 안된다고 꾸짖고는 날치기정객이며 정치적사환군인 박정희를 도와 선거유세에 나선다.

그러다가 작곡가 윤상민사건의 진범인도, 한당의 총재이며 대통령립후보인 김대중을 랍치한것도 박정희라는것을 알고는 꼭두각시노릇을 한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에 스스로 얼굴을 붉히며 분노에 치를 떠는것이다.

영화는 이렇듯 실재한 역사적사건들을 최현덕의 생활에 끌어들이고 섬세하게 펼침으로써 파썸독재가 판을 치는 남한땅에는 민족의 령수도 없고 따라서 민족과 개인의 운명은 기약할수 없이 암담하다는것을 신랄하게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영화의 3, 4부에서 조국을 방문한 주인공이 이모를 만나고 지난날의 죄로 하여 불미스러운 관계로 되어있던 광대식과 강훈이와의 인간관계가 풀리는 생활과 더우기는 조국의 품에 안겨 충신의 길을 걷다가 생의 말년에 불효막심한 아들을 저주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조국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며 장군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민족과 자신의 운명을 정치적생명으로 빛내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북반부에서의 생활은 최현덕의 운명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으로서 작품의 종자를 밝히는데로 집중시키고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창작경험은 서사시적대작창작에서 큰 규모형식에 치우쳐 생활다반사를 다 펼쳐놓을것이 아니라 종자의 요구에 맞는 적중

하고 집약적인 생활들을 설정하고 잘만 형상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수 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1, 2, 3, 4부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대작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거인적성격으로서의 주인공의 인간형상을 새롭고 특색있게 한데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사람들을 힘있게 불려일으키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의 문학은 철두철미 공산주의인간학으로되여야 하며 형식일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인간성격을 깊이있게 파헤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문학에서 인간의 성격을 그릴 때에는 정치적인면, 사상적인 면과 함께 인간적바탕을 옹게 밝히는것이 중요하다.

영화에서는 최현덕이의 이런 인간적인 바탕을 특색있게 잘 보여주고있다.

이 영화에서는 민족과 운명에 대한 문제를 밝혀주려는데로부터 사상과 신앙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적인 바탕은 그르지 않은 최현덕의 성격을 새롭게 창조하고있다.

영화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조국과 인민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최현덕은 량심적이고 의지가 강하며 대바른 성격의 소유자인것이다.

그의 이러한 성격은 영화의 2부에서 반공일로를 걸어온 철저한 이단자인 방목사가 조국을 다녀왔다는 소리를 듣고 선친의 분묘를 찾아 방목할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량심에 걸려 계속 고민하는것이라든가, 1부에서 그가 천도교교령직을 맡고 자금해결을 위해 박정희를 찾아갔을 때 천도교는 민족의 교라고 떠벌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고 술책을 쓰며 《도와》준 박정희의 처사에 의리를 지켜 박정희의 선거유세에 나서는것이라든가, 박정희의 기만을 때늦게나마 깨닫고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분을 삭이지 못하여 울분을 토하는데서 표현되는데 이러한것은 그가 량심적이며 정의감이 강하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인간적으로는 사심없고 깨끗한 인간이나 그에게서의 비극은 바로 철저한 민족주의자인 아버지 최정로와 리념을 같이 하지만 그실현의 길을 똑바로 알지 못하며 특히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편협한 물리해로 인한 반공사상에 있는것이다.

영화에서는 최현덕이의 인간적바탕을 잘 보여줌에 있어서 그가 어찌하여 반공사상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타당성도 설득력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영화의 3부에서 펼쳐지는 회상장면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혁명을 하러 찾아온 현덕, 강훈,

순녀에게 유산계급과는 혁명을 함께 할수 없다며 《화성의숙》 속장이었던 최현덕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장발의 좌경모험주의자의 모습에서 주인공은 격분에 치를 떨며 이때로부터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

그러기에 현덕은 강훈이 진정한 공산주의자이신 백두산의 장군님에게로 가자고 하였을 때에도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에 결코 다른 꽃이 필수없다고 단호히 거절하고는 그와 헤어져 운명적인 길에 들어서는 것이며 남경료정에서 장군님부대로 데리러 온 강훈에게 흑하사변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었고 레닌이 준 상해림시정부자금을 갈라먹은자들도 다름아닌 공산주의자들과 열변을 토하며 강훈의 가슴에 총까지 쏘는 것이다. 주인공 최현덕이 보아온 공산주의자들이란 지난날 우리 혁명의 앞길에 수많은 손실을 끼친 행세식막스주의자들, 혁명에 대한 옳바른 리해와 원리도 똑똑히 알지 못하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혁명을 하려는 각오가 없이 권세와 자리다툼에만 눈이 어두워 종파싸움에만 이골이 나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는 어긋나게 행동한 좌경모험주의자들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옳바른 진로를 내놓으시여 그 실현을 위한 항일의 피어린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체현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만나보지 못한 최현덕이에게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란 포악무도하고 잔인한자들이라고 생각할수 있는것이다.

그의 이러한 반공사상은 아버지를 죽인것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잘못 알게 되는데서 더욱더 확고한것으로 뿌리내리며 동생 현욱이가 공산주의자들을 동경한다는것을 알고는 한지붕아래 두사상은있을수 없다고 말하면서 인민군대를 도와준것으로하여 감옥에 잡힌 현욱이를 찾아가 공산주의자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들과는 피를 물고서라도 복수해야 한다고 광기를 부린다.

우리는 영화에서 이런 현덕이를 보면서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옳바른 인식이 없이 좌경모험주의자들만 목격하고는 반공사상을 가지고 그리념으로 반공의 일로를 걸어온 주인공의 비극을 놓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게 된다.

영화에서는 최현덕이의 그러한 인간적바탕을 그가 지니게 되는 반공사상의 타당성과 잘 결합시켜 그림으로써 인간과 그 인간이 체현하는 사상과의 관계를 모순속에서 잘 보여주고있다.

영화에서는 또한 최현덕이의 거인적성격을 잘 형상함에 있어서 그의 성격적특질을 잘 보여줄수 있는 성격세부들을 특색있게 찾아내어 형상하고 있다.

인간과 그의 생활을 보여주는 문학에서는 인간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 인간만이 가질수 있

고 표현할수 있는 성격적세부들을 잘 찾아내어 그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격적세부들을 특색있게 찾아내어 인간성격을 창조하는것은 작품에서 인간형상을 생신하고 독특하게 형상할수 있는 근본담보이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는 최현덕이를 요란한 인물로 거인적성격으로 형상하면서도 그의 성격적특질을 반영한 세부들을 참신하게 찾아내어 보여주고있다.

치미는 분노를 누를길 없을 때 《하나, 둘, 셋, 넷》 하고 손가락을 꼽는 주인공의 세부형상은 성격형상을 위하여 영화문학작가들이 얼마나 고심참담한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였는가를 엿볼수 있게 한다.

영화에서 이러한 세부형상은 주인공의 성격을 새롭게 부각시키고있다.

최현덕이 천도교교령으로 박정희를 찾아갔을 때 박정희의 시점에서 회상되는 장면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어린 시절 자기가 탄 소도 땅도 다 자기의삼촌것이라고 하며 우쭐대는 그에게 다섯손가락을 꼽을 때까지 소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그래도 건방지게 행동하는 그를 들어올려 강에 처박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세부는 아주 인상적이다.

이것은 천도교에 미리 박아넣은 중앙정보부밀정을 시켜 천도교중앙대회에서 최현덕이의 《부정축재》를 까발히게 하여 《도적놈》으로 몰게 하며 시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수운회관 신축자금에서 얼마나 사취하였는가고 모욕하게 하고 주인공을 사람들앞에서의 배척과 인간이하의 수모를 받게 한 박정희를 《국가원수》로 섬긴 자신의 어리석은짓을 개탄하며 《박정희, 네놈이 나를?》 하고 외우고 《하나, 둘, 셋, 넷》 손을 끝다가 새끼손가락을 깨무는 장면에서 계속되면서 최현덕의 성격을 새롭게 부각시키는데 특색있게 기여하고있다.

또한 영화문학작가들은 이 세부를 남경료정에 찾아온 강훈이 현덕이를 데리러 왔다고 하면서 남의 힘을 빌어서 조선독립을 하자는것은 남의 호미로 제 발길을 매겠다는 생각이라고, 그런 사대의식이 종당에는 리완용이와 같은 매국노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한 최현덕이가 반박하게 함으로써 성격 형상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영화는 이와 같이 격분하면 손가락부터 꼽는 주인공을 세번씩이나 반복하여 보여준것으로 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거인적성격으로 형상하면서 도구체적으로 살아움직이는 독특하고 생신하게 창조할수 있었다.

영화에서는 이와 함께 최현덕을 성격발전의 론리에 맞게 잘 형상하고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성격을 발전속에서 그리는것

은 성격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내는 중요한 형상방법인데 영화에서는 정신적방향으로부터 인생전환의 길에 들어서게 되기까지의 주인공 최현덕의 성격발전과정을 고민과 번뇌, 자충시도, 방북결심이라는 단계로 특징짓고 그 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자기의 지나온 한생에 즐겁게 회상할수 있는것은 피물지 않은 동심시절이라고 하면서 아동가요만 듣는 최현덕은 일생의 리념으로 간직한 반공사상으로 인하여 무고한 동족을 수없이 살해하도록 한 마을부락에서의 피비린내나는 참상을 계속 생각하며 그로 인한 량심의 가책때문에 번민한다.

그러면서도 불기를 맞는 한이 있어두 조국을 찾아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가슴속에 웅이가 맺혀있는것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밑에 방북기도를 하나 몇몇치 못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북에 대한 동경과 애착심은 막을수 없이 싹트고 꽃핀다.

그러기에 그의 방북기도를 알고 《안기부》놈들이 두 아들에게 갇은 수단으로 숨통을 누르고 그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또한 그 옛날 소령이었던자가 찾아와 9월 1일 한국 국군절행사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장을 가지고와 그의 결심을 돌려세우려고 할때도 《이 최현덕이더러 흰기를 들고 국군의 열병식에 참가하라? ...누가 감히 이런 묘안을 궁리해냈어?... 이 최현덕이를 뭘루 보는거야? 해남의 갈대루 보는거야, 부평초로 보는거야, 엉?》, 《까마귀도 제가 버린 등지에 다신 알을 안쥘어...》, 《...방금전까지만해도 난 자식들의 운명문제때문에 결심을 못하구있었다! 현대 이 초청장이 내가 어느쪽 비행기표를 사야 하는가를 가리켜주었다 !》하며 추상같은 목소리로 웨치는것이다.

이에 질겁한 박소령이 《...북공에 가면 지리산로벌에서 수천수만의 피를 흘리게 한 왕년의 토벌대장의 만고의 죄행을 그들이 어떻게 계산하리라하는것은 불보듯이 명백하다》고 떠벌이자 최현덕은 《그까짓건 빙산의 일각이야. 그것말구두 나한테 계산할게 태산같애... 이 죄많은 인생 이제그네들의 손에 죽어두 아까울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결심을 굽히지 않고 드디어 방북의 길에 오른다.

이러한것은 고민의 세계에서부터 조국에 가서 자신의 죄로 인한 응당한 심판을 받겠다고 결심하기까지의 주인공의 성격발전을 설득력있게 론증해주고있다.

만일 이러한 굴절된 성격발전과정이 없이 그저 정신적방향의 상태에만 있다가나 또한 선뜻 자기의 잘못을 량심적으로 돌이켜봄이 없이 단순히 방북기도를 보여주었다라면 최현덕의 성격이 론리적으로 잘 안겨오지 않고 형상의 빈 공간을 조

성한것으로 하여 성격형상의 품위가 떨어지게 되는것이다.

영화는 고민과 번뇌, 거기로부터 인생에 대한 혐오감으로 하여 반드시 있게 되는 자살기도, 아들과 《안기부》의 유혹도 몇몇이 물리치고 방북의 길에 오르는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구체적이고 론리정연하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인간성격창조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렇듯 영화는 사상과 리념에서는 반동적이어도 인간적성격에서는 이질화되지 않은 곧바른 성격을 간직한 최현덕의 인간적바탕을 특색있게 잘 형상함과 동시에 그에게만 고유한 개성적인 성격의 표현방식인 손가락꼽는 세부 그리고 성격을 발전적건지에서 잘 그림으로써 험난한 가시덤불을 헤치며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본 최현덕이를 요란한 인물로, 거인적성격으로 손색없이 원만히 형상하였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1, 2, 3, 4부로 동당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으로 되는것은 끝으로 민족과 운명에 대한 철학적인 진리를 밝혀줌에 있어서 극조직과 감정조직을 잘한것과 관련된다.

작품에서 사상을 인상깊은 형상으로 감명깊게 보여주려면 극조직을 잘해야 한다.

때문에 극조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히 이야기줄거리를 엮는 문제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작품의 사상에술성을 담보하는가 담보하지 못하는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영화에서 극조직을 인간학적요구에 맞게 잘한것은 인물들을 극적체험세계를 낳을수 있는 극적관계로 맺어주었기때문이다.

영화에서 최현덕이와 맺어지는 기본인물들은 강훈, 팽대식인데 이들은 다 극적관계로 되고있다.

영화의 1부, 2부에서는 최현덕이의 생활을 큰 력사적사건들속에서 펼쳐면서도 3, 4부에 예견되는 강훈과 팽대식과의 관계의 전제를 충분히 깔아주고있다.

전쟁마당의 서로 반대편에서 맞대면 최현덕과 강훈이 지난날을 회상하는 장면을 통하여 독자들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가지며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나가고 해결되겠는가를 흥미있게 지켜보게 된다.

그들의 관계는 3부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지며 상반되는 두 사상으로부터 친구가 친구에게 총을 쏘고 친구가 친구에게서 총을 맞게 되는 범상치 않은 사건을 제시해준다.

사상과 견해의 불일치로 하여 강훈의 가슴에 총을 쏘아 영원한 상처를 남겨준 최현덕은 조국을 방문한 그의 첫 손님이 다름아닌 그 강훈이라 는것을 알고 그에게서 총을 맞는 환각에까지 사로잡히며 실지 그를 만나서는 엉거주춤하며 방문

을 달아걸기까지 한다.

얼핏보면 그들의 관계는 최현덕이 생각한대로 그렇듯 뒹뒹하게 될것 같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의 사상을 가슴깊이 간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인 강훈이의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사심이 없는 친절성에 완화된단다.

그러나 지난날 자기의 죄를 알고있는 현덕은 그를 《선생》이라고 부르며 경계하면서 어려워한다. 그러면서 그는 강훈에게 소꿉시절동무인 《외양쇠》-곽대식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

그에게서 곽대식은 못건디게 그리운 소꿉시절 추억이 깊이 간직된 친구로서 그만은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주리라 믿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리 곽대식은 현덕이 강훈이에게 그러한것처럼 동갑이로서가 아니라 《최선생》이라고 하면서 차갑게 대한다.

곽대식에게 있어서 전쟁시기 무방비상태에서 적십자기발을 들고 마구 총을 쏘아대는 《호림부대》에게 환자들과 늙은이들에게 제발 쏘지 말라고 애원한 사랑하는 누이동생에게 마구 총탄을 안기도록 명령하고 포고문까지 내붙인 최현덕이를 영원히 못잊는것이다.

이렇게 영화에서는 기본인물들을 극적인 생활을 제시해줄수 있는 극적관계로 맺어줌으로써 작품의 첫 시작부터 극에 끌려들어가게 하며 부단히 극적굴절속에서 생활을 보여주고있다.

민족과 운명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려고 한 이 영화에 맞게 인간관계를 극적관계로 맺어주고 극을 조직한것은 문학예술작품에서 극조직의 좋은 경험으로 된다.

영화에서는 또한 감정조직을 인간학적요구에 맞게 잘하고있다.

인간의 감정은 현실에 대한 감성적인 반응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심리현상으로서 문학작품에서 감정조직은 단순히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흥미를 끄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작품의 사상정서적 감화력을 강화하려는데 있다.

영화의 1부로부터 특색있게 보여주는 감정조직은 3부에서 이모와의 상봉장면에서 집중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어린시절에 훈장에게서 회초리를 맞으면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달려와서는 매맞은 현덕이를 등에 업고 집으로 데려가고 아침마다 정가로운 샘물로 상처자리를 깨끗이 씻어주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 이모를 만나게 되리라는 반가움으로 이모님이 좋아하던 향설판을 가져다놓고 이제나저제나 올라 초조감으로 기다리던 최현덕이 호텔까지 왔다가 만나고싶어도 만날수 없다며 되돌아간 이모의 행동을 놓고 체협하는 감정은

그로 하여금 날자를 앞당겨 미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한다.

그러나 고향에 가보라는 강훈의 제의에 못이겨 고향에 가서 이모를 만난다.

반가운 혈육이라기보다는 조국앞에 진 죄로 반역자라는 생각이 어쩔수 없이 나서는것으로 하여 몇십리를 찾아왔다가 만나지 않고 돌아간 이모가 최현덕이를 만났을 때 이모는 사랑하는 조카앞에서 치밀어오르는 반가움에 그를 불안고 눈물을 흘린다.

그러다가 비자루를 들고 어디에 싸다니다가 이제야 왔는가고, 예로부터 반역자는 3대를 멸살했다며 너같은 반역자는 우리 집에 들어올수 없다고 몇십년동안 쌓이고 축적되어온 울분을 터뜨린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아 집안에 들어와 반동중에서도 상반동으로 살아온 현덕에게 누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해주겠는가고 준절히 말한다.

조국과 인민 앞에 진 죄로 늘 정신적고민에 싸이던 그 번민과 자책감이 한데 어울린 최현덕은 드디어 사나이의 눈물을 흘리면서 혈육과 조국을 배반하고서는 한시도 살수 없다고 웨친다.

눈물없이 볼수 없는 이 장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영화에서 감정조직은 본의아니게 죄를 진 반역자로 되었었지만 선뜻 혈육으로 맞이했다가 예리한말로 최현덕이를 꾸짖는 이모의 감정표현에서 아주 잘 처리되고있다.

이렇듯 이 영화에서의 감정조직은 거대한 폭과 깊이를 가지고있는 민족과 운명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는데서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 인간의 감정을 인물의 내면심리세계에 맞게 잘 보여줌으로써 우리 문학작품의 극조직에서 기본으로 되는 감정조직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매 부가 자기의 독자적인 형상의 몫이 있으면서도 서로의 련관속에서 민족과 개인의 심각한 운명문제를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훌륭히 보여줌으로써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대결작으로 되고있다.

지금 영화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1부부터 7부까지를 훌륭히 창작한 그 기세로 그 련속편들을 기름진 화폭으로 련이어 만들어내고있다.

우리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1부부터 7부까지의 창작에서 이룩한 좋은 경험들을 적극 살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더 빛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훌륭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내야 할것이다.

사람

리래운

1

군적으로 한명뿐이던 련포리 처녀관리위원장이 시집을 갔다.

그의 후임으로 온 리현심은 어제저녁 관리일군들앞에서 부임인사를 했다. 부임인사라야 자기 소개같은것은 략하고 그저 힘을 합쳐 일을 잘하자는식의 공식적인 말이였다. 3년씩이나 이고장에서 3대혁명소조원으로 일한 현심이고보면 구태여 자기 소개가 필요없었던것이다.

사람들은 련포리에 물이 좋아 번마다 달덩이같은 처녀들이 관리위원장으로 온다고 떠들썩 웃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새 사업에 대한 의욕과 근심 속에 뜬눈으로 밤을새운 현심은 오전 한것을 사무실에서 영농준비실태료해에 바쳤다.

지금은 기계화반으로 나가는길이다. 트랙또르 운전수 림옥이를 만나야 했다.

바람이 불었다. 먼산, 가까운 들이 모두 바람꽃에 가리워 새뽕양다. 그저 들리느니 바람소리뿐이다. 길아래 모판자리에서 방풍장을 치던 청년이 휩 불어지는 바람에 나래를 안은채로 나동그라진다. 맞잡고 일하던 아주머니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현심이 달려가 일으켜주려 하자 그 녀인은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애구, 놔두라요. 그 동무 요새 약해져서 그래요.》

여기저기서 그를 놀려주는 소리가 쏟아져나왔다. 결혼식을 한후 오늘 첫 출근을 했다는것이였다. 바람이 웃음소리를 토막냈다.

현심은 얼른 돌아서고말았다. 좀체로 저런 룡담에 익숙될수 없는 그였다. 하긴 도시에서 나서 자라 도시에서 공부했고 점잖은 선생님들과 학우들속에서 고상한것만을 몸에 익혀온 그가 어떻게 그런 《점잖지 못한》 말에 익숙할수 있겠는가.

아무튼 이런 랑풍속에서도 웃을줄 아는 농장원들이 장했다. 그리고 시야에 드는 모든것이 대견했다. 새삼스럽게 친근한 감정이 솟구쳐올랐다. 이제 저 황량한 대지에 푸른 옷을 입히고 알심있게 가꾸어 풍만한 가을을 안아오리라. 하여 온 나라가 련포리를 알게 하자.

현심은 온몸에 뿌듯한 힘이 솟구치는것을 느끼었다. 그것은 소조원시절의 그것과도 판이한, 좋은 풀판을 만난 풀근의 감정과 비슷한 희열넘친 의욕이였다.

한낮의 기계화반은 조용했다. 기계화반장 우길섭이 사람좋은 웃음으로 그를 맞이했다. 봄날씨

가 맛스러워 퇴비반출에 애를 먹는다고 몇마디 중얼거리고난 길섭은 무겁게 몸을 일으키더니 림옥을 데리러 나갔다. 통트무레한 몸집처럼 언행에도 무게가 있는 사람이다.

현심은 창문가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누르끼레한 회벽에서는 쓸쓸한 대진내와 함께 사내들한테서만 말할수 있는 텅텅한 냄새가 풍겼다. 앓은뱅이책상이며 전화기, 책장들도 헤여질 때 본그대로다. 먼지가 휩쓸고다니는 너렁청한 구내에는 새라새형의 련결농기계들이 짝 들어섰다. 논두렁뜨는 기계며 제초기, 비료산포기, 벼동가리실는 기계... 저것들은 전부 이 울안에서 자체로 만든것들이다. 하얗게 회칠을 한 꽃바자안에 자름자름한 자갈을 깔고 종류별로 들어앉힌 기계들은 폐유를 발라 새까맣게 번들거리는데 어느 전람관의 농기계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흐뭇했다. 감개무량했다. 이자리에서 다시금이 모든것과 마주설수 있는것만으로도 그는 만족스러웠다.

림옥은 문밖에서 신발털개를 요란스레 구를 때와는 달리 의젓하게 방에 들어섰다. 벌쭉 웃으며 성큼성큼 다가온 그는 현심이가 내미는 손을 따뜻이 감싸쥐었다. 무슨 일을 하겠는지 손에도 얼굴에도 기름얼룩이투성이다. 그 손으로 뒤더수기를 굵적거리며 능청스럽게 현심을 쳐다보았다.

《내가 또 졌구만요.》

《?!》

《돌아왔으니말입니다. 난 믿지 않았됐습니다.》

현심은 빙긋이 웃었다. 누군들 믿었겠는가. 현심이자신도 자기가 꼭 돌아올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다만 정든 마을사람들과의 작별이 섭섭했고 곳곳에 하다가만 일감을 그냥 두고가는것이 너무 아쉬워 꼭 돌아오겠다고 했던것인데 일이 될 때라 마침 결원중인 관리위원장자리에 자기가 임명되었던것이다.

유쾌한 룡담과 반가운 인사말이 한동안 오간다음 현심은 림옥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한가지 부탁하자요.》

그 부탁인즉 지금껏 자기가 주인이 되여 하던 비탈밭가는 기계를 림옥이가 맡아서 완성시켜달라는것이였다.

림옥은 놀라와하면서도 선선히 응했다. 어찌보면 그래주기를 은근히 기다리고있을듯싶다. 그것이 도리어 현심의 불안을 자아냈다. 혹시 이 동무가 기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것이 아닐가? 한번 빼기여보려는 실없는 욕망이 일을 망칠지도

물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잔걱정섞인 소리를 하게 되었는데 림옥은 아마 그것이 꽤 지루했던 모양이었다.

《참 관리위원장동무. 그러다간 나이 서른도 되기전에 할머니가 되고말겠습니다.》

말허리를 툭 분지르며 눈꼬리로 흘려보는데 책망하는듯도싶고 안심시키려는듯도싶다. 그 우습강스러운 표정에 현심은 소리내어 웃었다.

《하긴 그래요. 제가 비탈밭가는 기계를 착상한 주인을 몰라봤군요.》

그 말에 림옥은 손을 저으며 황급히 변명했다.

《아, 아닙니다. 난 오히려 관리위원장동무를... 열매도 못볼 나무에 두엄만 줄가봐 그림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들이란 아무때건...》

말끝을 흐리며 싱긋 웃는다. 뻔하지 않습니까 하는 능청이 뻔뻔처럼 박혀있다.

현심은 슬며시 얼굴을 돌렸다.

《사람두. 별 실없는 소리 다 하지 않나.》

길썩이 책망하려드는걸 현심이 말렸다.

《괜찮아요. 뭐 룡담인걸요.》

말은 그러하나 마음속의 따뜻하던 감정은 서서히 식어들고있었다.

(나를 여전히 나그네로. 보는구나!)

현심은 섭섭한 생각을 감추려고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으로 장판바닥을 짹짹 문질렀다. 하지만 한번 들쩍 가슴은 좀체 진정되지 않았다.

임명을 받고 련포리로 돌아오면서 현심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반가와하리라. 그리고 소조원시절처럼 믿고 사랑해주리라. 그래서 그의 가슴은 꿈으로 부풀었으며 수많은 구상과 설계로 머리는 현혹증을 일으킬지경이었다. 그런데 그 꿈을 실현할 첫걸음을 내딛기도전에 왕청같은 질문이 제기되는것이 아닌가. 마치 그 어떤 자격을 심의하는 심사원이 시험문제를 내놓듯이...

반면에 림옥은 현심이가 스치듯 얼핏 던진 《비탈밭 가는 기계를 착상한 주인》이라는 말을 흡족한 마음으로 되뇌여보고있었다.

지난해 어느 봄날이었다. 소제등 비탈밭을 갈러갔던 아버지가 희한하게 고운 손수건을 들고 돌아왔다.

《었다, 너나 써라.》

아버지는 맵시쟁이 누이동생이 불세라 손수건을 얼른 림옥의 손에 쥐여주며 눈을 꿈쩍했다. 빨갛고 소담한 함박꽃이 얼핏 눈에 띄었다.

《웬거예요? 어디서 났어요?》

《현심소조원이 날 쓰라구 준거다. 어서 감추래두.》

(도에 회의갔더니 벌써 왔나?)

림옥은 고개를 기웃거리면서도 손수건만은 얼

른바지주머니에 쑤셔넣었다.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서, 자리에 누워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데가 있었다. 땀을 씻을것이 아니라 아예 땀흘리지 않고 발을 갈 수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며칠후 림옥은 하얀 종이장에 땅크비슷한 그림 하나를 그려가지고 현심을 찾아갔다. 작업반장과 함께 논머리에 앉아있던 현심은 《비탈밭 가는 기계입니다.》 하며 내놓는 림옥의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싸쥐며 웃었다.

《왜요? 안될것같습니까?》

《아, 아니예요.》

현심이 당황해서 손을 짓는데 곁에 앉아있던 작업반장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욕심이 소풍구리 한가지네그러. 들걸 들겠다구 해야지.》

줄지에 《소풍구리》가 되어버린 림옥은 잠시 어이없는 표정이더니 곧 태연한 자세로 손수건을 꺼내 이마며 입언저리를 닦았다.

《도대체 요즘은 미술가들까지 농장원을 그리라면 목에 수건을 걸쳐놓는단말입니다. 땀뻘은 수건이 뭐 농장원들의 치레거린가요?》

맥락이 닿지 않는 앞뒤말을 풀이하느라 반장은 눈만 뜨무럭쳐리는데 현심의 얼굴은 서서히 달아올랐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그후 소조에서는 현심을 중심으로 비탈밭 가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현심이가 관리위원장으로 부임되어 오자마자 가뜩이나 그 운명을 걱정하던 비탈밭 가는 기계를 자기에게 맡겼으니 림옥이로서는 병어리총각 장가든것만치나 기쁜일이 아닐수 없었다.

한낮의 쏘는 햇볕이 창문으로 엇비슷이 비쳐들어 세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채색했다. 그것은 반가운 사람들의 상봉이 이루어진 이자리의 화기애애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듯싶었다. 하지만 그 해별도 제각기 다른 생각에 잠겨있는 세사람의 마음속까지는 한가지 색깔로 물들여주지 못했다.

《그럼 믿고 가겠어요.》

현심은 조용히 방을 나갔다. 우길섭이 담장밖에까지 따라나와 그를 바라였다. 혼연히 웃으며 이말저말 하지만 꽤 미안해하는 기색이었다. 허나실은 미안해할것도 없다. 현심은 지금 세대주의 자격을 가지고 나그네대접을 받는데 대해 피로와하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과연 이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장담할수 없어 피로와하는것이였다. 어쩌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림옥동무, 동무는 오늘 또 나를 딱하게 하는군요.)

현심의 머리에는 문득 그와 처음 만나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제작년, 그가 이곳 런포리에 3대혁명소조원으로 온지 2년째되던 해 가을이었다. 농장에는 한꺼번에 일곱명의 제대군인이 왔다. 농장문화회관에서는 성대한 환영모임이 진행되었다. 그날 담당인 3작업반에 나갔다가 늦어서야 돌아온 현심은 회관에 들어서다 우뚝 서버렸다. 여느때없이 흥성거리는 분위기가 여기서부터 느껴졌던 것이다.

넓은 홀 한복판에 놓인 탁구대에서는 단식경기가 한창인데 어깨성을 쌓은 구경꾼들속에서는 연방 환성이 터져올랐다. 농장탁구팀의 기동선수인 수리분조장과 마주선 사람은 면내의바람인데 차림새로 보아 이번에 온 제대군인이 분명했다.

둘 다 숨쉴들이 여간 아니었다. 특히 제대군인 청년의 외로치가는 경탄할만했다. 끝내 수리분조장이 3대 2로 지고말았다.

《에에- 나두 이젠 늙었어. 주장자리를 넘겨줘야겠단니까.》

아쉬워하면서도 너그러운척 청년의 손을 잡은 수리분조장은 그를 낚시시 자기네 분조로 초청했다.

《3반 림령감의 아들이라지? 땅크병출신이구.》

《그렇습니다.》

《장가갔나?》

《안갔습니다. 딸이 있습니까?》

대답이 희뽀다.

처녀들은 입을 싸쥐며 키들거렸다.

《누이동생이 있지. 우리한테 오면 매부삼을수 있어.》

《비탈밭을 소로 갈대군요.》

아직도 소로 밭을 갈도록 내버려둔 당신네 수준을 알만하다는 소리다. 폭소가 터졌다. 쓰겁게 입맛을 다시며 돌아서던 수리분조장은 사람들의 뒤에 서있는 현심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환성을 질렀다.

《아, 소조원동무, 어데 갔됐소?》

제잡담 손을 잡아끌며 복수전을 부탁했다. 황급히 달아나려 했으나 처녀들이 야단치며 등을 떠미는바람에 현심은 하는수없이 탁구판앞에 나서게되었다.

《림옥입니다. 많이 배워주십시오.》

청년은 발뒤굽치를 딱 소리나게 모으며 각뚱이례의를 표했다. 어깨가 넓고 허리가 늘씬한데 부리부리한 눈이 인상적이었다.

《전 잘못합니다.》

하면서도 현심은 은근히 승벽이 살아나는걸 어쩔수 없었다. 중학교때부터 탁구소조원으로 활약해온 그는 농업대학에 와서 두차례나 전국대회에 출전한 전적을 가지고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너자라고 얕잡아보았던지 강타에도 그닥 힘을 넣는것 같지 않던 림옥이 두세차례의 공방전을 통해 상대가 꺾내가 아니라는걸 알았던지 본격적인 완력전으로 나

왔다. 그럴수록 현심은 여유작작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짧은 깎아치기와 함께 순간강타를 들어대며 적수를 당황케 했다.

응원소리가 어찌나 자지러졌던지 도고하기로 소문난 처녀관리위원장과 리당비서까지 나왔다.

이렇게 되자 현심은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실력은 썩하다. 품들인 재간이야 어데 가겠는가. 이왕 고향에 돌아온 제대군인들을 기쁘게 해주자는 행사인데 처음부터 승리자의 패감을 맛보게 하자.

현심은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탁구판에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림옥의 외로치기강타가 연거퍼 두알이나 성공했다. 머리를 기웃거리던 림옥이가 탁구채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처음처럼 또 두발을 딱 모으며 《미안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고는 저고리를 찾아들고 회관밖으로 나가버렸다.

사람들은 아연해졌다. 현심은 자기의 실책에 혀를 깨물었다. 우월감이 강한 제대군인청년에게 쓸데없는 자비심을 베풀었다는걸 때늦게야 깨달았던 것이다.

(까다롭겠어. 저런 사람은 상대하기가 어려워.)

그후 지나보니 과연 그는 대상하기 조심스러운데가 없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너그럽다가도 때로 별치않은 일에 울컥하군하는데 그 한계점이 어디인지 알수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뭇때문에 나를 못미더워하는가. 혹시 도시로 출가한 전 관리위원장에 대한 불티가 나한테까지 튀어오는것이 아닐가?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 편협한 생각이다. 사랑이란 심장이 하는것이다. 사랑에 불타는 심장이 어떻게 도시와 농촌을 갈라볼수 있겠는가. 이것을 모르기때문에 저 사람이 여직껏 로총각소리를 듣고 있는것이 아닐가 하고 생각하던 현심은 혼자 어이없는 웃음을 웃고말았다.

아무튼 수이 다시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나서 푹푹한 대담을 주어야 할것이다. 비록 그것이 룡담으로 한 말일지라도 말속에 말이 있다지 않는가. 지휘관이 그런 까치둥지같이 영성한 믿음에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를 못할것이다.

믿음, 믿음을 주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

하지만 현심은 몇달이 지나도록 그럴 기회를 얻지 못했다 씨뿌리기가 인차 시작되는데다 한달강습까지 갔다오고보니 부임 첫날의 일은 까마득한 옛일처럼 잊혀지고말았던것이다.

그만치 그에게 있어서 관리위원장사업은 벅차고 힘겨우면서도 열정을 깡그리 쏟아붓게 하는 보람찬 사업이었다.

림옥이가 비탈밭 가는 기계 제작에 착수했다는

말을 우길섭이한테서 들은것은 한달강습에서 돌아온날 저녁의 일이었다. 잘돼간다고 했다.

《부락해요.》

현심은 이 말한마리로 그에 대한 믿음을 표실했고 농장의 어느 한두가지 일에만 몰두할수 없는 자기의 입장을 밝혔다.

과연 그는 바빴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랭정한 처녀라고 했으며 손탁 센 일군이라고 했다.

오늘도 그는 이른새벽부터 벌판을 돌아보고있었다. 이신작적을 일군의 첫째가는 미덕으로 알고있는 현심은 오전 한것은 늘 포전에서 보냈다. 그는 자기뿐아니라 관리일군들모두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다.

벌은 벌써부터 풀고있었다. 김매는 기계가 통통거리며 달려오더니 순식간에 빙그르 돌아 까마득히 미끄러져간다. 조종손잡이를 잡은 처녀의 머리에서 파란 수건이 기발처럼 날렸다.

현심은 걸음을 멈추고 논판을 살펴보았다. 방금 김매는 기계가 짓이기고 지나간 자리에 벼포기 몇대가 쓰러져있다. 현심은 얼른 눈에 들어가 그것들을 일으켜주었다. 이번에는 여기저기 김이 눈에 띄었다. 김을 뜯고 벼뿌리를 굽으며 나가다 나니 어느덧 일이 되었다. 흙은 부드럽고 물은 따스하다. 고랑이 메개 아지를 친 벼포기밑에서 개구리와 미꾸라지가 숨박꼭질을 한다.

아침해가 솟아오르고있었다.

현심은 허리를 폈다. 주위는 샅시에 열배나 더 밝아지고 벼숲이 환희롭게 술렁거렸다. 일사귀에 맺힌 이슬방울이 반짝거리는 모습은 푸른 실에 꿰인 구슬알 같았다. 바다기슭까지 쪽 뻗어나간 광활한 대지가 하나의 거대한 무지개로 되어 태평스레 누워있다. 그우에서 밤을 샌 물안개가 서서히 떠오르며 백양나무우듬지를 가락지처럼 둘러쌌다.

뚝, 뚝 물닭의 울음소리, 파악, 파악 개구리소리, 개짹는 소리조차 아슴프레 들려오는 먼 들판에서 맞는 아침은 언제보나 신비의 세계이다.

《좀 쉬고하자요.》

김매는 기계를 타던 처녀가 쟁쟁한 목소리로 소리친다. 그는 현심을 향해 《관리위원장동지!》 하고는 발최독을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저기서 기계소리가 멎고 발로 물을 차는 소리만이 절버덕거린다. 벌써 강냉이밭머리에서는 캐드득거리는 처녀들의 간지럼타는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현심은 천천히 그쪽을 향해 논판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뻗뻗하게 켜 벼이파리가 장판지를 알알하도록 스친다.

《야 이런 딱!》

낮으나 경탄에 찬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이 우리 조카 생일이야요.》

뿔내듯 쟁쟁하게 울리는 목소리의 임자는 아까 소리치던 처녀였다.

《응 그런걸 난 또... 가슴이 다 철렁했넹네.》

《왜요?》

《동무가 약혼식을 하지 않았나 했거든.》

《호호, 우습다. 아무러문 동무가 무슨 상관이야요?》

《상관있지, 내 이래봬두 동무 오빠를 처남삼으려는 사람이야.》

《애개-》

바스라지는듯한 소리와 함께 종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처녀의 모습이 보였다. 닫고 쫓기며 아우성이 일어났다.

현심이가 발머리에 이르렀을 때 처녀는 태를 지어먹은 새초롬한 표정으로 딱그릇을 덮은 보자기를 벗기며 웅알거리고있었다.

《씨 누가 동무같은 사람을 본대요?》

《그럼 동무두 누구처럼 도시로 갈테야?》

총각은 그냥 느물거렸다.

《그걸 날보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내 심장에 물어보라요.》

현심은 그렇게 말하는 처녀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룡담이면서도 도무지 룡담같이 느껴지지 않는것이 이상했다. 혹시 이 동무들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재담》을 하는것이 아닐가?

마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찾아오는바람에 현심은 딱한 처지를 모면할수 있었다.

《하 거참 일두...》

그는 현심을 따로 불러놓고는 선뜻 말을 못했다. 차림새를 봐선 수산분조에서 들어오는 길이 분명한데... 혹시 일이 잘 안됐나?

현심은 잠자코 서서 그의 거동만 살폈다.

술밭덕에 있는 40여채의 집을 남산봉밑으로 옮기기로 하고 군 농촌건설대가 달라붙은것은 지난 봄이었다. 좋은 땅도 얻어내고 마을도 규모있게 정리하자는것이였다. 그런데 군농촌건설계획에도 딱 쏘아박혀있는 이 일이 뜻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문제는 나무였다. 50여리밖에 있는 룡안립산 작업소에서 나무를 반계끔 계약은 되어있으나 온 군에 룡안 하나를 믿고 벌려놓은 건설이 많다보니 일은 한정없이 밀리기만 했다.

《어찌됐어요. 우리가 살 집인데... 무슨 수가 없을가요?》

며칠전 관리위원회회의의뒤끝에 현심이가 걱정을 했더니 부위원장이 방도를 내놓았다. 요즘 잡기 시작한 전어생선이나 한차 싹고가면 뚫어볼 승산이 있다는것이였다.

썩 좋은 안은 아니였다. 우선 몇몇한 국가일을 하면서 누구에겐가 무엇을 들고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것이 현심의 비위에 맞지 않았다.

이틀을 생각해보았다. 끝내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한 현심은 하는수없이 부위원장한테 이 일을 맡겨버렸다. 어제저녁 전어배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래일아침 일찌기

룡안엘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내 현심이가 수산분조장을 만나봤느냐고 물어서야 그는 《농장원들 먹이라는 물고기를 가지고 그런짓 해서야 되우?》 하더라는 말을 힘겹게 했다.

현심은 말없이 돌아서고말았다. 몇걸음 옮기다 되돌아와서 논머리에 놓인 신발을 찾아들고 수로 쪽으로 재빨리 걸어가는 그의 마음은 나이들어 이체는 과단성이 적어진 부위원장에 대한 측은한 생각으로 무거웠다.

…수산분조실 앞마당은 물고기비린내로 들썩혔다.

프락포르 한대가 그물건조장결에 서있었다. 손바닥만한 피창으로 머리만 버섯처럼 내민 림옥이가 그물을 뒤적이는 어로공들과 씩둑거리며 너털웃음치고있는것이 보였다.

소형자동차에 물고기통을 싣던 수산분조장이 현심을 보자 허리를 펴며 알은체했다.

등이 파랗고 갈쭈갈쭈한 전어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다. 이 아까운걸 수고하는 농장원들한테 맛도 보이기전에 남의 집에 들고갈 일을 생각하니 분하기 그지없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불시에 배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다. 뒤이어 싸늘한 전물같은것이 온몸을 휩쌌다. 현심은 그제서야 자기가 여직껏 아침도 안먹고 돌아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온몸이 노근해지며 땀이 오싹났다. 얼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때에 먹으라고 함숙어머니가 콩을 닦아서는 바가지에 담아 머리맡에 늘 놔주는데 다른일에 옴해있다나니 빈번히 이런 실수가 되풀이된다.

(참 코코에 말썹이라니까.)

현심은 딱히 무엇이라고 짚어말할수 없는것에 화를 내면서 분조장을 불러가지고 분조실로 들어갔다. 앞뒤창을 활짝 열어놓아 방안은 바깥보다 오히려 서늘했다.

《얼마나 잡았대구요?》

앉은뱅이책상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현심은 분조장을 치며보았다. 경충한 키에 가슴이 훌쭉한 분조장은 벌써 뭔가 좋지 않은 예감에 앉지도 못하고 문결에서 서성거렸다. 그것이 또한 현심의 부아를 더 돌게 했다. 자기의 정당성을 확신한다면 내앞에서도 당당해야 할것이다.

관리위원장동무, 난 그렇게 못하겠수다.

왜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가.

안타깝게 쪼그리고앉아 초들초들 마른 입술만 감싸는 현심의 모습은 보기에다 측은하리만치 초췌했다. 살이 쏙 빠지고 눈확이 꺼먼데 《멋쟁이소조》라고 불리우던 그 시절의 자취는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그것이 분조장의 동정을 자아

냈는지 한참만에야 심드렁한 목소리로 띠엇띠엇 말했다.

《뒤튼이면 될가요?》

《…》

《림옥이 차에 실을가요?》

《그래줬으면… 고맙겠어요.》

고개를 돌린 현심은 림옥이한테로 어정어정 걸어가며 수산분조장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녀석이 말을 듣겠나… 운전수들 반찬감때문에 왔었는데…》

실없는 걱정 다 하지 하고 현심은 생각했다. 반찬감 실려 왔다면 룡안가는 뭍에 덧붙여 싣고 가다 부리워주면 될게 아닌가. 아무튼 빨리 들어가야겠다. 누에가 석잠에서 깨났다고 했는데 양잠반지원사업도 조직 해야 할게고…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머리속에 뒤번지는 생각에 파묻힌 현심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다. 갑자기 발동소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정신을 차려보니 프락포르가 마당을 가로질러 곧장 들길로 접어드는것이였다. 뭐라고 소리치며 몇걸음 따라가던 수산분조장이 쉴수런 먼지속에 말뚝처럼 서있었다.

눈을 깜박거리며 멀어져가는 프락포르 뒤꽁무니를 쫓던 현심은 이윽해서야 저 차가 어딜 가느냐고 물었다. 팔을 척 드러운 분조장은 아무 말도 않는데 그물집던 어로공들이 한마디씩 했다.

《하 그 사람 성미두 참…》

《꼭 불 안깐 수탉지 같다니까.》

그리고는 키들거리며 웃었다.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짐작이 갔다. 분조장이 룡안에 올라가라니까 우둘령거리며 내뿔을것이다. 그리고 작업반에 가서는 관리위원장이 농장원들의 생활에 무관심하다고 투덜거리겠지.

까맣게 잊고있던 부임 첫날의 일이 떠오르면서 림옥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이 가슴속에 소용돌이쳤다.

탁아유치원에 공급되는 물고기를 실은 소형자동차가 앞에 와 멎더니 운전수가 차문을 열어잡고 소리쳤다.

《타십시오, 관리위원장동지.》

현심은 무심히 한발 내짚다가 이내 도리를 저었다.

《가세요. 잠깐 들렀다갈데가 있어요.》

얼결에 거짓말을 하고나서도 그는 자기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실은 림옥의 차를 타고가려 하지 않았던가.

길은 벌써 뜨겁게 달아있었다. 그 길로 현심은 걸어들어왔다.

두고보자, 가만두지 않을테다.

걸음마다 욱버르며 마을에 다달은 현심은 합숙이 아니라 관리위원회로 곧장 들어갔다. 전화로

기계화반을 찾았더니 마침 우길섭이 나왔다.

《림옥이말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현심은 말없이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웬일인지 자기가 너무 웅얼하게 처신하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감정을 앞세우면서 직권으로 아래사람들을 놀려보려 하는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리성은 그러하나 감성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는 조련치 않았다.

림옥이가 제발로 현심을 찾아 합숙마당에 들어선것은 해질무렵이었다.

식당어머니를 도와 토방앞에서 풋배추를 다듬던 현심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다만 팔을 내밀면 닿을듯 바투 와 뺏은 신발코숭이의 기름 얼룩을 보며 신발이나 좀 빨아신을게지 하고 생각했다.

《태일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림옥의 말소리는 머리우에서 울렸다. 그의 말에는 언제나 서론이 없다. 그는 작업지시나 하듯이 동원되어야 할 차대수며 도착시간을 말했다.

《돌아가겠습니까.》

림옥의 발이 빙그르 돌아갔다. 현심이 머리를 들었을 때 그는 벌써 대문가에 가있었다.

《저...》

현심은 일손을 놓고 일어섰다. 여직껏 풀지 못하고있던 까부장한 속을 그냥 품고있기에는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이 너무나도 희한했던것이다.

《어떻게 된거예요? 갑자기...》

쳐다보는 눈빛은 깔끔했으나 말소리는 떨렸다.

림옥은 사연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룡안림산작업소장을 만났었다는 소리만 했다.

미덥지 않았다. 그길로 관리위원회에 나가 전화를 걸었더니 소장은 없고 지령원이 받았다. 그러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서쪽 창문으로 비쳐든 노을빛이 방안을 보라색으로 물들이고있었다. 그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방안의 기물들처럼 뭐가 뭔지 종잡기 어려운 생각속에 현심은 한식경이나 멍하니 앉아있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룡안을 다녀왔을까? 작업소장과는 어떤 사인가? 친척인가?...

다음날아침 립산작업소에 올라와서야 현심은 그 의문을 풀수 있었다.

《내 산관일을 30년나마 해먹어도 손내밀며 턱 아래소리 하는 사람은 수태 봤어두 저런 녀석은 첨봤소.》

오달진 체격에 당돌하게 생긴 작업소장은 마당에서 배구를 치느라 휘젓고돌아가는 립옥이를 톡 짚하며 어이없어했다.

느닷없이 달려든 《젊은녀석》이 눈을 부라리며 올려메더라는것이였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 당신들한테 보낼 때 언제 값을 받자고 하던가. 그 쌀을 먹으며 나무를 찍은 당신들이 자기를 먹여 살

린 우리더러 나무를 빨리 받겠거던 《인사》를 차리라니 이런 몰상식이 어데 있는가...

《허허, 남의 밥상을 넘보면서 입다심이라도 했더라면 큰일났겠소.》

작업소장은 어처구니없다는듯 껄껄 웃었다.

그랬었구나! 그런것도 모르고 나는 갇은 추측을 다 해봤지.

현심이가 대신 용서를 빌자 작업소장은 손을 뻗 내리그었다.

《농사군의 배짱이 그쯤이야 해야지요.》

마치 혼장이라도 달아주는것 같았다. 그리고는 창박을 향해 소리쳤다.

《이사람 우쭐래미. 마당깨지겠네. 밭다면 깨꼬한다더니 넌장놈의 배구는 무슨...》

림옥이도 지지 않았다. 뿔과 함께 떴다내려지군하며 신이 나서 떠들었다.

《아바이두 성냥이나... 한곽 준비하시라요. 새집들이에... 청할테니.》

게으른 산골해가 끝안에 퍼질무렵 립옥의 차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것을 보며 현심은 토장을 떠났다. 이왕 예까지 왔던김에 룡안돼지종축장에 들러볼 생각이였다. 거기에 좋은 종자돼지가 있다고했다. 보고 맘에 들면 새끼라도 한쌍 뽑아갈 작정이다.

몸은 오늘도 가볍지 않았다. 욕심스레 차려놓은 누에때문에 요즘 농장에서는 불이 일었다. 현심이도 어제 밤늦도록 뿔을 찼다. 입안이 소태같이 쓰고 기운이 없다. 게다가 아까 작업소장한테서 들은 말이 그냥 속에 앉혀있다. 립옥에 대한 칭찬이겠지만 꼭 자기를 비웃는것만 같았다. 너한테는 왜 그런 배짱이 없느냐? 그래도 어제날의 소조원이였다구? 과단성있는 일군이랴구?...

오르락내리락한 산골길을 자전거로 달리기란 짜증날 일이었다. 또 언덕반이다. 엇가락처럼 꼬이는 다리로 자전거를 밀며 그냥 생각한다.

나의 과단성과 립옥의 과단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확실히 나에게 없는것이 그에게는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프락프르소리가 덜칠듯 다가오고있었다. 립옥이가 뒀을것이다. 차도 주인을 닮아 성급하고 우쭐거린다. 이상한 사람이야. 남들과 대하는걸 보면 더할나위없이 서글서글한데 날보고는 왜 그럴가?

소조원시절에 그들은 펍 자별한 사이였다. 종종 책을 들고 와서는 수학공식이나 외국어단어를 물어보곤했고 비탈밭 가는 기계를 시작하자부터는 열정적인 토론상대가 되어주었다. 저 기계가 지금처럼 크기가 유모차만해진데는 립옥의 사색이 깃들어있다. 현심이가 관리위원장으로 올 때까지도 해도 립옥은 지금같지 않았다. 일을 잔뜩 벌려놓고 그일에 빠져 현심이가 눈코뜰새없이 돌아치자부터 그는 웬일인지 슬며시 멀어지기 시작

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게 아닐까?)

나무를 가득 실은 트럭포르가 곁에 와 멎은 것은 그가 언덕바이를 절반도 오르기전이었다. 운전칸에 탔던 호송원이 뛰어내리더니 앞을 막아섰다.

《타십시오.》

자전거를 잡은 그는 다른 손으로 현심의 어깨를 부축했다. 현심은 시키는대로 했다. 림옥이가 근심어린 눈으로 그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슬며시 눈길을 돌렸다.

《수고했어요.》

현심은 그에게 웃어보이고싶었으나 잘되지 않았다.

차는 떠났다. 현심은 등받이에 몸을 실었다. 그담에는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군병원앞에 멎은 트럭포르에서 현심이를 안아내릴 때 그와 주머니에서 닦은 콩 몇알이 땅에 떨어졌다. 뒤따르던 의사가 그것을 집어들더니 림옥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

그날저녁이었다. 밥상둘레에 모여앉은 식구들 앞에서 림옥은 낮에 있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집에 재목 좀 장만한것 있지요? 아버지.》

그의 기분은 침울했다.

《왜, 재목이 모자라겠느냐?》

《예.》

《아침에 차를 가지고 오려무나.》

아버지는 혼연히 대답했다. 제것이라면 고뿔도 남주기 아까와하는 어머니도 이번만은 아들의 말을 긍정했다.

《쉽지 않은 처너지. 그러니 사람들이 따를수밖에... 뭐니뭐니해도 지식한테 정성을 다한 부모라야 봉양두 깅듯이 받는법이란다.》

참으로 그런가보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온동네가 떨쳐나선바람에 걸린다면 재목은 쓰기도 남으리만치 모아졌다.

...새집들이가 늦어져 첫눈이 평평 내리는 날에야 김장을 담그느라 법석이는 새마을을 돌아보며 현심은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이보라구 현심관리위원장!》

보는 사람마다 손목을 잡아끌며 자기네 양념맛을 보라고 야단들이다. 부르는 말투부터 달라졌다. 마치 집난이의 이름이나 부르듯이 스스럼없다. 저렇게 불리웠던 소조원시절이 생각났다.

무엇이 우리들을 이처럼 가깝게 하였는가?

현심은 갑자기 부딪친 일에 어리둥절해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3

민들레, 바랭이, 길쭉구들이 앞다투어 움터나는

언덕길로 현심은 쫓기듯 걷고있었다.

겨울과 봄이 함께 사는 계절이었다. 흰눈이 웅크리고있는 웅덩이우에 냉이꽃이 노랗게 피여있었다.

(괜한 소릴 해가지구... 내가 어찌자구 점점 이 모양일까?)

고개마루에서 현심은 거둬하여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직도 뜨거운 얼굴이다.

오늘아침 군에서 전화가 왔다. 머지않아 중앙농기계전시회가 열리는데 새로 창안한 기계가 있으면 알려달라는것이였다. 급히 기계화반으로 나갔다. 림옥은 없었다. 기계시험을 위해 나갔다고 했다. 가벼운 무한케도자리가 섰고개쪽으로 뻗어있었다. 그 자욱을 따라가는 길에 현심은 이사람저사람 만나게 되고 결국 벼모판씨뿌리기작업장을 돌아보는데 만나절을 보냈다. 섰고개밀 7만 3분조랭상모판에 다달은것은 하루해가 설핏해질무렵이였다.

이날따라 이곳 농장원들은 흥이 난 얼굴들이였다. 방풍장너머집에서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다. 그러고보니 고소한 기름냄새며 흥성거리는 분위기가 어느집과 달랐다.

《자, 날래 해치우구 용락이 색시구경이나 가자구요.》

《 좋겠다. 혈기좋은 청춘에 냉이꽃피는 봄철이라. 기나긴 봄밤이 왜 이다지 짧으냐.》

풍월조의 너스레에 이어 여기저기서 걸쭉한 덕담들이 쏟아져나왔다. 너인들도 곧잘 맞장구친다.

처녀들은 큰일날소리 한다는듯 눈을 핏기죽거리면서도 입가에 방글거리는 웃음만은 감추지 못했다.

산산한 봄바람이 떠도는 방풍장안에 때아닌 화기가 넘쳐흐른다. 땀을 철철 흘리며 연방 복토흙을 파올리는 사람, 들것채를 맞잡고 오리처럼 어기적거리며 내닫는 사람, 으쓱으쓱 어깨춤추며 고물개질을 하는 사람...

손발이 딱딱 맞았다. 일자리가 폭폭 났다. 확실히 여기에는 그 어떤 들리지 않는 가락이 있었다. 춤추는 무희에게 안땅이나 휘모리장단이 제격이듯이 육체노동이라는 룰동에는 《덕담》이라는 장단이 제격인것 같았다. 그것으로 해서 단조로운 팔다리의 운동에는 예술적인 매력이 부여되고 딱딱하고 고된 자연과의 싸움에는 달콤하고 향긋한 즙이 도는상싶었다. 자기가 여직껏 《점잖지 못한》것이라고 멀리하던 그것이 마치 잘 선 뺑반죽에 떨어진 중조마냥 생활을 부근부근하고 감칠맛있게 한다는것을 느끼기 시작한것은 언제부터였는지 그자신도 잘 모른다. 이제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는 어느덧 그 생활에 익숙되었을뿐만 아니라 매우 친숙해져있었다.

《용락동무 색시가 그렇게 곱대요.》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새말간 비닐박막뒤에서

처녀가 속삭이는 말이였다. 그와 박막을 맞잡은
녀인은 뚱뚱보였다.

《인물이나 고우면 뭘하니. 일을 잘해야지.》

《인물도 고와야지요 뭐.》

현심이가 참내했다. 그는 지금 분조장과 함께
파상너비를 재보고있었다.

《그래야 이 런포폴안이 더 환해질게 아니나
요.》

그는 두팔을 학의 날개처럼 벌리고 빙그로 돌
았다. 그에 따라 벌을 끼고앉은 썸산이며 자성산
이며 하는 조막같은 야산들이 곁따라 돌아갔다.
참말로 이 동화같이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처럼 인물도 꽃갈기만을 바라는 그
의 마음이었다.

사람들이 떠들썩 웃어댔다.

《에그, 관리위원장 욱심두...》

뚱뚱보녀인이 징치듯 법석였다.

《아무렴 인물맵시키구 현심관리위원장만한 녀
자가 또 있을라구.》

이렇게 되어 화제는 현심이한테로 돌아왔다.
나중에는 관리위원장은 언제야 국수를 먹겠느냐
는 소리까지 나왔다.

《자자, 일들이나 하자구요.》

분조장이 닭쫓는 시늉을 하지 않았던들 무슨
소리가 나왔을지 모른다.

현심은 어떻게 모관을 빠져나왔는지 알지 못했
다. 고개마루에 올라와서야 뒤돌아보니 웃음소리,
말소리가 여름강변의 아이들 뛰노는 소리같이 들
려왔다.

참으로 웃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웃을
일이 저리도 많을가. 일은 힘겹고 애로와 난관도
없지 않다.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그저 태연히
웃는다. 뭐나 다 수월하고 가능할뿐이다. 땅과 빛
과 씨앗만 있으면 걱정할것 없다는 배짱인것 같
다. 은연중 현심이한테도 그런 버릇이 생겨 우에
서 무슨지시가 내려오면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답해버린다. 방도는 그다음에야 찾아보게 되고
또 찾는것이다. 책에서는 이런것을 가리켜 《필요
성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정식화했지만 저 사람
들한테는 그런 리론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리론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하고있는것이
다.

소독탕크결에서 문득 앞을 막아서는것이 있었
다. 비탈발가는 기계였다. 그제야 현심은 자기가
림옥을 찾아떠났던 길임을 상기했다.

급히 돌레를 살펴보았다. 림옥은 우묵한 잔디
판에 팔베개하고 번듯이 드러누워있었다.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눈귀를 한껏 쪼프리고 하얀 이
새에선 잔줄거리는 미소가 흘러나온다. 머리말에
핀 파란조팝꽃이 유난스럽다.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부터 키득 하는 웃음이
솟구쳤다. 반가오싸다. 장난기가 살아났다. 발은

벌써 그쪽을 내짚는다. 허리는 고양이처럼 착 까
부라지고 숨소리는 쉼근거린다.

귀구멍을 간지럽혀줄테야!

길고 가는 풀대 하나를 낚시대마냥 앞으로 내
민 현심은 아득히 흘러가버린 장난바치시절의 계
집애로 돌아가는 자신을 아련풋이 느끼며 림옥이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한걸음, 한걸음만 더
...

발밑에서 삭정이가 딱 하고 부러졌다. 림옥은
튀기듯 일어났다. 위험할 지경에까지 다가온 현
심이를 멍하니 바라보던 림옥은 불시에 상체를
뒤로 체끼며 소리높이 웃었다.

제풀에 놀란것은 현심이였다. 풍당 주저앉은
그는 손바닥을 딱 마주치며 새된 소리를 질렀다.

《뭘예요? 여기서...》

그것은 오래간만에 자기를 드리낸 처녀 리현심
의 진짜모습이었다.

또 한바탕 웃고나서야 림옥은 넘적한 턱을 들
썩하며 《보십시오, 저 하늘... 얼마나 맑습니까.》
하고 중얼거렸다.

쳐다봤다. 가없이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송이
몇개가 가볍게 떠있을뿐이다. 날씨때문에 자주
쳐다보는 하늘에는 어제든 그제든 저런 구름이
떠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지금처럼 아름답지도
순결하지도 않았었다.

어찌된 일인가. 태양이 가까와서인가? 아니면
돌이서 함께 보는 자연이여서?...

《어릴 때 우리는 봄이면 이 등판에 자주와서
터티새를 잡곤했습니다.》

림옥은 새창에 딱장벌레를 끼워놓고 이 웅덩이
에 들어와 앉아 새창튀는 소리가 찰칵하기를 숨
막히게 기다리던 그 시절을 감회깊게 회상했다.
그때도 여기는 잔디가 이렇게 좋았다고 했다.

《한번은 아버지의 담배를 몰래 훔쳐가지고와서
피워봤지요. 쓰더군요...》

그날저녁 담배꽂이 없어진것을 알아낸 아버지는
아들의 종아리를 호되게 답새겼다. 저녁도 못
먹고 쫓겨난 림옥은 제때 두명과 함께 다시 이
웅덩이에 기여들었다. 바람은 쌀쌀하고 밑에 잔
강냉이짚은 폭신한데 하늘의 못별은 계집애들처
럼 새실새실 잘도 웃었다.

다음날아침 따스한 이불밑에서 잠을 깬 림옥은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머니
한테 간밤의 이야기를 했다.

《원 애두. 꿈을 꾸게로구나!》

어머니는 웃으며 여느때없이 닭알지짐을 듬뿍
이 지저 그의 앞에 놔주었다.

《썩 후날에야 나는 그날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찾아 얼마나 헤맸는가를 알았습니다. 군
대에 나가서도 이 언덕은 늘 고향의 향기처럼 가
슴속에 그려지더군요...》

이 동산과 관련된 그의 추억에는 끝이 없을상

싶었다.

고향이란 그런 곳이다. 그곳 도시에 가면 현실이 한테도 그런 추억이 수없이 많다 명절날 부모님 손잡고 거닐던 강안유보도며 넘어서 무릎이 깨졌던 그네터...

허나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 여기에는 다만 그의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그 《현재》가 마련된 동기는 매우 순진한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학교 높은 학년때의 어느 봄날 그들은 교외에 있는 농장에 농촌지원을 나갔었다. 강냉이영양단지를 옮기는 일을 했다. 일은 힘겨웠으나 대신 풍요한 자연이 소녀를 현혹시켰다. 여기서는 높은 산과 넓은 들을 파랑게 장식하는 나무와 풀잎을 제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었고 책이나 영화에서만 듣던 중다리 울음소리를 목을 젖히고 하늘을 쳐다보며 싶도록 들을 수 있었다. 검누런 흙은 또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가. 땅을 파고 물을 주면 야들야들한 잎새를 쳐들고 가볍게 춤추는 깜찍한 강냉이모에서 팔뚝같은 이삭이 달린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으리만치 신기했다. 현실은 여름내내 그 강냉이를 그리워했다. 얼마나 컸을까? 정말 강냉이가 달렸을까?...

그후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농업대학에 갔다. 하여 오늘의 이와 같은 《현재》가 마련된 것이다. 비록 높은 이상을 안고 내디딘 걸음은 아니지만 그 우연한 첫걸음이 가져다준 《현재》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어린 시절》만 못지 않다는 것을 그는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얼마전이었다. 어머니가 몹시 앓는다는 기별이 왔다. 현실은 한달음에 달려가보았다. 어머니가 앓는다는 것은 공연한 소리고 좋은 흔적이 나졌다는 것이었다. 만나봤다. 총각은 나무랄데 없이 똑똑하고 잘 생겼다. 의학대학을 나와 어느 방역기관에서 일한다는데 그는 농사일의 중요성과 농장원들의 수고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다.

현심이가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자 그는 오히려 얼굴을 붉혔다.

《중요한 거야 아는 것이 아니지요. 나한테는 현실 동무와 같은 용기가 부족하답니다... 농장을 떠나오기가 조련치 않겠지요?》

현심은 고개를 숙이고 애꿎은 손가락만 비틀었다.

총각을 멀리까지 바래주고 돌아온 딸의 어깨에서 눈을 털어주며 어머니는 은근히 물었다.

《어떻니?》

현심은 한숨을 푹 쉬고 나서 말없이 침대에 몸을 던졌다. 흥떡이는 침대의 파동에 몸을 맡긴채 현실은 마음속으로 빌었다.

(현심, 제발 마음만은 흔들리지 말려무나.)

끝끝 허를 차며 머리맡에 와 앉은 어머니가 칠칠한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허나 그 애무도 그의 마음을 달래 주지는 못했다. 현실은 어머

니를 부르며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그 품에 파고 들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떠나올 수 없는 그 고장과 그 고장 사람들에 대해 두서없이 중얼거렸다. 아 투박하고 무뚝뚝한, 그러면서도 독배기의 장맛처럼 푸수한 그들 하나하나가 어쩌면 이다지도 살뜰하게 안겨오는 것인가.

《어머니, 난 피로워요... 그 동무가 날 건방지다고 욕하겠지요?》

《총각이 네 맘에 들었던 모양이구나!》

현심은 응석부리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차라리 맘에 들지 않는 총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괜히 너를 오라구 했는가보다. 벌써 농사꾼이 다 된 아일 가지구...》

어머니는 심란해서 중얼거렸다.

《그렇게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은 딸의 마음속까지 환히 들여다볼 줄 아는 어머니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이었다.

《고마와요 어머니.》

현심은 어머니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목메여 부르짖었다. 달콤한 유혹을 이겨낸 자신이 스스로 생각에도 장해보였던 것이다.

고향에서의 하루는 답답하고 무료했다. 창밖을 내다보면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는 가로수가 흰눈을 소복이 들썩쳐 서있고 거리에 나서면 화려하나 생소한 사람들이 걸는 한번 팔지 않고 그의 곁을 지나갔다. 일감을 찾아보았으나 할만한 일감도 없었다. 손발이 편안한 것이 이렇게 피롭다는 걸 현실은 처음 깨달았다.

딸의 거동을 민망스레 지켜보던 어머니는 그를 청량음료점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는 창턱에 쌓이는 흰눈을 바라보며 얼음보이를 먹을 수 있었다.

《야. 우리 사람들한테도 이런 걸 먹었으면...》

달고 시원한 것이 목젖너머로 스르르 넘어가는 순간 현실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두엄생산에 바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마을에 돌아오자 현실은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일부터 의논해 봤다. 이왕 관을 벌려놓을바엔 빨래집까지 차려놓자는 그의 말에 사람들은 싱글벙글 웃기만 했다. 반대한 것은 우길섭이뿐이었다. 기본생산시설도 아닌 그런 것에 품을 들인다는 건 탈선이라는 것이었다.

현심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결의 사람들이 야단쳤다.

《이사람 길섭이 자네 퇴약벌 아래서 김을 매봤나?》

《저 친구 마누라한테 일러줘야 해. 당장 저녁 두 못 얻어먹구 쫓겨나게 시리.》

《합시다. 우리 애들이 알면 얼마나 좋아하겠

소.》

기제는 벌써 제작이 끝나가고있다. 머지않아 4월의 명절에는 첫 시제품을 뽑아 유치원아들과 농장원들에게 먹일 계획이다.

마을에 새로운 그 무엇이 생길적마다 사람들은 더없이 좋아하며 현심의 수고를 치하했다. 그때마다 현심은 아들이 아버지의 인사를 받은것만치나 황송해했다. 자기야말로 부러운 나머지 몇마디 말이나 했을뿐인데 손발이 닳도록 애쓰며 자기의 꿈을 현실로 꽃피워준 사람들이 도리어 고맙다고 하지 않는가.

순박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제는 이 땅에 소중한것이 너무나도 많아졌다. 이제 문득 이 모든것과 헤어지게 된다면 현심은 아마 목놓아울것이다.

아, 너자의 행복이란 꼭 정든것과의 작별속에서만 꽃피나는것일까?

끝없는 상념속에 잠긴 현심은 자기의 두눈이 축축하게 젖어드는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눈을 림옥이기 몰래몰래 훑쳐보고있다는것도 알지 못했다.

문득 림옥이가 허리를 꼴꼴이 펴며 일어섰다.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나봅니다. 봄철이다보니...》

그의 거동에는 어느덧 제대군인의 팽팽한 탄력이 살아있었다.

《아, 아니예요. 재미있게 들었어요.》

쌀쌀하게 대꾸하며 따라 일어서는 현심의 몸에서도 관리위원장의 기품이 느껴졌다. 지금 그는 불쾌감을 애써 누르고있었다. 제말만 말이라고 떠벌이고는 엉치를 툭툭 터는 이런 사람을 진종일 찾아다닌것이 어이없었다. 다들 웃고 노래하는 오락회에서 지명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일어서는듯한 기분이랄까.

(하긴 사업상용무로 찾아왔던것이니까...)

《림옥동무, 오늘 아침 군에서 전화가 왔는데...》

마침내 현심은 똑바로 서서 림옥을 쳐다봤다. 엄정한 그 눈빛앞에서 덩치 큰 사내는 순식간에 부동자세를 취했다. 현심의 말을 들은 림옥은 벌쭉 웃었다.

《해야지요.》

대답이 너무 수월하다. 미덥지 않았다. 그 기미를 느꼈는지 림옥은 뒤덜미를 문지르며 《저두 이제 대학생이 아닙니까.》 하고 웅얼거렸다.

그렇다. 그도 이제는 농대통신생이다. 저러다혹시 청춘시절을 다 보내지 않을까?

당치않은 걱정이라는 생각에 쫓기면서도 현심은 저도 모르게 그의 신발을 굽어보게 되었다. 고운흙이 묻은 새 신발에는 이미 기름얼룩이 없었다.

(어마. 발두 꽤나 크네!)

그것은 림옥에게서 발견한 또하나의 새로운 면모였다.

그날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바람에 우는 문풍지소리를 들으며 현심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머지 않아 꽃이 피겠구나... 장차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4

요즘도 현심은 하늘을 쳐다보군한다. 그때마다 그는 파수원잔디관에서 바라보던 하늘을 그려보는것이였다. 웬일인지 그날부터 하늘은 늘 아름다웠다. 지어 구름끼고 바람부는 날에조차 그것대로 아름답게 느껴지는것이였다.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모내기총화모임에서 돌아오는 지금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있었다.

들쭉날쭉한 지평선위로 불같은 노을이 타고있었다. 창공을 향해 치솟아오른 형형색색의 구름들은 거대한 불기둥을 형성하면서 누리를 하나의 색깔로 물들였다. 바람을 받아 룡트림하는 화염같았다.

저러다 온 별판을 짱그리 태워버리지 않을까?

아닌게아니라 논벌은 쇠물처럼 끓고있다. 그 섬급한 색깔에 비해 오종종 줄지어선 벼포기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냘파보였다. 붉은 하늘 붉은대지사이로 왁새 한마리기 날고있었다. 불은 그놈의 날개에서도 번쩍거렸다. 꺾 쓸쓸해보였다. 자신의 외로움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가 현심은 때없이 찾아드는 외로움에 시달리고있었다. 그것이 나이찬 처녀의 가슴속에 지퍼진 불때문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현심은 여간 놀라지 않았다. 빨라 3~4년후의 일로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급히 닥치다니!

이미 그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었다. 스무살을 쳐다보는 대학입학초기의 일이었다. 그때의 불은 초원에 불는 불처럼 참으로 맹렬했었다. 하지만 지향은 없었다. 그저 바람부는대로 마구 내달릴뿐이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 보다 원숙해진 처녀 리현심의 가슴속에 다시 지퍼진 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타들어가는 겨불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지속적이고 지향이 명백했다. 따라서 외로움의 첫 파도가 들이닥쳤을 때는 그 자신도 그 까닭을 몰랐었다. 마침내 자기가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것을 깨달았을 때 문득 떠오른것이 림옥의 얼굴이였다.

무슨 일이야?!... 어마. 내가 어찌자구...

처음에는 자지러지도록 놀랐고 다음은 당황했다. 아니라고,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강경히 부정

해보았으나 허사였다. 치면 칠수록 더 넓게 퍼지는 것이 불인 것처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림옥이었다.

그의 무엇에 반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전부가 훌륭하게 느껴졌다. 지어 심술스럽게 오른쪽으로 약간 찌글찌글한 두툼한 입술까지도 남성다운 그의 기질을 보여주는 듯했다.

현심은 핑계를 만들어 종종 작업장에 찾아가보곤 했다. 림옥은 태연하고 정중하게 그를 대해 주었다. 깍듯이 《관리위원장동지》라고 그를 존대해 불렀고 그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룡담세고 활동적인 그의 이와 같은 태도는 현심의 기분을 자극했다. 우정 저러는 거야, 끌려주느라구...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돌아오는 길에 현심은 매번 눈두덩을 내리깔고 입술을 감쳐물곤 했다.

어느날 저녁 무렵 우길섭이 한테서 전화가 왔다. 며칠째 시험작업을 하던 비탈밭 가는 기계가 돌부리에 보습날을 저는 바람에 리대편을 모조리 끊어먹었다는 것이었다.

현심은 송수화기를 귀에 댄채로 고개를 돌려 창문밖 멀리를 바라보았다. 여기서는 기계가 가 있다는 밤나무결이 뻥히 건너다보였다. 모든 나무들이 앞을 다투어 꽃피고 잎피는 때에 유독 거기서만은 여전히 잠자듯 침울한 겨울빛이 떠돌았다. 그 침울한 기분을 가시려는 듯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필 바쁜 대목에 그렇게 됐군요.》

현심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밤 밤나무결에서는 밤새껏 모닥불이 났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현심도 온밤 사무실창문가를 지켰다. 아직도 밤이면 서리가 하얗게 내리는 계절이었다.

밖에서 얼마나 추울까. 내가 괜히 우는 소릴 했다니까...

현심은 몇 번이고 문밖을 나섰다가 돌아서곤 했다. 자기가 나타나면 그가 더 우쭐해질 것만 같았던 것이다.

(하긴 요즘 두엄실이하느라구 밤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라구... 하지만 추울거야...)

날이 밝자 그는 서둘러 밤나무결로 건너갔다. 수리를 끝낸 림옥은 발을 갈고 있었다. 발을 갈며 노래를 불렀다.

...

수령님 주신 방에 봄이 오며는

하늘로 올라가라 발같이 노래...

...

기계의 진동으로 가느다랗게 떨리며 높이 울리는 그의 노래소리는 아침하늘의 종다리소리마냥 랑랑하고 멋스러웠다.

뚜껑을 잡아제긴 땅에서는 뽕안 김이 피어올랐다. 벌레를 쪼아먹으려 모여온 새들은 그의 두리

를 환희롭게 날아돌며 대륜무를 펼쳐놓았다. 그 속으로 걸어가는 림옥은 하늘나라의 신선같았다. 아니, 자연을 길들여 자연의 시중을 받으며 자연궁전을 거니는 자연의 왕자같았다. 참으로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듯한 저와 같은 상징적인 형상은 도시에서는 물론 어느 예술가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심은 안다.

그날 아침 림옥은 현심이가 들고온 빵을 맛있게 씹으며 처음으로 피곤하다는 말을 했다.

《좀 쉬세요.》

꺼멓게 꺼진 듯한 림옥의 눈화를 바라보며 현심은 가장 상냥하게 말했다. 이사람도 피곤에 지칠 수 있다는 것이 왜 이다지도 기쁜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로부터 두달이 지났다.

림옥은 요즘 주행부분에 무한궤도대신 유압식 다리를 만들어붙이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15도까지의 경사지발을 갈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그의 결심이었다. 오늘도 조립을 끝내고 시험운전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다.

관리위원회에 들어선 현심은 전화로 기계화반부터 찾았다. 그러는데 곁에 앉아있던 창고장이 문득 생각난 듯 《참 림옥이가 다친 것 아니까?》 하고 뻥히 쳐다보았다.

《다치다뇨?! 무슨...》

현심은 너무 놀라 송수화기를 놓는다는 것이 잉크병 위에 올려놓았다. 그 바람에 잉크병이 땅에 떨어져 박산이 났다. 창고장은 바빠맞았다. 유리조각을 줍는 다 걸레질을 한다 하며 부엌에 변명했다.

《큰 사고는 아니고 다리가 좀... 처치가 끝났을 텐데...》

병원쪽을 기웃이 내다보기도 했다.

현심은 아무말없이 병원으로 건너갔다. 마침 림옥이가 병원문을 나서고 있었다. 우길섭이 곁에서 부축했으나 봉대감은 다리가 땅을 짚을 적마다 그는 몸을 기우뚱거렸다.

현심은 가슴을 움켜잡으며 못박힌 듯 서버리고 말았다. 림옥의 전체는 깡그리 무시되고 허연 다리만이 눈앞에 가득찼다. 곁에 놓인 긴 의자에 주저앉은 림옥은 거기에 상한 다리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현심이를 향해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 한번 다녀와야겠다고 똥판지같은 소리를 했다. 그를 안심시키려는 것이 분명했다.

우길섭이 상한 경위를 설명했다. 유압피스톤이 제멋대로 작용하면서 기계가 굴러났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현심이가 상한 부위를 가만히 어루만지자 림옥은 전기에라도 낡은 듯 다리를 가늘게 떨었다.

《아파요?》

림옥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허나 실은 아프다는 감각보다 흠족하고 유쾌한 감정이 더 우세했다. 땀나게 넘어진 아이가 용타고 추어주는바람에 으쓱해서 뛰쳐일어나는것과 비슷한 슯기라할가...

(미련둥이. 우둔쟁이... 기계가 굴러나도록... 제 몸 상할줄을 왜 모를가.)

설음이 북받쳐올라 현심은 얼른 일어서고말았다.

사무실에는 창고장이 그냥 앉아있었다. 뭔가 끄적이다가 이상한 눈초리로 현심을 쳐다보았다. 되돌아나왔으나 갈곳이 없었다. 잠시 복도에서 서성거리다 찾아간곳이 경비실부엌이었다.

아, 이런 때 집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현심은 아궁앞에 쪼그리고 앉아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놀란듯 쾅한 유리창문이 묵묵히 처녀를 지켜보고있었다.

5

무거운 쇠불이가 든 배낭을 지고 열차에서 내렸을 때 림옥은 앞을 막아서는 현심이가 자기를 마중나왔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회의왔었습니까?》.

《회의도 있구... 이제 그 유압식다린가요?》

현심은 자전거뿔프처럼 생긴 쇠불이를 꺼내보며 좋아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들은 배낭끈을 맞잡고 표반는곳으로 향했다. 걸으며 림옥은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 갔던 이야기를 했다. 다 잘됐다고 했다. 성공의 문어구에 확고히 이른 그는 좀 흥뜬 기분이였다.

《이제 보십시오. 우리 기계화반 <진렬장>의것들을 전부 별판에 내다세우겠습니다. 일을 해야 기계지요.》

《개조하세요. 그럼 나는 우리 농장의 모든 논밭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겠어요. 늦어도 5년안으로... 그달에는...》

《거짓말 마십시오. 그때까지 그냥 있겠습니까?》

《왜요? 쫓아내겠어요?》

그들이 웃으며 역을 나서자 거기 자전거우에 웬짐이 또 하나 있었다. 성냥을 샀다는것이였다. 현심이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새 집구경을 가야 할텐데...》

림옥은 처음 무슨 소리가 했다. 잠시후에야 그 뜻을 깨닫고는 큰소리로 웃었다.

《아니 <관리위원장님>도 그런 봉건을 믿습니까?》

머들썩 고아대는바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현심은 몸둘바를 몰라했다.

아무튼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였다. 어찌다 도

시물림의 이 처녀가 이다지도 속속들이 농촌의 세태적인 관습에 물젖어버렸는지 알수 없는 일이였다. 유쾌했다. 필경 그 유쾌한 기분이 림옥이로 하여금 무모한 강행군길에 나서도록 부추겼는지도 모른다.

《산보도 할겸... 우리가 언제 이렇게 걸어보겠어요.》

사뭇 두눈을 새물거리며 내놓는 현심의 제안에 선뜻 응해버렸던것이다.

쇠불이는 자전거에 싣고 성냥은 현심이가 들었다. 그리고는 좀 질러간다는 여위천제방뚝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해는 뉘엿뉘엿 지평선너머로 잦아들고있었다. 모살이가 한창인 논에서는 고랑이 메게 벼숲이 우거졌다. 가늘고 긴 두사람의 그림자가 엄청나게 먼 동쪽포전 벼포기우에서 구물거리고있다. 현심은 벌써부터 축 늘어지는 성냥보통이를 이쪽저쪽으로 자주 옮겨쥐며 종종걸음으로 따라온다. 그때마다 림옥은 뒤돌아보며 걱정스러워했다.

《무겁지요?》

입은 그러하나 눈은 마냥 처녀의 얼굴을 살피고있었다.

오늘 그는 무척 아름다웠다. 미색 바지에 까만 소매짧은 셔츠를 입었을뿐인데 그것은 이 세상 어느 처녀도 따를수 없는 세련미를 나타냈다.

마을에서도 늘 저렇게 입지 않았던가. 수많은 녀인들속에 내다세운탓에 더 눈에 띄는것이 아닐까?

가득이나 소조원시절부터 《멋쟁이소조》라는 말을 듣던 처녀의 이와 같은 아름다움은 림옥이로 하여금 야릇한 위축감을 느끼게 했다. 늘씬한 키, 미출한 다리, 설렁한 목... 어울리지 않는것은 혹처럼 어깨에 둘러멘 성냥보자기뿐이다.

《좀 쉬어갑시다.》

마침내 림옥은 어느 한 수문옆에다 배낭을 내려놓으며 멈춰섰다. 현심이기도 섰다.

《무겁지요?》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자근자근 누르며 이번에는 현심이가 걱정했다. 손수건의 함박꽃이 낯익다. 림옥이도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레의 그 손수건이였다.

《아이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있군요.》

현심의 눈에 기쁨이 찰랑거렸다. 소슬한 저녁 바람에 그 녀자의 자분치가 살랑살랑 나뭇긴다.

《아직까지라니요. 두고두고 보면서 관리위원장 동무를 추억해야지요.》

림옥은 걸걸한 목소리로 웃었다.

불시에 현심의 눈까풀이 바르르 떨리더니 살뭇이 내리드리웠다. 그가 언짢을 때마다 나타내는 버릇이다. 그는 입술을 오무작거리며 뭔가 골똘히생각한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림옥동문 제가 가길 바라나요?》

《그, 그야 뭐... 무슨 재간에...》
《그럼 또 귀먹은 욱을 하겠군요.》
《욕이야 무슨... 으, 응당...》

림옥은 불현듯 현심이와 탁구치던 생각이났다. 어쩐지 그때처럼 피동에 빠진 자신이 화가 났다. 자기도 《처넣기》를 해야 할텐데 《공》을 손에 잡을 수 없는것이 안타깝다.

《자 또 갑시다. 타십시오.》

이번에는 둘이 다 자전거에 올라앉았다. 배낭은 림옥이가 앞에 걸쳤다.

자전거가 저녁바람을 헤가르기 시작했다. 여위 천물우에 한줄금 바람이 스치자 얇은 잔파도가 일었다. 번들거리는 물가에 웅크리고 앉은 하얀 그림자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낚시군들이었다. 그것은 어둠의 포근한 담요를 덮고 깊은 명상에 잠겨 하루의 피곤을 풀고있는 자연의 침상을 지켜선 초병들처럼 엄숙했다.

현심은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무슨 고향에 대한 노래였다. 노래소리는 가벼운 풍선처럼 천천히 떠오르면서 푸르른 달빛과 암청색 어둠이 어우러진 동쪽길로 살땃살땃 퍼져갔다.

기분이 좋았는걸! 하고 림옥은 생각했다. 허나 반대로 현심은 불안에 쫓길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오늘 오후였다. 기계화반장 우길섭이 자동차를 가지고 관리위원회에 왔었다. 림옥의 마중을 가졌다는것이였다. 현심은 단마디로 잘라치웠다.

《반장동문 빈차운행이 죄스럽지도 않아요?》

《...》

《그럴 시간이 있으면 논판에 가루비료라도 한 차 더 실어주세요.》

《옳지 않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

길섭의 눈꼬리가 길쭉해졌다.

《앙갚음을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오.》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것을 처음 보았다. 길섭이 짜개저라 문을 후려닫고 나간다음 현심은 창고에서 자전거를 꺼내가지고 읍으로 향했다.

이렇게 마련한 30리길이 지금 자전거바퀴 밑에서 빨리도 줄어들고있는것이다. 벌써 멀리 남산봉의 우중충한 봉우리가 보인다. 밤나무굴은 그보다 더 지척에 있다. 그 언덕만 넘어서면 마을이다. 참으로 맹랑한 《산보》였다. 차라리 우길섭이 나섰을 때 그냥 내버려둘걸 하는 후회도 났다.

《관리위원장동무.》

림옥이가 가만히 불렀다.

《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난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좋아합니다. ...뜨겁게 부를줄 알지요!》
《...》

《난 이제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가 떠난 다음의 마을은 펍 쓸쓸할거라고 말입 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였다. 지금 그자신이 성냥보자기를 들고가지만 현심이야말로 성냥같은 처녀였다. 자기와 한몸을 짱그리 태워 더 큰 불을 일으키는 일군,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이처럼 자기의 한몸을 아낌없이 태울줄 안다면 가뜩이나 밝은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밝아질것이며 생활에서는 또 얼마나 큰 변혁이 일어날것인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전변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올해 농장에서는 《1만톤농장》의 봉화를 추켜들었다.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 료원의 불길같이 일떠섰다. 과연 리현심관리위원장이 불씨가 아니란말인가!

《이봐요. 림옥동무.》

현심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느덧 개구리소리는 뒤로 멀리 물러가고 풀벌레 우는 소리가 비발치듯 한다. 길은 나무그림자들로 얼룩얼룩했다.

《난 요즘에 와서야 그때 동무가 열대도 못볼 나무에 두엄만 줄거라고 하던 말에 왜 대답을 못했던가를 알았어요. 뜨거운 사랑이 없었던거예요. 이 땅과 우리 사람들에게 대한...》

참다운 행복은 뜨거운 사랑을 바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말뜻을 나는 이제야 알것 같아요.》

《참 관리위원장동무두. 그걸 아직...》

《현심이라고 불러주세요. 현심동무 하고 말이예요.》

《예?!》

《저도 영영 련포땅의 주인이 돼야 할게 아니나요.》

말을 마친 현심은 가슴 울렁이는 두려움과 함께 먼길에서 돌아온듯한 홀가분함을 느끼였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왔고 처녀의 고결한 녀마져 기꺼이바치고싶어지는 이 땅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마지막대문을 그는 마침내 두드린것이다.

그것은 그대로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어 총각의 가슴, 바로 심장 한복판에 콕 들이박혔다. 림옥은 와플 놀라며 뒤돌아왔다. 그 서슬에 자전거가 모로 군드러졌다. 두사람은 산비탈 밋밋한 풀판위에 번듯이 나가넘어졌다. 맹랑한 웃음소리가 방울소리처럼 줄달음쳤다.

머리우 사슴뿔마냥 일기실기한 나무가지사이로 푸르른 달빛이 쏟아져내렸다. 밤꽃향기가 골안을 진동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밤꽃이 피었다는것을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할아버지와 손자

김릉래

채승호네 집은 가풍이 엄격했다.

올해 여든고개를 넘기고있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온후 나라잃은 민족이 당하는 수치와 설움과 고생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했다. 이 과정에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한다는 생활신조가 강해졌고 구에 따라 이악하게 삶을 개척해나갔다. 그래서 붓글씨와 주산을 가르치는 숙방을 하나 경영하는데까지 이르렀는데 이 《사립학교》가 채씨집안의 생명선이다.

할아버지가 늙고 로환으로 쇠약해지자 그 숙방은 지금 아버지가 운영하고있다.

채씨가문의 생의 터전을 마련한데다가 워낙 성미가 고정하고 엄한 할아버지여서 이 집안에서는 그의 말이 곧 법과 같다. 숙방에서 손을 떼고 놀고있지만 그의 권위는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 현재 가정일을 주관하는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처럼 가풍이 엄격했으므로 채씨네 집은 동네에서 《모범가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화목했고 평온했다.

그런데 조선고급학교를 다니는 둘째아들 채승호가 졸업을 앞둔 요새 할아버지와 아버지간에 의견충돌이 생겨 평온하던 집안이 좀 소란스러워졌다.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온 채승호는 할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노성을 듣고 깜짝 놀랐다.

《뭐가 어째? 내가 한번 안된다면 안되는것이 무슨 구구한 설명이냐.》

할아버지의 성난 목소리였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것이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꼭 할아버지와 의논하는데 할아버지의 견해를 존중했고 그 앞해서 매우 공손하였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성을 내어 소리치는 일이 있을수 없었다. 그렇다면 저 성난 목소리는 무엇때문인가? 어쨌든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견해에 엇서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인데 무엇때문인지 알수 없어 채승호는 불안해졌다.

할아버지의 고함소리에 기가 눌리웠는지 아버지는 한동안 조용하더니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웅얼웅얼 대답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가려들을수 없었다. 채승호가 겨우 얼어들은 말마디는 이런것이였다.

《승호의 뜻도 그렇고... 저도... 다시 잘 생각해... 아무튼...》 채승호는(그러니 나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 번뜩했다.

《뭐 다시 잘 생각해볼것두 없어.》

할아버지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일어서는듯한 기미가 보여서 승호는 옷층의 자기 방으로 급히 올라갔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고 학생복을 벗어 결상에 던진 승호는 침대에 큰대자로 누웠다.

(나때문예? 내 진로문제때문예?...)

아무래도 그때문인것 같다.

채승호는 형처럼 조선대학에 다닐 결심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아버지는 적극 지지했다. 총련분회사업에 열성이 높은 아버지는 둘째도 조선대학에 보내는것이 옳다고 여기고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반대하신다? 믿어지지 않았다. 말손자를 조선대학에 보낸 할아버지가 둘째손자는 왜 반대하겠는가. 더구나 할아버지는 둘째인 승호를 더 사랑한다.

《음, 거참 기특하군! 이 녀석이 크면 일을 치겠어. 우리 채씨집안의 자랑이야.》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엉뚱한 승호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자주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서 《꼭 나를 닮았거든!》 하는 말을 반드시 첨부하며 몹시 흠족해하였다.

《할배, 저건 무슨 새나?》

어린 손자는 하늘에 떠가는 비행기를 가리키며 묻는다.

《저건 쇠로 만든 새다.》

《해해... 저건 비행기야.》

손자는 알면서도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려고 물어봤던것이다.

《할배! 이것봐. 내가 썼어!》

손자는 할아버지가 숙방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붓글씨에 흥미를 느끼고 저 혼자서 종이우에다 쓴것을 내보였다.

채로인은 놀랐다. 거기에는 사람인자가 비슷하게 써여져있었던것이다.

채로인은 승호를 금이야 옥이야 하며 늘 옆에 데리고있었고 어렸을 때 글을 가르쳐주었다.

승호가 한번은 밖에 혼자 나가 놀다가 지나가는 자전거에 부딪친적이 있는데 그 일로 하여 승호의 어머니가 되게 경을 치르었다.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는것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채로인의 둘째손자 승호에 대한 애정과 기대는 이만저만한것이 아니였다.

...문을 여는 소리에 채승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좁은 방안을 한동안 서성거리다가 결상에 앉았다.

《승호야.》 이렇게 부르고 한동안 말이 없다.

《웁니까?》 승호가 안타까워서 재촉한다.

《너 일본대학에 가겠느냐?》

채승호는 얼떨떨해져서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 볼뿐 대답을 못했다.

《대답을 해야지.》

《아버지의 뜻인가요?》

《내 뜻이야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럼 할배가?...》

《어찌는수 없구나!》

채승호가 아까 할아버지의 성난 목소리를 들은 때 짐작했던 그대로였다.

자기의 진로문제를 가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심각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설복시키지 못한것 같다.

《난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한테 할배가 이역땅에 와서 겪은 수난을 자주 말씀하시면서 민족의 넋을 지키고 권리를 찾자면 조선대학에서 배워 장차 총련일군이 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나의 신념은 이미 확고해졌어요. 18살 청년의 굳어진 신념을 쉽게 굽혀낼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버지자신을 부정하고계시니 저는 더 자기를 지키고싶어요.》

승호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흥분하여 열렬히 부르짖었다.

아버지는 괴로와하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런데 글썄 너의 할배가...》

《할배도 그렇지요? 일본사람들한테 머리를 숙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지요. 그래서 형님을 조선대학에 보낸것 같은데 나를 제일 사랑하시면서 왜 하필 일본대학에 가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난 뭐가뭔지 통 알수 없군요!》

《너무 떠들지 말아. 나도 머리 아프다.》 아버지는 아들의 공세앞에서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짜증을 냈다.

《너 할아버지를 옳게 이해해야 해. 할아버지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된 생활신조를 말이다. 이역땅에 와서 갇은 수모를 받을 때 이놈의 땅에서 허리굽히지 않고 머리를 쳐들고 살자면 돈이 있어야한다고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씹어삼키면 결심을 하셨다.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남이 우릴 도와주겠냐. 돈이 힘이고 돈이 자존심이다. 돈이 있어야 조선사람도 떳떳하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신조인데 민족의 넋을 지키려는 굳센 의지가 거기에 깔려있으니 나는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된다. 할아버지가 만손자를 조선대학에 보내도록 승인한것만 보아도 알수 있지 않느냐?》 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하였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한테 걸고있는 희망은

총련일군이 아니라 기업이다.

네가 제일 똑똑하기에 채씨집안의 명맥을 경제로 이어가도록 하자는게다. 너한테서는 돈으로 가문의 대를 잇고 민족의 넋을 지키기를 바라는 거야.》

채승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다. 극도로 흥분한 그는 금시 눈물을 쏟을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아버지, 할배는 정말 생각을 잘못하셨어요. 내가 형보다 더 똑똑하다면 똑똑한 자식을 총련일군으로 키워야 하지요!》

《...》 아버지는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라. 너무도 대바른 소리가 아닌가.

《내가 할배에게 직접 말씀드리겠어요.》 승호가 이러며 막 나가려 하는것을 아버지가 가까스로 말렸다.

말씀드리도 후에 드려야지 지금은 안된다는것이다.

승호는 하는수 없이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다.

흥분을 누르고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니 함부로 덤빌 일이 아니었다.

자기자신뿐아니라 가정의 장래와 관계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채승호는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보았다. 할아버지의 생활신조에 공감이 가기도 했다. 일본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취직하면 지금보다 생활이 편일것이다. 할아버가 바라시는대로 할가! 할아버지를 설복시킬 힘이 없지 않는가? 그는 이렇게 동요하기도 했다.

이튿날 아침, 밤새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을 설친 승호는 오늘 어떻게 한다? 할아버지가 혹시 나를 부르면 어떻게 대답한다? 두루 이런 근심이 아침에도 계속되어 머리가 아팠다.

그런데 그에게로 편지가 왔다. 보낸 사람은 《김정호》였다. 누구더라? 아, 중급학교시절의 스승, 김정호선생이었다. 잊을수 없는 선생이었다.

2학년때 진급하여 담임으로 새로 맞이하게 된 선생인 김정호는 학생들앞에서 자기 소개를 하고 칠판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똑똑히 썼다.

워낙 엉뚱한 질문을 잘하는 채승호가 선생에게 물었다.

《선생님의 이름은 유명한 우리 나라의 지리학자 김정호와 같은데 왜 그렇게 되였습니까? 김정호와 같은분이 되라고 부모님들께서 지어주셨습니까?》

정호선생님은 빙긋이 웃었다.

《그런건 아니다. 내가 어떻게 김정호와 같은 유명한 사람이 감히 되려 하겠니? 우리 형제들의 이름이 <호>자 돌림인데 영호, 준호, 정호... 이렇게 짓다보니 우연히 지리학자와 일치된거야. 그렇지만 감히 견줄수는 없지만 영광으로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애국심을 따라배우기 위해 노

력하려 한다.》 교실에는 봄날의 따뜻한 해볏과도 같은 즐거운 웃음이 떠돌았다.

김정호선생은 말이 난김에 지리학자 김정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였다. 조선지도의 완성하기 위하여 한생을 고스란히 바친 민족의 자랑이고 애국자인 김정호의 이야기는 채승호를 몹시 감동시켰다.

선생님은 김정호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이어나가야 할 후대들이다. 애국심은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잘 알고 우리 나라 역사와 지리를 잘 아는데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학생들이 장차 김정호와 같은 애국자가 되기 위해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뜨겁게 호소하였다.

지난 일을 더듬어보며 채승호는 편지를 개봉하였다.

《사랑하는 제자 승호야! 너와 헤어진지도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청춘의 꿈을 안고 고급학교를 졸업하는 승호에게 옳은 진로를 선택해나가도록 고무해주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었다.

그것은 승호에게 신심을 주는 힘있는 필체로 호소성있게 씌여진 편지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승호는 용기가 막 솟구쳤다. 선생님은 어떻게 되어 그러한 지지와 고무가 꼭 필요할 때에 편지를 했을가.

채승호는 즉석에서 회답편지를 썼다.

그는 자기가 처한 심境的 환경부터 적어나갔다. 그는 자기의 향로에 암초가 가로막아나섰는데 그 암초는 다름아닌 할아버지라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민족정신보다 돈을 더 중시한다. 나는 1세동포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락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암초에 부닥쳐 동요한데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앞에 용서를 빈다. 《선생님》하고 승호는 썼다. 《이제는 결심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정면대결을 하겠습니다. 난관을 맞받아나가 그것을 제거하겠습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며 승호는 자기를 빅토르 유고의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마리우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와 사상적으로 대결하고 집을 뛰쳐나갔던 마리우스는 바리케트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몸이 점차 회복되어가면서 마리우스는 할아버지와 《결전》을 준비한다. 이 결전에서 그는 드디어 승리한다...

채승호는 아무때고 할아버지가 부르면 지체없이 할아버지앞에 나설것이며 자기의 신념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결전》을 벌릴것이다.

그는 할아버지를 공격할 가장 예리한 말마디들을 골라보았다. 그리고 벌써 승리한것처럼 흥분에 떠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정작 《대결》을 하게 되었을 때 사정은 좀 달라졌다.

할아버지가 마침내 그를 불렀다. 승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려고 애쓰며 할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골격이 굵직굵직하고 키가 큰 할아버지는 겉보기에는 아직 혈기있고 정정해보였다. 얼굴색이 늘 불기우리해서 더욱 그랬다. 하지만 80살의 노인이라 속으로는 이미 로환이 들어 침상에 누워 계시는 때가 많았다.

할아버지는 흥분으로 얼굴이 해쓱해진 사랑하는 손자를 이윽히 쳐다보며 팔걸이의자에 앉은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승호야, 네 이미 너를 일본대학으로 보내려는 내 뜻을 알고있겠지?》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알고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애무에 넘친 눈길을 피하며 승호가 대답했다.

《결심을 했느냐?》

《했습니다.》

《옳다. 그래야지.》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승호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뭐?... 그래 그게 어떤 결심이야?》

할아버지는 벌써부터 목소리가 떨렸다.

가풍이 엄한 이 채씨집안에서 유독 승호만이 할아버지와 그런 식으로 주저없이 말할수 있었다. 승호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있었고 할아버지도 승호의 응석만은 받아주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승호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크게 어긴적은 없었다.

승호가 자기의 결심을 피력하면서 할아버지가 생각을 잘못하셨다고 《공격》을 들이대자 할아버지는 꿈쩍하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했다.

승호는 눈을 번뜩이며 속에 맺힌것을 다 쏟아놓았다. 승호로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쳤다.

《썩 나가!》

할아버지는 숨을 거칠게 쉬면서 온몸을 떨고있었다.

무슨 말이든 하실줄로 알았는데 대뜸 나가라고 내쫓으며 숨을 헐떡이니 승호로서는 좀 당황해졌다.

《나가겠습니다.》 승호는 돌아섰다.

《이, 이놈!》

이렇게 웨치고 할아버지는 까무라쳤다. 집안에 소동이 벌어지고 곧 구급차가 달려왔다.

승호는 할아버지가 누워계시는 병원침대옆에서 하루 밤과 낮을 꼬박 보냈다. 자기가 할아버지에

게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마리오스를 본받는다 하던 오만무례하게 행동한 자기를 아무리 뉘우친들 이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자기의 피나 뼈를 바칠수 있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것으로 죄를 씻을수있으련만...

병원침대에 누워계시는 할아버지옆에서 보낸 하루, 그것은 피로운 자기 반성의 스물네시간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승호를 욕하고싶었지만 병원안에서 욕할수도 없고 또 승호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결을 조금도 뜨려 하지 않는것을 보고는 욕이 무의미하다는것을 깨닫고 잠자코 있었다. 오히려 승호더러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위로해야 할 판이었다.

형이 병원에 오면서 승호에게 방금 온 편지를 가져다주었다. 승호는 귀찮아서 보려고 하지 않다가 《김정호》라는 이름이 눈에 띄어 얼른 개봉을 했다. 편지내용은 승호를 질책하는 내용으로 가득차있었다.

마디마디가 뼈를 긁어내는것 같았다.

《너는 아직 어리구나. 그간 고급부를 다니며 뭘배웠느냐? 뭐, 할아버지와 정면대결을 하겠다? 할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승호! 네가 어쩌면 그렇게도 1세대동포인 할아버지를 모르고있단말이나. 나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김정호선생은 할아버지가 어떤 고생과 수치를 겪었으며 그속에서도 조선민족의 녀를 지키고 굽어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꾀곳이 싸워왔는가 하는 내용을 쓰고 할아버지께서 생각을 좀 짧게 할수 있는데 그것과 할아버지의 애국애족적인 본심을 구별해보아야 한다는것, 할아버지는 지금도 총련의 애국사업을 몰심량면으로 돕고있는분이라는것, 때문에 잘 말씀드려서 조선대학교에 승인받도록 하라는것 등 한조항씩 짚어가며 강조하였다.

채승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

한편 총련지부와 분회에서 간부들이 련이어 찾아와서 아버지와 그리고 병원의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수 있는가고 문의하였다.

채로인은 나이들면서 심장이 나빠졌었는데 이번의 타격으로 몹시 쇠약해졌다. 총련조직은 동포들에게 호소하는 한편 현본부와도 련계를 취하여 귀중한 보약들을 가져왔다.

문병을 오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았다. 동포들은 의사들의 엄격한 요구에 의하여 병실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찾아왔다. 채로인이그만큼 인망이 높았고 총련의 애국사업에 기여한바가 컸기때문이었다.

이러한 때 뜻밖의 경사가 생겼다.

채로인은 병상에서 팔갑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본인은 말할것도 없고 가족들도 한결같이 쓸쓸해오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실려오도록 한 장본인이라는 죄의식에 잠겨있는 승호가 그 누구보다도 더 피로와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한낮때였다.

총련중앙에서 간부동지가 한분 내려왔다.

그는 채로인에게 인사를 하고 건강상태를 알아본후 의사의 동의밑에서 간단하지만 대단히 의의깊은 의식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팔갑을 맞는 채영표로인에게 공화국훈장이 수여되었던것이다.

가족들과 담담의사, 분회일군들이 모인가운데 총련중앙에서 온 간부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낭독하였다. 채로인은 가족들에게 자기를 부축여달라고 부탁하여 상반신을 일으키고 정령을 들었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았다.

머칠 밤과 낮을 침대옆에 붙어앉아 보낸 승호는 할아버지가 잠이 들자 자기도 그만 침대 한옆에 머리를 박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갔는지?

무엇인가 뜨겁고 축축한것이 목덜미에 느껴져 놀라 잠에서 깨어나보니 할아버지가 일어나 앉아 계시는데 그 뜨겁고 축축한것은 할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이었다.

《할배!》 승호는 목메여 불렀다.

《오냐? 더 자거라.》

《아닙니다. 이제 거뜬해요. 그런데 왜 우십니까? 건강에 나빠요.》

채로인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괜찮다. 이런 울음은 건강에 좋다. 나는 네가 걱정이구나.》

채로인은 머칠사이에 관골이 솟아오르게 여원손자를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기특한 녀석...》 로인은 손자의 머리를 와락 품에 안았다. 《꼭 나를 닮았다니까!》 흐느끼며 말씀하였다.

그것은 둘째손자 승호를 칭찬할 때마다 뒤에 덧붙이곤하는, 버릇되다싶이한 말이었다.

《할배, 저를 용서하십시오.》

승호는 눈물이 나오는것을 어찌지 못했다.

《아니다. 애야!... 나는 네가 자는동안 너의 옛 선생한테서 온 편지도 봤다. 선생님은 너를 욕했다만 량심의 가책은 내가 더 받았다. 다들 얼마나 고마운분들이냐!》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몰아쉬고나서 이렇게 말했다.

《승호, 이제부터 모든일은 네 뜻대로 해라. 너는 다 컸다.》

승호의 기쁨은 하늘에 닿을듯하였다. 병원에서

되원하는 날 할아버지의 가슴에는 국기훈장이 해
별에 번쩍번쩍 빛나고있었다.

(충렬 조선대학교 문학부 4학년 학생)

교정의 백양나무

오재신

버릇처럼 창문을 열어젖히면
교문가에 솟은 백양나무
그 억만 잎새들이
기다린듯 속삭이며 다가서는구나
터질듯 부푸는 가슴에
너무나도 많은 사연 이야기하며

배움의 첫 종소리 울리던 날에
백양나무 너는
교문가에 뿌리내렸고
한창 젊은 나이에 나는
처음 교단에 섰지

가는 가지에 첫잎을 피우던 그날부터
얼마나 많은 세대와 세대가
너의 곁에 들어서고 또 떠나갔던가
창밖은 교실과 드넓은 운동장
한없이 넓은 배움의 길에서
꿈을 키워주던 그 나날이여

주체형의 피만이 끓는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걸음걸음 손잡아이끌어준 그 아이들
어엿이 자라 교문을 나설 때
그 기쁨 너는
해마다 년륜에 새겨두지 않았던가

첫 개학날 그들이 찍은 사진엔
네 모습 담겨있어
또 어디선가 그들도 네 모습 그려보며
즐거운 학창시절을 추억하리니
백양나무 내 잎새 네 아지 하나하나
못잊을 그리움으로 설레이는구나

아마 유치원의 낮은 문턱을 넘어
다시 정든 이 교문을 떠나갔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체제의 빛발아래
여기서 시작한 그 학과를 그들은 계속하리라
더욱더 넓어만지는 배움의 길을 걷고걸으리라

내 줄기에 이제 또 새 년륜이 늘어날 때
네 아지 네 잎새 더 무성해질 때
날과 더불어 해와 더불어
조국은 또 얼마나 부강해지랴

내 반백이 되도록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 그 길이
오히려 짧은것만 같아
처음으로 그 티없이 맑은 눈빛들과
마주서던 그 마음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는 백양나무
아 교정의 백양나무!

배움의 전당에서 만난 사람들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를 찾아서-

신경애

하늘에 태양이 있어 만물에 꽃이 피어나듯이 이땅 그 어느곳을 가보아도 당의 사랑 미치지 않는곳이란 없으며 그것이 생활의 꽃으로 피어나지 않는곳이란 없다.

풍치수려한 모란봉과 대동강을 옆에 끼고 혁명의 수도 평양의 중심에 웅장하게 일떠선 주체교육의 전당 **김일성** 종합대학.

사회주의 교육테제 발표 15돐을 앞두고 우리는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 종합대학 방문의 길에 올랐다.

주체교육의 새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유서깊은 대학의 본청사, 1호교사와 과학도서관, 푸른 하늘을 떠이고 높이 솟은 2호청사가 가까와올수록 우리의 가슴은 오래간만에 고향집에 들어서서 심정인양 끝없이 설레인다.

9월의 싱그런 바람결에 류달리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갖가지 꽃나무들, 사철 푸르려 무성한 나무들과 가는곳마다 《주체》, 《학습도 전투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등 화강석에 새긴 당의 구호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대학의 풍치를 한층 돋구어준다. 마치 한쪽의 립체적인 화폭을 련상시키는듯싶었다.

탐구의 열정에 불타 학우들과 학술론쟁을 벌리며 오가던 대학등교길, 웃고 떠들며 청춘의 아름다운 미래를 속삭이던 옛 교정길에 다시 오르니 추억도 새로웠다.

은빛승강기문이 열리는 소리에 추억의 깊은 상념에서 깨어나보니 어느덧 역사학부에 도착하였다.

학부에 첫발을 디딘 우리의 눈앞에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사회주의 교육테제를 빛나게 관철하자》라는 구호들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명제판이 심오한 뜻으로 안겨오고 복도중심에는 영예게시판이 놓여있었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끈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친필서한을 받아안은 **김일성** 동지혁명력사1강좌 교원들의 영예사진이었다.

첫눈에 이곳 학부의 교원들과 학생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비상한 탐구력으로 과학교육사업과 학과학습에 분투하고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안겨왔다.

남다른 영광과 행복감에 넘쳐 충성과 효성을 다하고있을 주인공들을 찾아 우리는 학부당비서의 안내를 받아 록음소리가 울려나오는 교실로

향했다.

방안에 들어서니 텔레비죤수상기에서는 1956년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천리마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이 력사적화폭그대로 펼쳐지고있었고 뒤이어 해당 사적자료와 그에 따르는 록음해설이 울리었다. 또다시 교원의강의가 이어졌다. 알고보니 록화기와 록음기가 설치된 록화강의실이었다.

참으로 놀라왔다. 왜 그렇지 않으랴.

몇해전 우리가 강의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교수방법이었던것이다.

놀라움과 찬탄, 그 연고를 알지 못해 어리둥절해있는 우리를 둘러보며 학부당비서는 조용히 말해주는것이였다.

《놀라실겁니다. 이 록화강의실은 사회주의 교육테제를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결실입니다.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협의회때마다 교원들속에서는 강의에서 록화물을 도입하자라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나 방도가 없는 제기이다보니 끝내 합의를 볼수 없었지요.

록화강의를 하는것이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었지만 교육현실에 도입하자면 설비와 자금 등 많은 애로가 제기되기때문에 주저하고 동요하는 축돌도있었고 그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교원들의 마음속고충을 헤아리시고 이 사업이 교육테제관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한고리라고 하시며 수령님의 혁명력사강의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록화강의를 대담하게 도입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종합대학은 우리 당의 정수분자를 키우는 전당이므로 교육설비와 학습조건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주어야 한다시며 수십차례에 걸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보내주시였습니다. 하여 오늘 **김일성** 동지혁명력사강의에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게 됨으로써 학생교육교양사업에서는 혁명적수령관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록화강의실에서 나온 우리는 학부당비서의 안내를 받아 **김일성** 동지혁명력사1강좌 교원실로 들어갔다. 대학, 학부 영예게시판에 소개된 교원들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김일성** 저작집》을 비롯한 각종 귀중한 문헌들

과 사전, 교수참고도서들로 꽉 차있는 서재를 둘러보던 우리는 한곳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우리 당 교육전사들에게 보다 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1992. 1. 24

김정일

이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친필서한이 우리의 시야에 안겨왔기 때문이다.

강좌교원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친필서한을 받아안던 그날의 감격을 더듬으며 우리에게 의자를 권하였다.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교육체제를 관철할 의무만을 지닌 교육자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바쁘신가운데서도 우리 강좌세포당원들이 올린 미숙한 편지를 끝까지 다 보아주시고 이렇듯 친필서한까지 보내주시었습니다. 우리 어찌 이런 영광을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육사상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사상가, 자애로운 스승이십니다.》

사회주의교육체제의 빛발아래 강좌가 걸어온 뜻깊은 나날들을 회고하는듯 강좌장은 추억에 잠긴 눈길로 우리를 둘러보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참다운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이며 우리 시대 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준 역사적문헌입니다.》

해방후 제일먼저 룡남산에 인민의 첫대학, 종합대학을 세우시고 매 시기 대학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1977년 9월 5일 우리 나라 교육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교육리론을 집대성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었다. 백과전서적인 사회주의교육강령은 모든 교원들과 학생들의 생명선으로, 좌우명으로 되었으며 교육체제를 관철하는 과정에 교수교양사업에서는 새로운 성과들이 창조되었다.

교원들의 성장, 교육에서의 혁명적수령관 확립, 교수내용에서의 당정책화,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의 끊임없는 개선 등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락동강전선까지 나갔다는 영예군인이며 오랜 로당원인 한 교원은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수령님의 배려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안고 다시 태어난 교원들중의 한사람입니다.

다. 지난날 가난에 쪼들리어 책가방을 메야 할 어린 나이에 품팔이지계를 저야만 했던 내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교단에서 오늘은 박사로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 한사람뿐이었습니까.

우리 강좌교원들모두가 다 학위학직소유자강좌로 될것을 절기하고 실천하던 나날들이 잊혀지지 않는구만요.

그때 일부 교원들은 소총명과 공명에 포로되어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자각하기에 앞서 순수 과학론문을 위한 논문발표에 급급해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수에만 치우쳐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지 못하고있었지요. 그러던 우리가 교육테제발표 15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학위학직소유자강좌로 될수 있는것은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할데 대한 위대한 교육강령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집필한 《주체의 혁명사적보존학》을 비롯한 17종의 학위논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전공과 학생들을 위한 과목들을 새롭게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최근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교수내용에 도입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새롭게 보충심화시키고있다.

우리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대학의 교수교양사업에서 일관한것이 바로 교육테제사상의 빛나는 구현임을 알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근년간 동명왕릉 고종문제를 비롯한 중요문제들이 나설 때마다 력사학부교원과과학자들을 부르시어 의논도 하시며 그때마다 교육에서 주체, 특히 사회과학과목을 주체의 원리로 일관시키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대로 폭넓고 깊이있게 배워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학교육은 단순한 지식교육이 아니라 사상교육으로 되어야 하며 특히 **김일성** 동지혁명력사과목은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언제나 교육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었다. 하기에 그 어느 교수안을 보아도 당정책화되지 않은 교수안이란 없었다.

당의 사랑과 세심한 지도속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 조국의 력사를 전공하는 교육자라는 긍지를 안고 한시간분의 교수안을 작성하고 한편의 글을 써도 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업적의 위대성을 인식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였다.

우리들중 한사람이 교원들에게 물었다.

《이번에 선생님들은 교육테제발표 15돛을 계기로 혁명적구조문헌책을 집필편찬하여 교수내용을 풍부화하는 성과도 거두지 않았습니까.》

서재에서 밤색표지의 두툼한 책을 꺼내며 그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였다.

《우리들중 그것이 특출한 성과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교육자로서, 역사전문가로서 응당 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까.

전국도처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담겨진 혁명적구호문헌들이 발굴되던 때 우리는 연구집단을 무어 현지에 나갈것을 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지에 나가 구호문헌을 원전과 대조하며 정확성을 확인했고 구호문헌이 발굴된 지점을 지도에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수없이 걸었습니다. 이렇게 1만 1천여점의 혁명적구호문헌, 귀중한 만년재보를 원전 그대로 지역별, 내용별로 편성한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구호문헌>을 만들었고 귀중한 혁명사적자료들과 이야기자료들을 수집하여 교수에 결부시키는 과정에 우리 교원들은 정치사상적수양을 높일수 있었습니다.

발전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기성리론에 기초한 교수내용과 낡은 교육방법의 틀에서 강의를 진행하던 우리들이고보면 교수교양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실천과정에 교육체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주의교육체제의 빛발아래 청년대학생들의 준박사, 박사 학위 소유자 대렬이 날로 늘어나고있는 현실은 교육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힘있는 론증이라고 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또 우리 교원들의 운명에 대하여 말하랴.

혁명의 원로들과 한자리에 나란히 세워주시며 교원들은 혁명인재들을 키워내는 직업적인 혁명가라는 가장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

평범한 세포당원들이 올린 충성의 선물도서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구호문헌》과 소박한 편지를 보시고 친필서한을 보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기에 **김일성**동지혁명력사1강좌 교원들의 심장은 용암처럼 뜨거운 충성의 열정으로 높뛰고있지않는가.

우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들의 《충성과 효성의 일지》는 천만마디의 말을 대신해주고있었다.

《1992년 1월 25일, 토요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나는 꿈만 같아서 세포비서선생과 다른 선생들을 붙잡고 몇번이나 되물었는지 모른다...

글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강좌 세포당원들이 삼가 올린 소박한 편지를 받아 보시고 친히 회답서한까지 보내주시다니...

읽어보고 새겨볼수록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다심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이 안겨오는 회답서한이었다.

당의 교육전사!

이 얼마나 영예롭고 고귀한 칭호인가.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사랑과 믿음을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교육체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일함으로써 먼 후날에도 당의 교육전사로 떳떳이 살아왔다고 긍지높이 말할수 있는 출신, 효자로 되겠다.》

이들의 심장의 고백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밝은 전망을 환히 내다보았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옳바른 교육정책이 없는탓에 교육이 엉망진창으로 되어갈 때 우리 사회주의교육은 얼마나 참신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던가.

세계적으로 인테리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에 의해 항방을 잃고 혁명의 명맥을 이어갈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란동을 부리고있을 때 사회주의교육체제의 빛발아래 주체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새 세대 청년인테리들에 의해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은 굳건히 이어지고있지않는가.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육체제의 위대성은 날이 갈수록 더 큰 생활력을 나타낼것이며 그것은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귀한 령도업적으로 하여 먼 후날에 가서도 영원한 교육의 대강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는 이 생활의 철리를 다시한번 심장속에 뜨겁게 감수하며 학부를 나섰다.

나의 모교

박성선

나의 모교는...

산이 높고 근심 많아 그늘깊던 내 고향에
장군님 사랑의 햇빛 따사로이 비치여
기쁨 안고 솟아났네 나의 모교는
양지바른 언덕아래 해방된 이듬해

대대로 까막눈이던 농군자식들을 불러
종소리는 울려갔네 력사에 처음으로...
키도 들쭉날쭉 까가머리 우리 글소경들이
여기서 눈을 떴네 하나같이 눈을 떴네

참으로 배우고싶은 세기적인 소망이
반만년에 드디어 꽃핀 학교는 화원인듯
글읽는 소리에 걸음 못떼고 눈물짓던 부모들도
밤깊도록 《학생》되어 우리에게 글배웠네

언젠가 할아버지 꿈속에서 잠간 보았다는
그 학교도 우리 모교만은 못했으리

항일의 그날 장군님 구상속에 있던
그 학교가 다름아닌 우리 모교였기에

전설속에 있다는 신선동이 행복도
우리처럼 그렇게 희망차지 못했으리
항일전의 20성상 장군님께서 그려보신
그 행복동이가 다름아닌 우리였기에

인류가 기원하던 절정에 솟은 학교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어준 사랑의 요람
에서 우리는 세상에 부럼없이 공부했네
에서 우리는 새 조선의 기둥으로 자라났네

아 어버이수령님 다함없는 사랑속에 일떠선
사랑의 교사 어머니품같은 나의 모교는
세기적인 숙망우에 솟은 배움의 요람
조상대대로 바라오던 희망의 푸른 하늘이었네

학우들에게

내 모교에 오니 더욱 간절해지누나
에서 함께 뛰놀던 학우들에 대한 생각
내 나이 들수록 더욱 그리워지나니
이제 한번 다 모일수는 없을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싶구나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싶구나
이젠 여기서 헤어져 30여년
이 교실에 모이면 얼마나 유쾌하랴

그 친구는 로력혁신자... 그는 군관...
또 그들은 부부가 되어 원앙새처럼 산다지

내 소식 모르는 금순이며 대영이...
이제 만나면... 웃음소리 높아지리...

맨앞에 앉던 꼬맹이가 전보대같이 크고
몸이 약해 까나리라던 그도 똥똥보 료리사라지만
모두다 제가 앉던 그자리에 앉게 하자
그리고 그날의 학급반장이 나서게 하자

달같이 환하던 담임선생님의 얼굴도
이제는 칠순이 됐으니 주름살이 많으리
지팡이를 짚고 교단에 나서도 좋구나
그날의 그 목소리로 이름만 불러준다면...

우리는 조국의 가장 어려운 나날에
수령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세대
하나 아직 나처럼 이렇다할 공훈을 못세워
마음 조이며 저녁길 다그쳐가는 벗들도 있으리...

아 그리운 벗들아 한번 다 모이면 좋겠구나
여기에서 그날처럼 새롭게 출발한들 어떠리
학우들아 우리 걸음이 조국의 걸음이 되고
우리 위훈이 조국의 위훈이 되게 살자!

시험점수에 대한 생각

내 이 교문을 떠난 그때로부터
멀리 조국방선과... 로동현장...
머리를 들고 남과 같이 다니었건만
예 오니 머리가 저절로 숙어지누나

나는 솔직히 공부보다 장난질이 더 좋았고
성적증엔 선생님이 힘들게 쓴 《3점》
그 《기러기》가 널리리 줄을 지어
학년과 학년을 어느새 넘어갔나니

그날엔 부끄러워 고개를 못들었노라
선생님앞에서 ... 부모앞에서...
하늘의 해빛은 그리도 밝게 비치고
희망으로 하늘땅은 가없이 펼쳐졌건만

먼지투성이 발끝에 눈길을 준 나를 두고
담임선생님은 생각도 많으셨으리

한평생 머리 못드는 3점짜리 사람되면 어쩌랴고
그때문에 달빛 밟으며 집을 찾아 배워주셨으리

그때문에 내 혼자 푼 단순한 숙제를 두고도
그토록 기뻐 고개들도록 내세워주셨으리
그때문에 하던 된다고 바로 그렇게 하라고
신심을 안겨주며 가르쳐주셨으리

내 이젠 철부지 그 시절과 함께
그 《기러기》떼를 영영 날려보냈노라
깊은밤 선반기를 홀로 돌리어도
《5점짜리》 합격제품만을 만드노라

내 다시야 고개를 숙이고 살라
모교여 두고보라 내 한생을...
매사에 5점만을
삶의 자옥처럼 수놓아가리라

나의 담임선생님

그처럼 따뜻이 돌봐주고 키워준
내 어머니를 못잊듯이
잊지 못하네 단발머리 녀선생
중학시절의 나의 담임선생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나시고
우리를 위해 늘 학교에만 계신듯
우리를 위해 항시 마음 쓰시고
우리를 위해 한생을 보내신듯

우리가 그 무엇을 물어보아도
웃으며 어느때든 대답해주셨으니
우리 담임선생님은
이 세상에 모르는것 하나 없으신듯

우리가 운동장이 좁다하게 뛰어놀제
누나처럼 함께 즐기며 손잡아 이끌어주셨네

우리 크는것 좋아라 가는 세월도 잊으신듯
출가조차 늦어가신 담임선생님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역군이 되라고
가슴속에 아직 이는 그 말을 남겨주셨네
뒤떨질세라 애지중지 돌봐주시더니
졸업할 땐 눈물이 글썽해 오래도록 바래주셨네...

우리 이제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가?
생일마다 싱싱한 꽃을 안고 찾아갈가
우리때문에 남모르게 일찍 회여졌을
그 흰머리카락을 물들여 검게 해드릴가?!

그러면... 오히려 마음 서운해하시리
우리 학급 마흔한명이 다 역군이 되어
어느때든 《선생님》 소리쳐부르며 나설 때
아 선생님은 기뻐 웃으시리 울으시리...

사랑의 계단에서

오, 이 계단이구나 이 계단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학교에 오신 날
꿈같이... 수령님을 모시고 몸가 가까이 모시고
우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곳이...

열두개... 오르면 내 공부하던 교사요
이 계단 내리면 뛰놀던 운동장이라
한없이 자애로운 영상 숭엄히 안겨오는곳
어디 가나 마음속에 있는 이 계단

내 자그마한 두발이 짊었을 그자리에
삼가 옷깃을 여미고 다시 서보노라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솟음처
아버이수령님! 마음속으로 불러보노라

불러보노라 뜨겁게 불러보노라
아버이수령님!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어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시던 우리 수령님

전후라... 할일 많고 갈곳도 많으셨건만
가까이 왔다가 만나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섭섭해한다고 찾아오신 수령님
한생을 두고 못잊을 사랑 베풀어주셨나니

계단은 낮아도 행복의 절정에 있구나
그날부터 영광의 상상봉에 치솟아있구나
온 세상이 우러러바드는 인류의 태양
그분을 모신 이 경사 무슨 말로 다 노래하라

먼 후날 하늘로 오르는 계단을 물으면
바로 이 계단이라고 소리높이 말해주리
태양과 함께 사는 전설이라면
다름아닌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 말해주리

아 계단... 인생의 머나먼 삶의 끝까지
충성과 효성의 자옥자옥으로 오르고 오르라고
여기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구나
언제나 수령님 몸가까이에 세워주는 계단이여!

포옹

-범민족대회의 나날을 더듬어-

북이라 남이라,
거치른 이역의 하늘밑에서도
꺼질길 없던 민족의 넋을 안고
구름같이 모여와
꿈같이 만났구나

만나니 너무도 기뻐서
만나니 너무도 반가와서
울고 웃으며 오열을 터뜨린다
그리움에 피태워온 가슴들이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놓을줄 모른다
놓으면 다시 못만날듯

못속여
피줄은 못속이여
한혈육 한형제 한민족임을
통절히 느끼며 가슴을 두드린다
혀를 깨물어 깨물어
피같은 눈물을 삼키며 웨친다
《조국통일》, 《조선은 하나다》

나라가 해방된 이날
나라가 분단된 이날
분열과 비애의 고행을 거쳐
오늘의 만남을 이뤘으니
어찌 눈물이 없으랴

어찌 웃음이 없으랴

거치장스런 통역이 필요 없고
까다로운 레식이 따로 없는
혈육의 이런 만남이
형제들의 이런 사랑이
진정 통일이여
네가 아니더냐

놓지 말자
우리 놓지를 말자
그리움에 타는 세월을 넘어
애끓는 소원의 고개 넘어
서로서로 마주잡은 그 손과 손을
서로서로 끌어안은 그 가슴들을

불러서 웨쳐서 올 통일이 아니기에
소원으로만 남아있을 통일이 아니기에
겨레여 동포여 형제여
마주잡은 그 손으로 철조망을 들어내자
끌어안은 그 가슴으로 장벽을 밀어내자

응혈진 겨레의 가슴들에
민족의 피줄기가 흐르게!
끊어진 삼천리 강토에
통일의 피줄기가 흐르게!

신지락

사랑의 권리

강선규

(전호에서 계속)

3. 못잇을 사랑의 군상

연희선생에게서 받은 가슴아픈 충격은 나에게서 잠을 말끔히 빼앗아가버리었다.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잡념을 잊고 정열을 쏟아야 할 사람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리익을 주지 못할 가정적불안에 심혼을 얹히워 몸부림하고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하고 허무해보이기도 하였다.

간혹 생활하는 과정에 부부중 어느 한 사람의 사랑에서 와류가 형성되어 이러저러하게 말밭에 오르고 가정적인 경난을 겪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이해할 문제이고 연희선생의 경우는 그런류의것이 아니었다.

왜 그럴까? 누구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것일까?

그의 질문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되는것은 남편이나 시집에서 연희선생의 사회적의무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시부모를 비롯한 시집사람들이 제아무리 온당치 못하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남편만 마음에 든다면 서로 합심하여 어떤 해결책을 찾을수도 있지 않겠는가.

혹시 연희선생이 남편을 자기보다 모든면에서 못하다고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홀시하는데서 생긴 균열은 아닐까? 심분 그럴수도 있다.

가만 보면 대학을 졸업한 처녀들이 자기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꼭 마음에 들어 결심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과 표징을 다 갖추자면 보통이 아니다.

연희선생의 처녀시절 생각도 레외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사정이 각박하여 결혼은 했으나 지내보니 상대가 너무나도 기대에 어긋나게 부족한것이 많을수도 있다. 참 답답한 노릇이다. 살아보지도 않고 제마음에 드는 대상자를 어떻게 고를수 있단말인가.

유일한 방도는 사랑할줄 아는데 있다. 사랑의 감정만이 그 모든것을 대신할수도 있고 보상할수도 있으며 그런 높이에 올라서도록 고무하고 추동할수가 있는것이다. 바로 그래서 연애를 모르

고 만난 부부는 함께 살면서 연애를 한다고 하는것 같다.

나는 똑똑하고 고상하게만 보았던 연희선생이 지나치게 리상과 요구성만 앞세우고 사랑은 모르는 녀성이 아닌가 하는 의문속에 잠기게 되였다.

사랑의 감정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론리적으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남성이든 녀성이든 관계없이 《왜 사랑하는가? 무엇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나는 이런 질문에 만족을 줄수있는 정확한 대답을 고르느라고 머리를 짜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싶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상대방이 이러이러하기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하였다》고 대답한다면 그는 사랑한것이 아니라 타산한데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둔데 불과하기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론리적인 평가를 내리고 사랑이 시작되는 법은 없다. 사랑은 무한히 자유로운것이어서 자기도 미처 견잡을새 없이 불꽃이 일고 타번지기 시작한다.

또한 사랑은 무척 섬세하면서도 집요한것이어서 가슴속 갈피갈피에 틈없이 스며들뿐아니라 혹시 애인에게서 가슴아픈 결함이 나타나도 타매하기전에 근심하면서 속을 태운다.

그래서 간혹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경우가 있는것이다. 사랑의 교체가 깊어지면서 그것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매우 의의있는것이며 자신들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원천이라는것이 확인될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지켜 목숨도 아낌없이 바친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개인의 리기적인 욕망에 불과한것이였다는것이 확정되면 사랑에로 흐르던 감정은 즉시에 증오로 바뀌우게 되는 법이다. 나에게서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 희생정신과 무비의 영웅성을 낳게 만드는가를 말해주는 잊지 못할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1958년 5월 2일이였다.

채동탄광 탄부들은 전세계 로동자들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한 기쁨과 흥분을 안고 날이 밝기 바쁘게 출근길에 올랐다.

주력지구 한복판을 꿰여나간 넓은 길은 동발톱과 팽이를 가는 바줄에 매여가지고 마치 보병총처럼 어깨에 멘 탄부들로 꽉 찼는데 그들가운데

는 바위틈에 핀 꽃송이들처럼 처녀들이 다문다문
섞이며 명랑한 웃음을 터치며 걷고있었다.

이 처녀들 가운데는 유난히 맑고 큰 눈에 꽃술
처럼 말려올라간 긴 속눈썹을 가진 옥화도 있었
다. 그의 손에는 다른 사람들의것보다 거의 곱이
나 큰 점심밥 꾸레미가 들려있었다.

그것은 지금 합숙생활을 하고있는 덕일이라는
총각에게 줄것이었는데 그들은 5월계획을 넘쳐
끝내고 보천보전투기념일인 6월 4일에 량쪽 부모
들을 다 모셔다가 약혼식을 하기로 서로 약속한
사이였다.

옥화의 얼굴이 오늘따라 더 밝고 명랑한것은
바로 이날이 덕일의 생일인 동시에 그가 굴진
작업반장으로 임명되어 첫 전투를 하게 되는 뜻
깊은 날이었기때문이었다.

옥화는 권양기운전실아래 환차장에 서있는 인
차옆에서 덕일을 기다리다가 병글거리며 다가
서는 총각에게 음식꾸레미를 안겨주며 말하였다.

《우리 탄광에 총각작업반장은 동무 한명뿐이래
요. 총각들 망신시키지 말고 일 잘하라고.》

덕일은 고개를 기우뚱하고 생각해보다가 모르
겠다는듯 능청스레 물었다.

《애인이 있으면 총각이 아니지 않아?》

옥화도 지지 않았다.

《그럼 난 처녀가 아니게?》

《그럼!》

덕일은 까치등지같은 눈을 껌벅했다.

《에이- 심검둥이 같은거!》

《뿔!》 종주먹을 하고 떡판같은 덕일의 잔등을
때린 옥화는 웃음을 뿌리며 뛰어올라가 권양기실
안으로 들어가버리었다. 그리고는 시창으로 덕일
을 내다보며 생글거렸다.

덕일은 똑감자알같은 큰 주먹을 불쑥 들어 흔
들어보이고 나서 벌썩 웃으며 인차에 올라앉았
다.

《다 랐소?》

덕일은 도중에 대고 큰소리로 물었다.

《예- 총각반장동지!》

누군가 길게 끄는 소리로 대답하였다.

이때 옆에 앉아있던 까까머리 하나가 덕일의
코앞에 얼굴을 가져다대고 주먹코를 찡긋해 보이
더니 자못 심중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 거시기- 하나 물어봅시다. 색시가 있어도
총각인가요?》

덕일은 압축기 기초볼트처럼 굵다란 엄지손가
락으로 그 주먹코를 꼭 누르며 소리쳤다.

《출발-》

까까머리가 미간을 찌프리며 코를 싸쥐는것과

동시에 인차는 흠칫 걸음을 떼더니 드르릉 드르
릉 사갱을 향해 굴러내리기 시작하였다.

《거 스위치감도가 꽤나 좋구만!》

누군가 한마디 하자 인차안에서는 와- 웃음이
터지었다.

옥화는 그 웃음소리를 아스라니 들으며 권양기
제동손잡이를 조금씩 조금씩 놓아주곤하였다.

잘 익은 앵두처럼 만문하고 빨간 처녀의 입술
에 행복에 젖은 미소가 한가득 넘쳐흘렀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했던 일이 터지었다.

《후드득- 딱!》 하는 소리가 나더니 권양기 드
람이 휘-익 바람을 일구며 급속도로 돌아가기 시
작했다. 바줄은 제멋대로 미친듯이 풀려나갔다.

스위치를 꺾으나 아무 쓸데도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건 있을수 없는 일인데
...)

옥화는 이렇게 부르짖었으나 현실은 있을수 없
는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있지 않는가.

병어리가 되어버린 제동장치는 아무리 애를 써
도 권양기를 멈추지 못하였다.

이때에야 옥화는 그 어떤놈의 나쁜 손이 이 권
양기에 미쳤었다는것을 깨달았다. 순간에 온몸이
굳어진 옥화는 꼭 눈을 감았다.

덕일과 그의 동료들이 탄 인차가 사갱테루우
를 뚫고 나서 내닫는 모양이 얼핏 떠오르고 뒤이
어 그것이 바위벽에 부딪쳐 사람들과 함께 산산
조각이나 흩어지는 끔찍한 광경이 떠오르는것이
었다.

《아!》

소스라치며 눈을 뜬 옥화는 사방을 살피었다.

그러나 조그마한 나무깨비하나 눈에 띄우지 않
았다.

다만 보이는것은 권양기실을 이루고있는 굵다
란 배관기둥과 용접하여 붙인 철판담벽뿐이었다.

우르르- 권양기와 감속기이바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심장을 짓이기는듯하였다.

어몰거리다가는 덕일을 포함하여 수십명 탄
부들의 목숨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

옥화의 눈앞에는 싱그레 웃는 덕일의 다정한
모습이 가슴에 안기듯 뜨겁게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 옥화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으
며 주먹을 부르짖은 오른쪽 손을 이바귀짹에 넣어
버리었다.

처음엔 찢릿한 아픔이 느껴지고 무엇인가 부서
지는 소리를 들은것 같은데 선선한 감각이 오른
쪽 어깨에 마쳐왔다.

눈을 떠보니 몇을듯몇을듯하던 권양기의 바줄
드람은 또다시 돌기 시작하였다.

옥화는 왼손으로 반나마 없어진 오른쪽팔을 감싸쥐며 이번에는 왼쪽발을 곧추 펴고 이바퀴짬에 짹 떨어넣었다.

그리고는 목청껏 웨치면서 그자리에 쓰러졌다.

《덕일동무-》

비행기를 탔던 인차가 흠칫흠칫 몸을 떨며 가카스로 벗어나자 밖에서 어떤 상스럽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것을 직감한 덕일리와 그의 작업반원들은 권양기실을 향해 사경길을 올리뛰었다.

뭐라고 말할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덕일의 뇌리를 스치며 그의 팔다리를 뻗뻗하게 만들었다.

온전실에 뛰어들어온 덕일은 치차짬에 다리를 끼운채 쓰러져있는 옥화를 보는 순간 전율을 느끼며 온몸이 굳어졌다. 삽시간에 그의 얼굴이 백랍처럼 되어버렸다.

《옥화!》

덕일의 입술새에서 신음소리와 같은 부름이 새어나왔다.

작업반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옥화의 다리를 빼고 깨끗한 속옷들을 찢어 피흐르는 팔과 다리를 조여댔다.

덕일은 와락 달려들어 옥화를 끌어안고 그의 볼을 비비었다.

《옥화, 옥화! 눈을 떠라, 눈을 떠!》

맞붙었던 길고 검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처녀의 두눈이 빠르게 열리었다.

잠시후 덕일의 모습을 알아보았는지 그의 눈동자에서 밝은 빛이 불꽃처럼 피어나는것이였다.

《무... 사... 했... 군... 요.》

힘들게 입술을 놀린 옥화는 덕일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다시금 정신을 잃었다.

그때로부터 이틀만에야 옥화는 의식을 회복하였다.

그동안 덕일은 잠자는것도, 먹고 마시는것도 감감 잊어버린채 옥화옆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었다.

후에 밝혀진데 의하면 권양기사고는 해방전에 스무정부가 넘는 파수원을 가지고 농민들의 고향을 짜먹다가 해방후 물수를 당한 악질 지주의 아들이 한짓이였는데 높은 안전부에 끌려가서도 이렇게 뇌까렸다고 한다.

《갈지 않은것들의 목숨을 노리고 그렇게 한것이 아니다. 우리 집안의 목줄을 늘려놓은 이 제도가 벌써 좋다고 떠드는 머슴들의 웃음이 미워서 그랬다. 그런데 쪼꼬만 계집이 제 팔다리를 다 바쳐 그 웃음을 지켜낼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결국 옥화는 자기의 피와 살로 48명의 목숨을

건져냈을뿐아니라 계급적원썬과의 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피워놓은 인민의 행복과 웃음을 고스란히 지켜냈던것이다.

몇달후 옥화는 덕일리와와의 결혼식장에서도, 최고훈장을 수여받는 뜻깊은 모임 연단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였다.

《나는 지난날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좀 알것 같습니다. 그것은 목숨이고 힘이고 무기이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오늘도 덕일리와 옥화는 만사람의 축복과 사랑속에서 어머니당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가장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아직은 세상만사를 직관적으로만 볼줄 알았던 인민학교 2학년때에 보고들은 이 사실을 두고 나는 몹시 감동은 했으나 그것이 내포하고있는 숭고한 뜻은 알지 못했었다.

나이를 먹고 철이 들면서, 사회와 인간에 대하여 비교적 리해가 깊어지면서 옥화와 덕일의 사랑을 두고 보다 많은 뜻을 부여하며 생각에 잠기군한다.

남자의 립장에서 보면 나는 정말 덕일리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하지는 부러운것이 너무나 많은 나다. 옥화와 덕일이처럼 초인간적인 투쟁을 통하여 사랑을 빛내이는 인간들도 부럽거니와 소문없이 평범하게 살면서도 부부간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있는 사람들 또한 몹시 부럽다.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도록 살아야 한다.

부럽게 사는데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세상에 부족한것이 없이 잘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부러워하는것은 사랑에 대한 부러움이다.

얼마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서유럽의 어느 한 은행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내놓으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두고 《세상의 모든 재부를 다 합쳐도 살수 없는 정치가들의 좌우명》이라고 하였다.

결국 우리는 세계 정치가들의 좌우명이 집대성된 사랑의 왕국에서 살고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우리 인민을 부러워하고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에서 사는 인민의 한사람인 우리 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정치를 젖줄기로 삼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으로 자기 생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해야 할것이다.

그러자면 사랑을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깡그리 불태울줄 알아야 한다.

탄광의 이름없는 처녀였던 그 옥화처럼...

사랑을 품고있는것도 중요하지만 값있게 장식하는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랑하고싶은 마음을 가지는 쉬워도 그것을 생활속에서 꽃피우기는 매우 힘들기때

문이다. 꽃피운 사랑의 향기를 사람들은 인간의 향기라고도 부른다.

(다음호에 계속)

당신은 조국을 지켰습니다

-리인모로인을 노래함-

리철웅

기나긴 서른네해 당신이 산곳은
차디찬 암흑이 둘러막고
흐르는 시간도 알수 없는
고독이 무섭게 파고드는 한평방감방

서른네해 당신이 산곳은
단식이 삶의 조건이 되고
한번 가진 마음 바꾸지 않는
참인간의 의지가
불에 그슬고 물에 잠기고
피에 젖는 생지옥

원썬들은 당신을 그곳에 가두어
피끓는 젊음의 사랑을 앗고
정의로이 쳐든 당신 모습을
세상의 기억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허나 원썬는 몰랐습니다
애국하는 인간의 정의를
그 심장의 뜨겁고 뜨거운
그런 인간에게
감방마저 조국을 위한
투쟁의 마당이 되는줄을

한평방 감방이여도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행복한 지난날의 모든 추억
사랑하는 안해의 잊지 못할 모습도
마음속에 밤마다 별되어 솟던
딸애의 모습도

한평방 감방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눈덮인 지리산의
이름없는 전우의 봉분도

살창사이로 찢어진 하늘
그 하늘아래
민족의 불행
이 나라가 겪는 고통이 크기에
한몸의 고통 생각도 않은
그 고결한 마음도

정녕 한평방 감방
그곳에는 다 있었습니다
흘러간 세월도
흐르는 시간도
지옥같은 고통의 세월을 넘어
다가만 오는
통일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오, 리인모로인이여
한평방 감방에서도
조국을 안고 산 사람이여!

당신의 모든 희생의 자리우에
진달래의 순결함이
나리꽃 피는 이 땅의 봄계절이 있습니다
안해와 지킨 변함없는 언약
전우의 피로 새긴 맹세가 있습니다

원썬는 몰랐습니다
애국으로 사는 인간에게
조국을 떠난 순간이 없음을
한평방에 갇혀도 애국에는 조국이 있고
천지를 다 가져도
매국에는 조국이 없음을

리인모로인이여
애국으로 산 인간이여
당신은 조국을 지켰습니다

삶과 존엄

정성우

…파도에 떠밀려온 물결이 거품을 끓이며 백사장우에 기여올라 발목을 휘감았다. 헉헉 내뿜는 거친 호흡은 금시 하늘에 닿을듯하였다.

나는 그대로 백사장우에 활개를 펴고 나가 누워버렸다.

시원한 바람이 폐부 깊숙이 쓸어들어왔다. 온몸이 잦아드는듯하며 뭐라 말할수 없는 쾌감 비슷한 평온함이 덮쳐들었다.

(아-!)

나는 하늘과 바다가 한데 뒤섞여 료무를 하는 듯한 환각을 털어버리며 두눈을 꼭 감아버렸다.

《일어섯!》

웅글은 소리가 고막을 후려친다. 빨아들일듯한 민권의 눈길에 나를 향하고있었다.

나는 그 눈길에 끌리듯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일어섯!》

나는 무거운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세웠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빨리!》

나는 두어걸음 내짚었다.

《앞으랏!》

민권은 나에게 눈길을 떼지 않은채 앞선 선수들을 따라 뛰었다. 야속한 생각이 저도 모르게 치밀었다....

몇해전 신진선수시절에 있었던 일이 이즈음에 와서 느닷없이 되살아나군한다. 몸풀이를 끝낸 선수들을 잠깐 휴식시키고 오늘 예견된 훈련장을 돌아보려 산으로 오르는 나의 가슴에 그때 체험했던 야속함과 불만감이 꾸역꾸역 차오른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 조는 지금 다가오는 가을철 훈련관정경기를 눈앞에 두고있었다. 대체로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가벼운 훈련과 휴식으로 체력을 보충하는것이 상례로 되고있었다.

그런데...

며칠전에 경기를 앞둔 선수들의 훈련지도차로 야외훈련장에 나타난 체육단 기술부단장인 윤민권은 첫시작부터 맹훈련을 거듭 시켜오는것이였다. 더우기 휴식일인 오늘까지도 선수들에게 훈련을 예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훈련장을 가까이 한 나는 앞에 서있는 나무에 잠시 기대여섰다. 온몸이 지긋지긋해났다.

(아무래도 제기를 해야겠다.)

그때였다.

푸르스름한 새벽안개가 감도는 둔덕아래에서 인기척이 났다.

고개를 돌리니 어느새 올라왔는지 윤민권이 허

리를 구부리고 애솔밑에, 박힌 나무그루터기를 뽑아내느라 공공 힘을 쓰고있었다.

실락한 어깨근육을 구뿔거리며 한참이나 용을 쓰던 윤민권은 그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정쟁이를 걸어올렸다.

나는 그만 눈이 휘둥그래졌다. 윤민권의 다리에는 두툼히 봉대가 감기였는데 봉대새로 벌건 피가 배여있었다. 장년기를 훨씬 넘긴 그가 어제 선수들과 함께 어울려 몸빼기훈련을 하다가 나무그루터기에 다리를 상했던것이다. 불시에 가슴이 찌르르해났다.

내가 가까이 다가서자 민권은 얼굴을 들고 웃음섞인 어조로 물었다.

《주장동무, 어떻게?》

훈련장을 보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요즘 진행하는 훈련을 두고 하는 소리인지 의미가 명백치 않았다.

나는 잠시 대꾸없이 민권을 마주보았다. 눈길은 자꾸 방금 본 민권의 상처입은 아랫다리쪽으로 더듬겨졌다.

민권은 가시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큰눈으로 나를 넋지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래 선수들이 힘들어하지 않소?》

나는 머리를 숙여버렸다.

《예. 다들 지쳤습니다.》

민권은 말없이 그자리에 돌을 깔고 앉더니 자기 목소리 같지 않게 갈린 음성으로 나직이 뇌이였다.

《나도 무척 힘이 부치오. 한 이틀 푹 쉬었으면 좋겠소.》

민권은 뽀족한 잎새마다 맑은 이슬을 꿰여든 애솔나무 숲너머로 펼쳐진 검푸른 바다를 이윽히 바라본다. 그의 눈가에는 상심때문인지 아니면 피로로 하여서인지 모를 무거운 빛이 어려있었다.

나는 그옆에 자리를 하고 앉았다.

《힘이 들거요.》

무거운 음성이 나의 심신을 휩쌌다. 왜서인지 방금전 민권에 대해 품었던 고까운 감정이 스러짐을 의식했다. 것처럼 민권의 어조에는 한없는 아량과 부드러움이 뒤섞여있었던것이다.

《그래 주장동문 몇살때부터 경기에 출전했소?》

나는 놀라운 눈길을 들었다. 소년시절부터 나를 담당지도해온 그가 아닌가. 나의 의아쩍은 거동에 민권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열여섯살부터였지.... 그때 공화국선수

권대회에서 우승한 동무를 보면서 내가 겪은 선수생활이 생각나서 울었었지... 허허... 열여섯살이라- 난 그 나이에 권투장을 뛰쳐나왔소.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오오...》

민권의 눈길은 여전히 바다가를 응시하고있었다.

흰 거품이 부글거리며 찾아드는 백사장에서 바다새가 물결에 떠밀려온 칠색조가비를 긴부리로 쫓고있었다.

푸른 하늘과 물결이 어울려 구획이 분명치 않은 먼 수평선쪽에서 어지간히 솟아오른 커다란 태양이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이젠 늙는다는거겠지. 자주 그때 생각이 나는 것만 봐도 그래... 기쁘던 일, 슬프고 흥분하던 모든 일이말이요. 그중에서도 요즘 나 자신이 처음으로 운명을 걸고 링그장에 나서던 첫시절이 자주 생각나군하오... 지금도 생각하면 원통하기 그지없던 시절이었소.》

나는 숨을 죽였다. 윤민권도 잠시 침묵하고 추억이 짙은 눈길로 솟아오른 아침해를 우러러보았다.

침묵이 깃든 우리들사이로 세월을 이끄는듯 바람결이 잦을줄 모르고 넘나들었다.

《내가 권투를 처음으로 배운곳은 일본땅이었소. 세상살이가 어떤것인지, 세상에는 정의와 화목과 자기자신을 지켜야 할 일이 많고많다는것을 깨닫기도전에말이요. 그 시절 나의 아버지는 일본땅에서 소문난 프로권투선수였소. 어머니를 일찍 여윈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내 삶의 전부였소. 아버지는 이들이 멀다하게 힘겨운 경기를 계속하면서 나를 먹이고 입혀 살리기 위해 무진애를 쓰시곤 하셨소. 경기를 치른후 무거운 몸을 간신히 끌고 우리가 거처하고있던 세방으로 돌아와 쓰러지군하시던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이 지금도 눈앞으로 밝혀오는것만 같소. 나는 밤새 어혈진 아버지의 몸에 찬물찜질을 해주며 간간히 허를 깨물어 울음을 삼키군했소. 그럴 때면 아버지는 나의 연약한 어깨에 주먹을 올려놓으며 이렇게 타이르곤 하시었소.

<야야, 사내너석이 그렇게 마음이 여러여서야 뭇에 쓰겠니.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독한 마음도 지어먹을줄 알아야 한다. 너도 크면 권투를 배워라. 그저 이놈의 세상에선 주먹이 강해야 한다. 주먹이 강해야 사람이 자기 존엄을 지켜낼수 있거든. 자기 존엄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서야 무슨 삶이라고 하겠니.>

하긴 그럴만도 하였고. 원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낚음팔이, 구두닦이, 청소부... 못해본 일이 없었소. 돈많은 놈들한테 견여채우기도 하고 별의별 수모를 다 받으셨으니 말이요. 그런 눈물겨운 생활속에서 아버지가 찾은 생활관이며 생의

좌우명이랄가, 그런것이 있었소.

<주먹이 강해야 자기를 지킬수 있다.>

이 소박한 아버지의 생활신조는 그대로 나의 가슴속에 깊숙이 못박혔소.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소.

허허... 얼마나 천진했던 우리 부자요. 어쨌든 나는 열심히 권투를 배워나갔소. 그러나 생활은 너무도 가혹한것이였소. 그 어떤 관용도 선의도 배풀만한 인정이 없는 각박하기 그지없던것이 아마 자본주의사회인것 같소. 지금도 적수공권인 우리의 소박한 기원우에 피눈물을 뿌리며 통탄에 몸부림치던 그 나날이 칼끝처럼 내 가슴에 박혀있소...》

윤민권은 물기가 뻗쳐오는 가슴노리를 지그시 움켜쥐며 고개를 짓속였다.

쉬임없이 가슴에 닿는 파도... 해풍... 백사장... 키낮은 잡관목들이 우스스 설레인다.

하지만 광막한 하늘 모든것이 거대한 중압에 짓눌리우듯 나의 가슴을 압박했다.

무엇인가 비통하고 쓰라린 감정이 나에게로 밀물쳐오며 한 인간의 수난사가 예측되었던것이였다.

윤민권은 다시 몸가짐을 바로했다. 그의 추연한 눈빛은 또다시 바다와 하늘을 조용히 더듬고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먼 인생의 기슭으로 한 걸음한걸음 자욱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동양제패》라는 화려한 야망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수포로 돌아가자 일제는 전패국의 《수치》를 씻고 조상전래의 야심을 기어코 실현해보려고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있었다. 도처에서 군국주의 패당들이 칼을 갈았고 사회의 건전한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무대마저 《사회의 군국화》 실현에 리용되였다. 하기에 도처의 체육장들에서 광기어린 체육경기들이 벌어지고있었다. 그것도 패망일제의 호전적인 객기를 자극하는 중경기들로 잇달아졌다.

그 시절 어느 일간신문의 한 귀퉁이에는 프로 권투강자 윤석범과 소년급 아마츄어권투강자 윤민권에 대한 소개기사가 조심스런 필치로 실린적이 있었다.

이처럼 윤민권은 벌써 자기 몸무게급에서 소년강자로 당당히 링그장에 올라섰다. 하지만 소년은 외로웠다. 일본놈들이 운영하는 권투구락부에서 소년에게 들썩위치는 모멸에 찬 눈총들과 경기장들에서 자기를 몰아대는 악청에 입술을 깨문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거기에다 그에게는 만만치 않은 적수가 등장하였다.

오사카 야마구찌구미(일본 불량폭력단체) 산하에서 운영하는 권투단의 시마즈라는 아이였다.

어느날 민권은 시마즈와의 경기에서 패했다. 경기장안을 들었다놓는 위협적인 고함소리들과

주심의 자극적인 편심에 윤민권은 그만 당황해버렸던것이다.

결국 보조점수 한점 차이로 시마즈에게 양보해버렸다. 경기장 뒤문으로 빠져나온 민권은 하수도가 넘어나 악취를 풍기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흑-흑-번열을 들썩우던 경기장안을 빠져나오면 답답하던 가슴이 식을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부각부각 피어오르는 수치감과 반발심이 가슴속을 황황 일어번지게 했다.

(나는 졌다.) 하는 자의식이 뇌리를 스치자 뼈마디가 물러나는것 같은 허탈감이 온몸을 휩쌌다.

민권은 걸음을 멈추고 구력에 아무렇게나 답아든 영국제 권투장갑과 휴즈(권투화)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일본아이들도 감히 엄두를 못내는 물건들이었다. 아버지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물건들을 보니 가슴이 찢르르해왔다.

한줄기 바람이 휘익-골목길을 휩쓸고 지나자 미구에 굵은 비꼬치가 방바닥을 누비기 시작했다.

민권은 무거운 걸음으로 어느 집 처마아래로 들어섰다. 다음순간 민권은 놀란 눈을 치켜뜬채 우뚝 멈춰서고말았다.

뜻밖에도 거기에는 아버지가 침중한 낮빛으로 서있었던것이다. 경기를 보러 왔다가 민권을 기다렸던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민권을 물끄러미 여겨보더니 비내리는 포석으로 내려섰다.

빠져린 자책에 휩싸인 민권은 황황히 아버지를 따라섰다. 우산을 받쳐든 몇명의 일본인들이 왈자지껄하며 옆을 지나다 그들 부자를 흥미있는 눈길로 흘겨보았다. 아마 경기를 구경하고 나온 놈들이들 같았다.

아버지는 그에 개의치 않고 민권이 옆에 따라서도록 걸음발을 늦추더니 피멍이 든 불편을 건너다보며 입을 열었다.

《...기술도 있고 속도도 있다. 그런데 아직 너에겐 힘이 부족하구나. 뭔가 아직도 속에 무른것이 박혀있어. 조선사람이라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잡는 놈들이들한테 지다니.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권투를 하고 자신을 지켜낸단말이나.》

마디마디 짜내는듯한 저오기 갈린 아버지의 음성은 민권의 가슴속 깊은곳에 철추처럼 내려졌다. 그들 부자가 림시로 거처하는 세방이 저 앞둔덕에 보일즈음에야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수건에 싼 닭알 한알을 민권의 손에 쥐여주며 등을 떠밀었다.

《네먼저 가거라. 우선 이걸로 얼굴에 난 멍을 벗기거라.》

그리고는 반대쪽을 향하여 묵직한 걸음을 옮겨놓았다.

순간 민권은 목에서 울컥하니 치미는 뜨거움을 삼키며 몇걸음 따라서다 그자리에 못박혀버렸다.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권투협회가 자리잡은 거리로 가시는지 짐작이 되었기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경기를 신청하러 가는 길이었었던것이다. 보름전에 있는 경기에서 아버지는 중한 부상을 당했다. 아직도 완쾌되지 않아서 기동이 민활하지 못한 몸이었다.

민권은 더 따라서지 못하고 불안이 뒤섞인 눈길로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깨를 짓수긋하고 걷는 아버지의 넓은 어깨를 바라보니 새삼스레 그 어깨에 얹혀져있는 짐이 헤아려졌다.

그래도 아버지는 변변히 먹지도 못하면서 매일 같이 경기에 출전하여 아들을 일본아이들도 부러워할만큼 내세워주기 위해 애쓰는것이였다.

어느새 눈물이 민권의 눈앞을 가리웠다. 쓰거운 고배와 같은 눈물맛이 허끝에 감촉되자 민권은 부르르 주먹을 떨며 허공에 내그었다.

(용서하세요.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저녁 민권은 성의껏 밥을 지어놓고 아버지를 기다렸다.

뒤뜰안 울바자밑에서 귀청이 찢저라 맹렬하게 울어대던 귀뚜라미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때에야 문밖에서 무거운 발걸음소리가 다가들었다.

점점 가까이 다가들던 발걸음소리가 푹 멎더니 부엌문이 열렸다. 민권은 방안에서 일어나며 몸을 돌렸다. 활짝 젖혀진 문짝에 한쪽볼을 기댄 아버지가 급히 다가드는 민권을 동공이 풀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윤석범이는... 프로권투강자 윤석범이는 없다. 후시다가 이제는 프로권투계의 일인자다. 후시다, 개자식아, 나는 너에게 졌다. 졌어.》

아버지는 허공에 대고 큰주먹을 흔들며 분노를 터쳤다. 민권은 아버지를 조심히 부축하여 다다미방에 반듯이 눕혔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권의 눈에 의혹이 가득 실렸다. 반듯이 누운 자세로 천정의 한점을 이윽도록 바라보던 아버지는 가슴속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울분을 뱉었다.

《후시다와의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등록법>에 걸려 나의 선수권을 박탈해버렸구나. 이 땅에서 더는 직업선수로서의 활동이 <스-톱> 되었다. 후시다가 이번에까지 지게 되면 자기네 야마도민족의 체면이 안서졌던게지. 줌스러운놈들이라 스포츠무대마저 씨클로 리용하는구나.》

석범은 밤새껏 꿈꿨던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음날부터는 선수단으로 나가지 않았다. 며칠후부터는 아침일찍 어디로 나갔다가는 밤이

깊어서야 술에 만취되어 돌아오곤했다.

아버지의 신상에 닥쳐진 불행은 미구하여 권투계에 두각을 나타내야 할 민권의 어린 아이에 자국적인 것이었다..

아직까지 권투선수로서 당당한 개성을 갖추자면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 민권이었다. 아버지의 고민은 나날이 커갔다. 식사도 도무지 드시지 않았고 가뜩이나 과묵한 성격에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이었다.

아버지는 아침일찍 권투장갑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서며 다시 권투단으로 나간다고 했다.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민권이었다. 선수권이 회복되었는가 하는 민권의 물음에 아버지는 두툼한 입술을 꼭 다물고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저 훈련지도만 한다고 한다. 그것으로서도 민권의 미래는 기약할 수 있었다.

민권은 훈련에 전념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요구성은 몇배나 강해졌다. 돈도 몰스듯했다. 권투훈련에 좋다는 기재라면 모조리 사가지고 와 세방뒤뜰안에 작은 권투《구락부》를 차려놓았다.

생활은 또다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로워졌다. 그 순조로움은 아버지의 운명에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정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어느날 아버지가 링그장에서 넘어지고말았다. 민권은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 정열을 기울이시던 것처럼 이번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생활전선으로 나섰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무기》인 권투기술을 가지고.

×

아메리카 원정경기를 위한 선수선발 결승경기가 있게 되기 전날저녁, 민권은 뜻밖에도 시마즈의 초대를 받고 다방으로 갔다. 수정으로 장식된 무리등의 환란한 불빛이 애상적인 음악속에 명멸하는 다방의 한쪽구석에서 두 적수는 위스키병을 가운데 놓고 마주앉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지루한 침묵이 한동안 흐른뒤에 시마즈가 짧게 깎은 타원형머리를 들었다.

《병원에서 모셔내왔나?》

민권은 맥없이 머리를 흔들었다.

《래일 병원에 가서 입원을 연장시켜야겠어. 왜 의사들은 아버지 내보내지 못해 그처럼 성한지.》

시마즈는 놀리듯 알팍한 입술에 알릴락달락한 웃음발을 피워올렸다.

《의사들은 돈이 없으니 나가랄수밖에.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연장하겠나?》

대화는 동강이 났다.

애상적이며 속에 칼끝같은 예리한 리듬을 안은 음악만이 가슴벽을 긁어내릴 뿐이었다. 한동안 그

들은 서로 마주보기만 했다. 민권은 손을 뻗쳐 술잔을 입술에 가져다댔다. 움푹 패여들어간 눈확속에서 껍싸게 돌아가는 시마즈의 작은 눈동자와 크고 억실억실한, 마치도 녀자의 눈처럼 유순한 민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민권은 시마즈를 더는 마주보지 못하고 머리를 떨구었다.

병원침대에 누워있는 피골이 상접하고 여윈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으로 얼른거렸다. 가슴이 뭉클하게 젖어들며 답답해왔다.

(무슨 방도라도 없겠는가?)

민권의 마음속 심리를 읽은듯 시마즈는 품속에서 손을 찢었다. 꺼내는 시마즈의 손끝에 지폐몽치가 묻어나왔다. 민권의 눈은 번쩍 트이었다.

《스포츠의 우정쯤으로 생각하게나. 경기가 끝난후 또 주겠네.》

민권의 아래우를 뜻있는 눈길로 훑어보던 시마즈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언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눈으로 오고갔다.

시마즈는 다방을 나섰다.

민권은 눈을 감았다. 까닭모를 모멸의 감정이 얼굴을 후려쳤다.

《경기가 끝난후 또 주겠네.》

시마즈의 목소리가 공명관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권은 몸을 무겁게 일으키었다. 시마즈가 돈을 주는 이유를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자존심이 꿈틀거렸다. 뜨거운것이 목구멍을 치받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심장이 저려들었다.

자기에게는 시마즈의 그 유혹을 물리쳐버릴 힘이 도무지 없었다.

(이긴대도 아버지 입원을 연장시킬 돈이 없지 않은가?)

민권은 서글퍼지기 시작했다. 오직 반들거리는 시마즈의 눈동자만이 떠올랐다.

시마즈의 눈동자우에 또다시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민권은 밖으로 나왔다. 어둠이 깔린 도시는 한산하기만 했다. 늦가을 찬비가 길가에 훑날리는 가랑잎우에 가락맞게 떨어졌다. 민권은 밤거리를

수격수격 걸었다. 주머니에 손을 찌른 그의 손끝에 시마즈가 주고간 매끈매끈한 지폐장이 감촉되었다.

그 촉감은 마치도 겨울날 살얼음이 피부에 닿을때처럼 온몸을 선풍하게 자극했다.

민권은 시마즈에 대해 생각을 굴렸다. 무서운 완력으로 경기를 결속짓는 접근전 선수, 링그장에서 자기와 마주서자부터 교서점의 뚜껑바랜 런애소설처럼 인기가 떨어진 시마즈.

음산한 하늘에서 비줄기가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허나 민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채 수격수격 걸었다.

어느덧 병원앞에 이르렀다.

은백색지붕이 물기를 받아 타는듯 번들거렸다. 뇌진탕으로 신고하고계실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으로 또다시 밝혀왔다.

민권은 주머니속의 돈몽치를 덤석 잡았다. 가슴이 흠칫 떨려나며 이글거리는 숯불이 살을 따갑게 지지는듯했다.

다음 순간 그것은 등뒤로 흐르는 차거운 물줄기처럼 섹션한 전류가 되어 혈관을 타고 돌았다.

《아버지는 패했다.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애비는 희기를 들었구나.》

아버지의 말소리가 지척에서처럼 들렸다. 민권은 터질듯한 가슴을 부둥켜안고 몸부림치며 흐느끼었다.

(아-아! 난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있다.)

민권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머리칼을 움켜잡고 길옆의 나무에 기대어 섰다. 부정할수 없는 그 무엇이 가슴을 압박했다. 무서웠다.

아버지가 빠진 함정보다 더 깊은 함정이 시꺼먼 입을 벌리고 민권을 기다리고있는것만 같았다. 운명적인 그날이 눈앞으로 언뜻언뜻 밝혀왔다.

...지난 아버지의 생일날이었다.

술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민권은 아버지를 기다렸다.

기다리기에 지친 민권은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 목조건물로 된 권투단에 도착했을 때는 한치앞도 분간하기 어렵게 어둠이 내려앉았다. 환한 불빛에 새어나오는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링그안에서 후시다를 떨군 아버지가 힘겹게 숨을 쉰아쉬고있었다.

《스톱 (멈춰!)》

감독이 작은 눈알을 뱅글거리며 아버지에게 다가들었다.

《당신은 후시다의 대상선수요. 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뿌리며 당신을 채웠는가? 후시다의 대상선수는 당신만이 되어야 하오. 뒤손을 쓰지 마시오.》

신경질적인 감독의 말이 민권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민권은 자석에 끌리듯 저도 모르게 훈련장으로 들어갔다.

한참만에야 일어난 후시다는 고기덩이를 본 사양개처럼 달려들었다. 아버지는 구석에 몰려 종합방어에 급급했다. 피흐르는 아버지의 얼굴, 하얀 소금버께가 달라붙은 후시다, 후시다가 한발앞으로 짚으며 강한 뒤손 곧추치기를 했다.

아버지는 한순간 굳어지더니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렸다. 재차 후시다의 타격이 날아들었다. 아버지는 링그장바닥에 쓰러졌다. 민권은 전기에 감전된듯 후닥닥 링안으로 뛰어들었다.

《넌 누구냐?》

열띤 왜가리청이 민권의 머리를 때렸다. 민권은 분연히 고개를 들었다.

《아-넌가. 그런데?》

후시다는 쓰러진 아버지를 멀리서 가득찬 눈길로 훑어보더니 민권의 얼굴에 눈길을 던졌다.

《당신 부친은 내가 산 물건이다. 대상선수로!》

후시다의 그 말은 채찍으로 뺨을 후려치는것 같았다. 무수한 전류의 흐름이 귀안을 맴돌았다.

(뭐 대상선수?)

민권은 링그줄에 간신히 기대선 아버지의 얼굴과 후시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두눈에는 당황한 빛이 어려있었다.

후시다의 얼굴위로 피어오르는 만족한 웃음에 민권은 눈섭을 푸들거리며 아버지의 어깨를 덤석 끌어안고 흔들었다.

《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버지는 괴롭게 몸을 한옆으로 비틀며 두툼한 입술을 감뺨았다.

《아버지, 거짓말이지요. 네? 아버지.》

민권의 애절한 부름소리가 훈련장안에 메아리쳤다.

《나는 졌다. 저 후시다에게만이 아니라 생활과의 싸움에서 희기를 들었구나.》

민권은 아버지를 멍청히 바라보기만 했다. 도무지 가늠할수 없었다.

《아버지, 누구에게 졌습니까?》

민권은 오열을 씹어삼키며 안타깝게 물었다. 피의 분수가 가슴속 깊이에서 길길이 솟아올랐다.

민권은 애원하듯 다시 물었다.

《거짓이지요.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흐튼 눈으로 민권을 지그시 바라보며 보풀인 입술을 힘겹게 움썹거렸다.

《사실이다. 난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미 희기를 든 사람이다.》

민권은 부르르 몸을 떨며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버지... 어찌면... 어찌면 이럴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던 민권은 눈물범벅이가 된 얼굴을 들었다. 눈 줄곳을 모르고 잠시동안 허둥거리던 민권은 실신한 사람처럼 고래고래 웨쳐댔다.

《절대로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꺾이면 꺾일지언정 이 세상앞에 삶을 구걸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아- 어느놈이- 어느놈이 내 아버지 존엄을 짓밟았느냐? 나서라- 나서라!》

...그때의 그 노호성이 민권의 심장을 비틀어매는것이였다. 어슴푸레한 불빛이 비쳐나오는 입원실 창문이 눈에 띄웠다. 몇년동안 후시다의 대상선수로만 되어온 아버지, 갖은 모멸과 울분속에 후시다를 프로권투계의 거물로 키워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잃은것은 존엄이였고 얻자고 한것은 아들을 권투선수로 키워보자는 소원이였다.

그 값비싼 대가로 민권은 권투선수로 되었지만

아버지는 폐인이 되었다.

아버지의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돈을 더 가져가야 입원을 연장시킬수 있었으나 돈이 없었다. 애타게 그리던 돈이었으나 시마쯔가 준 돈을 받고보니 마치 더러운 물을 마시고난 심정이였다.

민권은 우두커니 서서 아버지의 병실을 초점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결국 나도 아버지가 떨어졌던 합정숙으로 찾아가는것이 아닌가?)

민권의 생각을 긍정하듯 아버지의 성난 말소리가 들려오는듯했다.

《민권아! 안된다. 네가 가는 그 길은 내가 걸어온 길이다.》

민권은 두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시마쯔, 두고보자. 난 단 한번만 승리를 양보할따름이지 네앞에 존엄을 팔지 않는다.)

민권은 아버지에게 반발하듯 자기에게 웨쳤다. 했지만 그것은 자기위안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큰눈이 앞으로 다가들며 호되게 꾸짖었다.

《이기는것만이 존엄이다.》

민권은 두눈을 짝 감았다.

(아- 아버지, 내가 이기면 아버지는 병원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승리가 한번쯤 양보할수 있지 않습니까.)

민권은 맥없이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침으로 걸음을 옮기고있었으나 마음은 아버지 침대앞에서 안타깝게 방황했다. 아버지가 못견디게 그리워졌다.

민권은 다시 수격수격 병원충계를 올라 아버지 호실문을 열었다.

《래일 결승경기를 한다지?》

홀쭉 꺼져들어간 아버지의 불편에 하얀 수염이 까칠하게 돋았다.

《누구와 하느냐?》

《시마쯔와 합니다.》

민권은 두손으로 돈을 받쳐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의문이 가득 실린 아버지의 큰눈이 자기 《범죄》를 꿰뚫어보는것 같았다.

민권은 씻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고 엄격한 선생님앞에 섰을 때처럼 조심히 떠듬거렸다.

《감독이... 선불금으로 주었습니다.》

《음-》

아버지는 리해가 안되는듯 머리를 실레실레 흔들더니 돈을 받아 침대 한끝에 던졌다. 붉은 땀

줄기가 등위로 흘러내렸다.

《그 시마쯔는 언제나 너의 마지막 적수로구나.》

민권은 안도의 긴숨을 내그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아버지는 민권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여느때없이 심란해진 아들의 기분에서 알지 못할 불안을 느끼고 석심한 소리로 물었다.

《너 혹시 다른 생각을 하는게 아니냐?》

민권은 불판을 밟았을 때처럼 흠칫 놀랐다. 아버지의 성긴 눈섭이 파르르 떠다.

민권은 태연한체 머리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시마쯔, 그 진드기와(접근선을 너무 검질기게 하여 이렇게 불렀다) 대전한단말이지. 똑똑히 명심해라. 때려잡아야 한다. 완전히 말이다.》

민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간곡한 기대가 어려있었다. 민권은 그 눈길을 마주볼수 없어 슬며시 판곳으로 머리를 돌렸다. 민권은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다. 저력있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금 울렸다.

《이기긴해도 넌 원정경기에 못간다. 허나 이겨야 해. 애비의 수치를 씻고 그 어디서나 자기를 지켜야 한다.》

민권은 주먹을 흔들며 때려눕히는 시늉을 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검은 눈동자에서 섬광이 튀었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차거운 물이 흐르는듯했다.

(이자 뭐라고 하셨던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완전히 때려잡으라고 하셨지.)

민권은 머리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문까지의 거리는 불과 대여섯걸음, 그 대여섯걸음을 걸어나오는 짧은 한순간에 권투선수로서 명예를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던 나날들이 머리속에서 언듯언듯 스치며 지나갔다. 머리가 핑그르 돌았다.

말없이 휘두르던 그 쇠메같은 아버지의 큰 주먹이 눈앞에서 다시 열른거렸다.

거리는 어둠이 깊숙이 깔리기 시작했다. 민권은 입술을 꼭 다물고 차디찬 눈길로 앞을 쏘아보았다.

...

《경기는 오사카 중경기체육관에서 있었소...》

나는 숨을 죽이고 구레나룻이 보기 좋게 건너간 윤민권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불편이 푸들

거리는것이 감촉되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청단자리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민권의 마음은 불안했다.

망막우로 아버지의 엄한 얼굴이 매여달려 사라질 줄 몰랐다. 수건을 돌려 바람을 일구어주는 성실한 보조원도 시끄러웠다. 민권은 초조한 마음으로 경기장안을 둘러보았다. 원형 경기장안을 뻘뻘이 메운 사람들, 한쪽 어깨에 사진기를 메고 링그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기자들,

민권은 눈살을 찌프리며 머리를 떨구었다. 그 러자 이번에는 거역할수 없는 아버지의 엄격한 눈길에 올려다보는듯했다.

《이겨야 한다. 이기는것만이 존엄이다. 꼭 이겨야 해.》라고 하듯이.

민권은 말라드는 입술을 허끝으로 추기며 자신에게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판에선 자존심도 스포츠정신도 더우기는 존엄도 그건 모두가 다 한갓 잡꼬대애 불과합니다. 그자들에게 돈이 자존심이고 존엄이며 진리 일것입니다. 나는 존엄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승리를 양보할 따름입니다.)

민권은 자신을 위안했다. 위안은 허무를 낳았고 그 허무는 동요를 일으켰다. 돈...돈, 그리고 존엄, 이 두개의 단어가 먼저 머리라는 링그장에서 격투를 하는듯했고 자리를 다투며 민권의 뇌리속 가장 깊은곳으로 제먼저 비집고 들어오려고 집요하게 날뛰었다.

패전을 현실로 감각해야만 하는 링그우에 올라서고보니 생각하던것보다 더 깊숙이 자기 모순에 빠져들었다.

민권은 약해지려는 마음속 동요를 뿌리치며 자기 행동을 합리화해보았다.

(명예, 존엄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것이 아버지보다 귀중치 않다. 명예는 회복할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아버지를 살릴수 없다. 이것만이 중요하다.)

심판석에서 웅글고 둔중한 종소리가 울렸다. 민권은 고막을 때리는 종소리가 자기를 꾸짖는 추상같은 목소리처럼 들렸다. 오한을 만났을 때처럼 몸이 떨려왔다. 민권은 링그장 중앙으로 달려나갔다.

두 선수는 중거리에서 마주섰다.

시마쯔는 몸의 중심을 이리저리 흔들며 유연하게 민권을 기만했다. 지그시 쏘는 시마쯔의 눈동자는 여유있게 빛났다. 타격거리가 가까워왔다.

민권은 앞손으로 시마쯔의 몸통을 울려치며 공

간을 조성해주었다. 시마쯔는 앞손 내리쳐 막았다. 확실히 시마쯔는 본능적인 증오감으로 팽철하게 상대를 타진했다. 민권은 또다시 들어오는 시마쯔의 타격을 몸굽혀 피하며 앞손으로 곧추쳤다. 그 타격이 시마쯔의 얼굴을 정확히 때렸다.

팍... 시마쯔의 얼굴이 목뒤로 젖혀질 때 민권은 자기의 실책으로 눈살을 찌프렸다. 시마쯔의 눈동자가 가운데 모아졌다. 이윽고 동공이 점차 생기를 띠더니 불현에 두개의 근육이 풀떡 일어났다.

시마쯔는 량주먹을 서로 부딪치고나서 중거리에서 련결타격을 했다. 민권은 본의아니게 몸에 폭 배인 동작으로 넘어갔다. 얼굴로 곧추 들어오는 타격을 쳐던지며 옆으로 들어오는 주먹을 받쳐막던 민권은 목직한 느낌을 감각으로 느꼈다.

《케스트 우즈 (가죽에 금속을 박은것!)》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에 흐르던 피가 머리끝으로 물리는것만 같았다.

(아니 네가?)

미칠듯한 분노가 곤두섰다.

(케스트 우즈를 끼고 나를 때려잡으려고...)

돈에 위축되었던 자존심이 바위에 부딪친 파도처럼 길길이 솟아올랐다.

(난 너에게 케스트 우즈를 끼라고 승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네가...)

시마쯔의 돈을 받던 때처럼 모멸의 솟불이 얼굴을 따갑게 지켰다.

(아- 그 돈은 나를 잡으라는 살인허가와도 같은것이였구나- 난 양보가 아니라 존엄을 팔았다.)

비로소 민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다. 그 인정은 뼈를 저미는 자책으로, 다음은 분노로 타올랐다. 시마쯔의 유리알처럼 반들거리는 눈동자가 여러번 변했다.

(시마쯔, 사나이의 명예를 걸고 한 약속을 어긴 너를 스포츠의 이름으로 때려눕힐테다. 비렬한!)

민권은 앞손으로 시마쯔를 기만하며 구석으로 몰고 갔다. 시마쯔가 입술을 사려물었다. 련속 울려치기, 옆으로 치기...

민권은 두주먹을 밑으로 떨어뜨렸다. 눈앞이 새까매졌다. 다리가 매시시해지고 물먹은 숨처럼 나른해지며 그자리에 스프르 주저앉았다.

시마쯔의 강한 련결타격이 련이어 날아들 때 민권은 쿵하고 앞으로 넘어졌다....

고아대는소리, 여기저기서 불어대는 휘파람소리, 경기장 마루를 발로 내리치는 소리.

(떨어졌다!) 하는 느낌이 한덩어리의 날카로운 얼음조각처럼 뒤등을 그었다.

민권은 링그줄을 잡고 벌떡 일어났다.

불길히 황황 이는 눈으로 자기를 쏘아보는 눈길이 있었다.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없었다. 다만 그렇게 생각될 뿐이었던 것이다.

첫눈에 들어오는것은 흥단에 서서 차거운 웃음발을 피워올리며 득의양양한 눈으로 쏘아보는 시마쯔였다.

깊은 산중에서 뱀을 만났을 때처럼 소름이 끼쳤다. 민권은 시마쯔를 노려보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기뻐말라. 시마쯔, 너는 나의 존엄을 아직은 사지 못했다. 너에게 존엄을 팔기에는 내 자존심이 너무나도 값이 비싸다는걸...알게 해주마.)

민권은 링그장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주심이 《섹스》를 헤다말고 다시 《복스》했다. 두선수가 마주 섰을 때 《땡》하고 1회전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민권은 청단자리에 와 무거운 몸을 실었다.

피의 링그장에서 아들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이어진 아버지의 인생도 이런 모멸과 분노의 연속이었으리라. 그 아버지가 자기를 잃으면서까지 내세워준 링그장에서 나는 도박을 놓고있다. 도박을!

《부디 애비의 수치를 씻어다구.》

아버지의 그 말마디가 뇌리를 후려했다.

민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속으로 되뇌이는 민권의 귀전으로 경기장 너방 승원의 간사스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민권씨는 더는 아마츄어 권투계의 일인자로 될수 없습니다. 보시다싶이 윤민권은 나홍하파(일본국기)를 앞가슴에 달고 나선 용감한 홍안의 시마쯔씨의 강타에 완전히 락파울 되었습니다. 윤민권씨는 경기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전문가들은 평하고있습니다. 아마츄어 경량급 강자, 우리의 시마쯔씨에게 영광을!》

(아-!)

비로소 민권은 자기를 유혹한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졌음을 절감했다.

(아버지가 빠졌던 함정, 그보다 더 깊숙한 함정속으로 내가 빠졌구나. 안된다. 나는 빠지지 않을테다.)

민권은 안타깝게 링그줄을 비틀어 잡았다. 2회전 시작종이 울렸다. 민권은 천천히 경기장안을 둘러보았다. 원형 경기장안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벅빳 고아대던 사람들의 소음도 잦아들기 시작했다.

민권은 링그장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입술을 꼭 다물고 경기장 여기저기를 쏘아보는 민권의 표정은 적진속으로 뛰어들던 옛 고구려의 무사와도 같은 기상이었다.

중앙에서 두 선수가 마주섰을 때 주심이 칼로 물을 베듯 경계선을 그어주며 2회전 시작을 선언했다.

민권은 시마쯔의 몸통을 랑손으로 번갈아 올려치며 구석으로 들고갔다. 시마쯔는 뒤발을 돌리며 타격방향을 변동시켜놓으려고 시도하였다. 민권은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올려치기, 옆으로치기, 또다시 올려치기를 했다. 바빠난 시마쯔가 뒤손(케스트 우즈 킨손)곧추 치려 할 때 민권의 강한 받아치기가 시마쯔의 명치를 찔렀다. 시마쯔가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경기장안은 쑥셔놓은 벌둥지 같았다. 잠시후 시마쯔는 일어났다.

민권은 올려치기로 시마쯔를 구석으로 몰아갔다. 링그줄에 걸린 시마쯔는 종합방어에 급급했다. 민권은 접근전으로 시마쯔의 몸에 붙어서며 짧은 련결타격을 하다가는 튀어나고 그러다가는 또다시 붙어섰다. 민권의 눈은 침착하게 빛났다. 시마쯔는 링그줄에 기댔다가 튀어나며 몸을 빼려 시도하였으나 민권의 드센 반공격에 움츠러들었다. 민권의 눈앞으로는 아버지의 파리한 얼굴이 떠올랐다.

후시다의 받아치기에 쓰러지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얼굴우에 후시다의 얼굴이 겹쳐들 때 시마쯔가 곧추치기로 몸을 빼보려고 다시 시도했다. 시마쯔의 초조한 눈길이 후시다의 싸늘한 눈길과 한데 엉켜들 때 민권은 《앗-》하는 입안소리를 지르며 뒤손 올려치기를 했다. 잠깐끝엔 목직한것이 실려오며 허리가 시큰했다.

링그줄에 걸린 시마쯔의 눈에서 동공이 굳어지더니 스러지는 모닥불처럼 스프르 감겨든다. 찰나에 시마쯔의 눈귀통이로부터 입귀통이 사이로 두줄기의 물기가 흘러내렸다. 시마쯔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민권의 목을 끌어안았다.

민권은 더러운것이 덮쳐드는듯한 촉감에 흠칫 몸을 떨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듯했다. 민권은 시마쯔의 몸뚱이를 힘껏 밀어던졌다. 시마쯔의 몸이 통나무처럼 링그바닥에 떨어졌다.

주심이 다가들었다. 민권은 팔을 잡으려는 주심의 손을 뿌리치며 링밖으로 뛰쳐나왔다. 날아오는 빵조각, 사탕알, 붙어대는 휘파람소리... 그것을 감촉할수 없는 민권이였다. 경기장은 끓는 죽가마같았다. 민권은 비칠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대기가 폐장깊이 흘러들었다.

사위는 어두웠다. 달도 별도 없는 칠흑속이었다. 민권은 그 어떤 피물이 도사리고있기라도 하

듯 어둠이 웅크리고있는속으로 가슴을 내대고 걸었다. 한동안 투덕투덕 걸던 민권은 분연히 머리를 들었다.

눈앞으로 푸릿한 강물이 막아섰다.

물비린내가 코안의 점막을 찌른다. 민권은 보도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주먹만 있으면 존엄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 천진한 아이에 눈물겹도록 가련했다.

민권은 실신한 사람처럼 장갑을 벗었다. 검은 빛이 흐르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노라니 점차 내장을 도려내는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민권은 권투장갑을 강물에 집어던졌다.

후시다의 주먹에 쓰러지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으로 덮쳐들었다. 다음은 케스트 우즈를 끼고 달려들던 시마즈의 유리알같은 눈이...

민권은 몸을 벌떡 일으키며 몸부림쳤다.

《이놈의 썩고병든 사회에선 인간의 존엄을 지킬수가 없다.》

민권의 노호하는 웨침은 강의 잔파도에 실려 멀리에도 메아리쳐갔다...

먼 앞쪽에서 도래굽이를 철사이없이 두들겨대던 파도는 잠잠해졌다. 나와 윤민권의 사이에도 무거운 음영만이 한동안 깃들었다.

이윽하여 민권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병원을 뛰쳐나왔소. 나도 선수단을 그만두고 권투와 담을 쌓았지. 더는 그 사회앞에 삶을 구걸하고싶지 않았소.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아버지는 얼마 못가서 종시 한참은 세상을 뜨고말았소. 어버이수령님께서 무어주신 총련조직이 아니였더라면 내 운명도 아버지나 마찬가지로였을게요.

삶의 기로에서 헤매는 나에게 총련조직은 선참으로 조국으로 귀국하도록 아낌없는 방조를 주었소.

나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목에 걸고 꿈속에서도 동경하여마지 않던 사회주의조국으로 귀국했소. 그때의 벅찬 감격이란 참!...

조국에서는 나에게 다시 권투링그우에 설것을 권고했소. 처음으로 구라파의 한 수도에서 열린 금컵쟁탈국제경기에 나갔지. 이 경기에서 나는 비참하게 패했소. 고민했지. 이게 무슨 꼴이겠소. 이때 조국에서 전문이 날아올줄이야...

첫 예선경기에서 패배한 선수가 일본에서 갖 귀국한 청년이라는것을 알게 된 조국에서는 <그 동무가 고민이 많겠다고... 조국은 이겨도 저도 자기 아들을 품에 안아준다>고 하며 <실망하지 말고 분투하여 꼭 조국의 영예를 빛내야 한다>고 하였소. 난생처음으로 받아보는 믿음이었소. 이것

이 내가 링그장을 뛰쳐 나오면서까지 찾자던것이 아니였겠소. 일본땅에서는 지킬래야 지킬수 없다 고만 생각했던것, 그처럼 강한 주먹을 가진 아버지도 나도 지킬수 없었던 인간의 존엄을 어머니 조국은 고스란히 지켜주는것이였소. 난 그때 결심했소. 나를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리라!

그후 나는 여러차례의 국제경기마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소. 오늘은 또 조국의 이름을 빛내일 수많은 선수들을 키우고있지...》

민권은 시원하게 큰 눈을 들어 해빛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는 푸른숲을 응시했다.

《주장, 휴일인데 요구성을 높여 안됐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닙니다, 부단장동지! 육체훈련은 자기 과정을 안을 다 수행한후 휴식해야 합니다.》

민권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깨를 구부정하고 산아래로 수직수직 내려갔다.

문득 방금전에 윤민권이 하던 말이 귀전을 때렸다.

《이젠 늙는다는거겠지. 자주 그때 생각이 나는 것만봐도 그렇지...》

결코 그것은 늙어서 그런것이 아니다.

항시, 일생을 품고 두고두고 생각해온 생활의 교훈이 저 극절많은 인간의 가슴깊이에 못박힌때 문일것이다. 그런 생각이 바로 윤민권을 오늘과 같은 인간으로 만든것이다. 오직 존엄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모태겨온 인간, 그러나 이국의 썩고병든 사회에서는 도저히 지킬수 없었던 존엄, 그 존엄을 조국은 고스란히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것이다.

존엄! 존엄이란 무엇인가.

존엄이란 인간이 자기를 지키는 정신적힘이다. 그 힘은 조국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조국이 없는 인간에게는 존엄도 없었다.

그래서 윤민권은 자기 존엄을 빛내여주고 지켜주는 조국의 영예를 떨치기 위해 일생의 매초매초를 경기중의 링그우에서처럼 격동된 상태에서 살지 않는가!

조국의 영예, 이것은 곧 매 인간의 존엄이기에...

멀리 숲사이로 선수들이 종대로 올라왔다. 아침까지만하여도 주장에게 불만을 품었던 어린 선수도 보였다.

나는 그들을 향하며 걸음을 옮겼다.

생각깊고 기백넘치게 걸음을 옮기는 나의 가슴은 불들을 안은것처럼 뜨거웠다.

잠들수 없는 밤

윤경주

래일의 방송순서를 알리는 방송원의 모습이 사라지고 화면에 공화국기가 날리자 안해는 텔레비존스위치를 껐다. 그리고는 그자리에 앉은채 움직일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각기 생각에 잠겨 침묵속에 앉아있었다. 방금전에 본 《피땀의 원한의 고발》이 큰 충격을 주었기때문이었다. 이윽고 안해가 내 있는쪽으로 돌아앉았다.

형광등빛에 비낀 그의 눈동자에서는 분노의 섬광이 번뜩이고있었다.

《어쩌면... 글썄 어쩌면 사람을 그지경으로 만들수가 있어요. 그 악귀같은놈들을 천만갈래로 찢어죽인들 이 속이 시원할가요. 네? 어보, 말 좀 해봐요.》

안해의 분노에 찬 웨침이었다.

방금 텔레비존화면에서는 일제놈들에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한 여성수난자와 방송원간의 문답이 방영되었다.

수난자-그는 70을 넘긴 로인이었지만 얼굴을 싸쥐고 오열을 터뜨리며 눈을 감는다해도 잇을래야 잇을수 없는 지난날의 치욕에 대하여 치를 떨며 고발하였다. 그것은 그대로 피의 절규, 풀지 못한 원한이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복수자의 준엄한 단죄였고 만천하에 고발하는 론고장이었다.

갓 물이 올라 통통해지는 꽃망울처럼 피어나려던 12살 소녀, 아직은 엄마의 젖가슴을 파고들 10대의 소녀들을 끌고가 제놈들의 야욕을 채운 철천지 원수 일제침략자들.

하루에 삼사십명... 짐승도 낫을 붉힐 이 끔찍스러운 만행을 놈들은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아, 물어보자 역사여, 지구가 생겨 수십억년, 정녕 그 무수한 세월의 갈피속에 이런 귀축같은 만행이 있었던가.

임신부가 생기면 불태워죽이고 제놈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피멍이 들도록 때리다가 전주대에 매달아 목을 잘라죽이고 군도로 젖가슴을 도려내고... 무엇보다문에 과연 무엇보다문에 조선여성들이 저 바다건너는 쪽발이 왜놈들한테 이런 수치와 죽음을 당해야 했단말인가.

예로부터 조선여성들은 참대와 푸른 소나무를 마음의 기둥처럼 사랑해왔다. 그림을 그려도 참

대와 소나무를 그리기 좋아했으며 다진 언약과 맹세도 참대와 소나무에 비유하였다.

그것은 조선여성들이 참대와 같은 끈고 휘여들 줄 모르는 절개와 푸른 소나무처럼 변할줄 모르는 마음을 전통적인 미덕으로, 고결한 품성으로 여겨왔기때문이다.

송죽같은 정절, 송죽같은 마음, 그것은 곧 우리 조선여성들의 의지이고 신념이고 티없이 순결한 사랑이며 삶의 전부였다,

그 어떤 무뢰한도 악한도 조선여성들의 푸른 절개만은 꺾을수 없었다.

그런데 저 쪽발이같은 왜놈들이 감히 우리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만들다니, 천추에 용납못할 이 만행을 어찌 참을수 있단 말인가.

과연 어느 누가 놈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최근에 공화국북반부의 력사학자들이 발굴한 당시의 신문자료들과 이미 출판물에 공개된 서울 대학교의 력사자료들을 통해 1905년에 일제와 구조선 사이에 맺어진 《을사5조약》이 허위날조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력사에는 체약쌍방간에 도장까지 누른 조약을 일방적으로 뒤집어엮는다면가 형식상으로나마 협정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를 강점한 사실들은 있다.

히틀러독일이 이전 쏘련과의 불가침조약을 하루아침에 휴지로 만들어버리고 배신적인 무력침공을 한것도, 강도적인 《문헌협정》을 조작하고 체스꼬슬로벤스꼬와 오지리를 병탄한것도 그러한 사실들중의 하나이다. 그것이 비록 강도적이고 침략적이기는 하나 어쨌든 형식상 《절차》는 밟았던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그러한 《절차》마저 꺾어버리고 당시 구조선의 황제였던 고종의 도장도 받지 못한 빈종이장으로 우리 나라를 40여년동안이나 강점하였다. 고대나 중세라면 몰라도 현대력사에서 일제와 같이 그런 파렴치한 날강도를 인류력사는 아직 알지 못할것이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남의 집에 뛰어들어 일제가 감행한 만행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중에서도 력사의 증견자-수난자들의 입을 통

해 만천하에 고발된 일본군위안부만행은 인두검을 쓴 잔악무도한 《사무라이》짐승무리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죄행이다.

일제는 녀성들만이 아닌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을 징병으로, 《학도병》으로 끌고가 때려죽이고 굶겨죽이고 총으로 쏘아죽이고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만들어버렸다.

진정 얼마나 많은 무고한 조선인민들이 일제의 학정밑에서 병신이 되고 골병이 들고 무참히 희생되었던가.

오죽했으면 이런 노래까지 다 나왔겠는가.

설한풍 스산한 원한의 피바다야

참혹한 주검이 묻노니 얼마나

혁명에 피흘린자 그 얼마에 달하였나

...

신천의 유골이 있는 정든 고향과 다정한 이웃들을 버리고 살려야 살수 없어 복간도로 쫓겨간 우리 인민들을 가는곳마다에서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모조리 불사르고 피바다에 잠가버린 일제야수.

평화로운 생활과 이웃간의 화목이 시내가의 버들꽃처럼 피어나던 땅, 아침이면 새별을 머리에 이고 저녁이면 달빛에 발목을 잠그며 풍요한 들과 기름진 옥토벌에서 꿈과 행복을 가꿔가던 인민들.

아 그 땅, 그 인민을 불모의 땅, 피의 바다, 살아도 살곳 없고 죽어도 묻힐곳 없는 수난자, 나라없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일제침략자들의 죄행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놈들은 우리 인민들이 창조해놓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유적들과 귀중한 문화재들을 불살라버리고 마사버리고 도적질해갔다.

어찌 그뿐이랴.

강점 41년동안에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지하자원과 쌀을 비롯한 농산물들은 천문학적수자에 달한다.

일제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5년동안에 흰쌀은 정곡으로 수천만석이 훨씬 넘는 막대한 량을 략탈해갔다.

금, 은, 동은 생산된 전부를 일본으로 앗아갔다.

이 한두가지 사실을 놓고도 일제가 조선에서 저지른 최악의 역사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 일본의 현위정자들은 이런 역사적사실을 외면하면서 과거의 죄행에 대해 성근하

게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수난자들은 말한다.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지 않고서는 죽을수 없었기에 기를 쓰고 살았으며 그 값을 천만배로 받아내지 않고서는 가슴속에 맺힌 원한을 풀수 없었기에 녀성으로서 씻을수 없는 치욕이고 수치이지만 역사앞에 얼굴을 들고 고발자로, 증견자로 나타났다고.

묻노니, 일본의 당국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어머니와 안해와 누이와 딸을 가지고있는 모든 일본사람들, 만약 당신들이 그런 치욕을 당했다면 심정이 어떠하겠는가를 말해보라. .

또다시 묻노니, 그 어떤 나라가 위조문건 한장을 가지고 당신네 땅을 강점하고 일제가 조선에서 저지른것과 같은 그런 만행과 략탈을 감행했다면 역사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대답해보라. 리성이 있고 피와 심장과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면 10대의 어린 소년(12~14살)에게 하루에 삼사십명씩 달려들어 성폭행을 가한 짐승보다 못한 놈들을 과연 용납할수 있겠는가.

똑똑히 대답해보라.

조선녀성들에게서 가정과 자식을 낳아 기를수 있는 어머니의 신성한 권리와 모성애를 빼앗아간 낯강도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그들의 후손들이다. 한것만큼 웅당히 조선인민앞에 용서를 빌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역사는, 세계의 량심은 그리고 일제침략자들에게 다하지 못한 복수와 원한을 품고 사는 우리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나는 안해가 찾는 소리에 그만 생각에서 깨어났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진정된듯한 안해의 음성은 흥분으로 열기를 띤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맞은편 아파트창들에도 불빛이 환하다.

온 거리가 잠들지 못하고있다. 아니 온 나라가 이밤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을것이다.

하긴 조선사람치고 그 치떨리는 만행을 두고 어떻게 이밤을 잠들수 있으랴.

잠들수 없는 밤.

정녕, 이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일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저주의 총탄을 가슴가득 장탄하고있으리라! 복수의 일념으로 심장을 태우리라.

나와 나의 안해처럼...